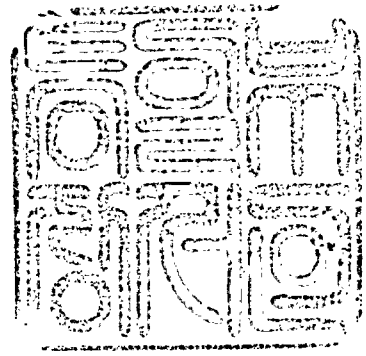
2007-12-54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

연구책임자: 황인표(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연구자: 박찬석(공주교육대학교)
정용민(휘경공고)
이소영(서울대학교)



이 연구보고서는 통일교육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위촉한 연구용역결과물로서, 반드시 통일부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목 차

Ⅰ. 연구의 개요 ·····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향 ····· 5

Ⅱ.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쟁점 ····· 15
1. 학교 통일교육의 근거(根據)로서 '평화주의' 이념 ····· 15
2.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필요성 ····· 18
3. 평화와 안보의 관계 ····· 20
4. 평화교육과 평화 운동 ····· 22

Ⅲ. 도덕과 교육 과정의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 내용 분석 및 모듈화 ····· 25

1. 초·중·고등학교 도덕과 교육 과정과 평화 내용 분석30
1) 통일 교육의 질적 제고 방안으로서의 평화 ····· 30
2) 덕목으로서의 평화 ····· 38
3) 사회 정의로서의 평화 ····· 49

2.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모듈화 예시 ····· 53
1) 초등학교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모듈화 예시 ····· 54
2) 중등학교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모듈화 예시 ····· 61

Ⅵ.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 71

1. 학교 교육 과정과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프로그램 ····· 71

2. 학교 행사 활동과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106

V.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127

1.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 127

1) 사회적 공감대(social consensus) 형성 ····· 127

2) 양적 · 질적 확대 ····· 129

3) 행정적 · 재정적 지원 ····· 133

2. 학교 통일교육의 평화 내용 반영 방안 ····· 135

3. 기타 ····· 138

VI. 결 론 및 제 언 ····· 139

부 록 ····· 145

1. 평화 교육 교수 기법 ····· 145

참고 문헌 ····· 169

<표> 목 차

<Ⅰ-1> 2007 도덕과 교육 과정의 '평화' 관련 영역 9

<Ⅰ-2> 학습 프로그램 정보표 12

<Ⅲ-1> 2007 도덕과 교육 과정의 '평화' 관련 영역 27

<Ⅲ-1> 2007년2007 도덕과 교육 과정의 '통일교육' 관련 영역 29

<부록1> 평화교육 교수 기법 체계표 147

<부록2> 조정(갈등해결)을 위한 모델 162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제7차 교육 과정이 적용되면서 학교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이라는 공식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학교 통일교육은 정치적으로 '국민의 정부'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탄력을 받았다. 2000년 평양에서 개최된 6. 15 남북 정상 회담[1]을 계기로 '통일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다가 2002년을 전후하여 현상 유지 상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의 통일교육 상황이 '현상 유지 상태'라는 평가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라기보다는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통일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자들이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2]

이러한 평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이 후퇴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새로운 통일교육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의 통일교육이 국민의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이해 교육' 중심의 통일교육에 대한 정착화에 주력하고 있었으며, 국민들 또는 교육 수요자들을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인도하거나 자극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

1) 2000.6.13-6.15일 까지 2박 3일 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담화한 첫 남북 정상회담이다. 회담 결과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6.15 공동선언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2)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의 활성화의 여부는 학교 통일 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정도와 행정업무 처리의 우선성 정도에서 드러난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학교 통일교육 관련 지원 체제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은 통일교육 관련 자료를 보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통일교육'을 교육 목표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구체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유인종 교육감은 2004년까지 통일 교육을 서울시 교육의 제 1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교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의 재정적 지원은 거의 전무하고, 행정 우선순위에서도 현격히 밀려나 있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이다(연구자 주).

이러한 가운데 2007년은 통일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하겠다. 그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교육의 내용적 차원이다. 정치적 차원에서의 이정표는 2007 남북정상회담이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만의 남북정상회담은 통일교육 차원에서 보면 향후 통일교육의 담보력 증진에 커다란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은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의 진전이나 부침에 따라 통일교육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3] 그런 의미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정체 상태에 있던 통일교육에 추진력을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판단된다.

한편, 통일교육의 내용적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평화교육[4]'의 내용이 통일교육과 접목되는 대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민간 차원에서는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평화교육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가적 차원의 본격적 도입은 2007년도 통일교육원의 적극적 정책 개입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5] 이 과정에서는 관계 전문가들이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접점을 모색하고, 개념의 정의에서부터 구체적인 교수 기법,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교육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면서 그 결과물의 산출에 전력을 다하였다.

---

3) 고병헌(2007)은 현행 통일 교육이 극복해야 할 문제가 두 가지 있다고 하면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현행 통일교육의 발전 속도가 국내외의 변화하는 정세와 그에 따른 시민의식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둘째, 현행 통일교육이 '정치적 목적'의 영향을 여전히 강하게 받음으로써, 통일교육의 향후 방향 설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4) 본 연구에서 원칙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평화교육'이 아니라 평화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심 테마인 '평화'라는 개념이다. 본 연구가 '평화교육'을 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 제목인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이라는 의미는 바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에 '평화'의 요소를 최대한 끌어들여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새로이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후술하는 본문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만, '평화교육'이라는 용어를 부분적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평화의 요소를 통일교육에 접목한다하더라도 평화는 평화교육의 핵심 주제이고(평화교육 중 주로 '평화를 위한 교육'을 말할 수 있음), 항간에서 그 의미를 혼용하고 있으므로 그 표현을 일단 차용하는데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둔다(연구자 주).

5)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이미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2002)이라는 책자를 통하여 그러한 정책 차원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2007년 10월의 남북정상회담은 통일 교육에 대한 평화교육적 접근이라고 하는 통일 교육의 질적 전환에도 좋은 계기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여러 가지 현안이 논의된 가운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이름의 공동 선언문이 산출되었다. 이 선언문에 대해 향후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겠지만, 본 연구자들이 보기에는 그 동안의 각 종 합의문의 종합판이라는 점을 평가할 수 있고,[6] 종전 선언을 통한 평화 체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선언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3항 :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중략)...

4항 :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상기의 선언문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특별히 관심이 가는 용어가 바로 '평화'이다. 남북 관계의 선언문에서 평화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통일교육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이 점에서 그 동안 통일교육이 평화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거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이 접목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교육이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평화교육론자들에

6) 본 평가는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개략적으로 볼 때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며, 구체적인 부분의 여러 가지 정책적 의의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게는 일견 당연한 방향으로 여겨지고 있다. 문제는 평화교육이 세계사적으로도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현대적 평화교육이 정착되었다고 한다(Hicks, 1992, pp. 20-1). 그리고 평화교육의 방향성도 일정하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오늘날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평화교육이 시행되고 있는데, 화이트는 평화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White, 1992, pp. 77-79).

첫째, 우리는 도덕적 존재로서 직접적인 개인적 관심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 심지어는 세계의 사회 질서와 관련된 문제들에도 관심을 갖는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의 도덕적 관심은 개인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까지 확대된다. 우리는 도덕적 존재로서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갖는다.

둘째,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은 중등 교육 단계 바로 직후, 혹은 그 기간 중에 투표권을 얻게 되며, 투표권 행사를 통하여 시민으로서 정치적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셋째, 이러한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 그들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이러저러한 결심들이 자신들의 삶, 자신들이 속한 사회, 더 나아가 세계의 나머지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위에서 설명한 요소들을 지닌 교육을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학교에서 도덕-정치 교육을 해야 하는 기본적 이유이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갈등하는 국가나 사회 집단 간의 분열을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양 집단 간의 상호 작용을 활발하게 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평화 전략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지는 평화(protected peace)가 아니라 작용하는 평화(working peace), 평화 유지(peace keeping)가 아니라 평화 만들기(peace making)를 지향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평화교육의 방향과 역사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평화교육의 역사가 길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서구에서 양차 대전을

겪으면서 평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도 6.25라는 비극을 겪고 나서 평화의 필요성을 피부로 체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의 형태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고 과정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념적 대립 속에서 적대 의식 교육 및 반공 교육에 묻혀 평화교육은 표면적으로 드러날 여지가 없었다. 평화교육의 태동은 시민 사회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성숙도와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함양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평화의 개념이 현재의 통일교육 속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견 타당한 관점으로 볼 수도 있으나, 평화의 내용은 평화교육의 형태로서 도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재하고 있다.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평화교육(평화를 위한 교육)이 가져올 통일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 평화교육의 통일교육에의 도입 정도,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적합한 교수 기법 등이 그러한 문제들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7]

이러한 문제들은 본 연구를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많은 주제들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향

본 연구는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이라는 커다란 밑그림 속에서 학교 통일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평화의 내용을 통일 교육으로 도입하여 교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콘텐츠가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7) 각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차후 관련 영역에서 상론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가 지향하고 있는 기본 방향은 "평화 지향적(평화교육적) 통일교육" 이다. 즉, 통일교육을 하되, 평화의 내용을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평화의 내용을 교육하기 위한 평화교육은 구체적으로 '평화에 대한 교육', '평화에 의한 교육', '평화를 위한 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평화'의 덕목 또는 가치가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의 통일교육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 지향적' 또는 '평화교육적'이라고 할 때의 평화교육 내용은 '평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평화에 대한 교육'도 아니고, '평화적 방법'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염두에 둔 '평화에 의한 교육'도 아니다. 그 핵심은 통일교육의 과정으로서, 통일교육의 목적으로서 '평화'를 통일 교육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고자하는 '평화를 위한 교육'인 것이다.

이것은 통일교육을 질적으로 도약하는 방안으로 평화교육을 접목하는 것이며, 그것이 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연계를 가지면서 할 수 있는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평화교육적'이라는 용어와 '평화 지향적'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8] 다만, '평화교육적'이라는 의미는 '평화교육'의 내용 영역 중 평화의 가치나 덕목을 통일교육과 접목하려 하는 방향이 '평화를 위한 교육'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장황한 설명은 본 연구에서 '평화교육'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는 바로 '평화를 위한 교육'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지향하면서(목적성),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평화교육에서 접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skill)을 활용하여(방법성), 통일교육의 질적 개선을 의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기존 통일교육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과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를 비롯한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쟁점들을 해소하는 작업에서 출발할 것이다.

8) 그 구체적인 사용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 내용에서 밝힐 것이다.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정의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의 진행에서 좀 더 분명한 정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개인의 삶에서부터 국제 질서로서의 평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생활 과정에서 내면화하여 실천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길러서 우리민족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함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출발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본 영역과 관련하여 평화교육이 가져올 통일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범위와 계열 문제, 통일교육과 '평화 지향적' 또는 '평화를 위한 교육'의 관계 설정 문제 등이 논의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론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을 위한 정당성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것을 한 마디로 "현장 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 적합성의 중요성은 이론적 뒷받침과 총론적인 정당성만으로는 학교 교육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이 시행되고 더 나아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생적인 노력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의 활성화를 촉발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현장 적합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한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본 연구에서 달성하고자하는 연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이미 앞서 언급한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 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평화교육(평화를 위한 교육)이 가져올 통일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 평화교육의 통일 교육에의 도입 정도,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적합한 교수 기법의 활용 문제, 평화교육 내용을 통일교육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문제, 각종 정책 제안 등이 그러한 내용들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상기의 논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본 연구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 분석이다. 특히, 교육 과정 중심의 실태 분석이다.[9] 현재 학교에서는 평화교육을 통일교육에 접목하는 내용,

즉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유일하게 도덕과에서 부분적으로 도입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기 때문이다.[10]

따라서 본 내용 분석은 주로 '2007년 도덕과 교육 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다른 교과 교육 과정도 부분적으로 포함하려고 하였으나,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가 거의 전무하였다는 현실적 사정 때문이었다. 그리고 현행 교육 과정의 서술 내용은 향후 교과서 저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되기 때문에 깊이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교육 과정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다행스러운 것은 새로운 '2007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는 상당한 분량의 단원이 '평화'를 주제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도덕과 교육 과정이 '평화'의 내용을 여러 단원에 걸쳐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 과정 단원들이 통일교육을 위해 설정된 것이 없지 않지만, '사회 정의' 차원이거나 '평화의 가치'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교육 과정의 내용을 토대로 평화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토대가 되어 '평화 지향적인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행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9) 실제 이 분석은 교육 과정을 구체화하는 교과서 작업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주기 위한 의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의 여러 과목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모듈(module)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교과서의 분석과 각 교과에서 반영 가능한 교과서 서술 모습 및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방대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모습의 몇 가지 모델 정도를 제공하려고 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Ⅱ장 참조).

10) 전술한 현행 도덕과 교육 과정은 '교실에서의 평화가 통일 문제와 연결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하는 평화교육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중2 도덕 교과서, 288-289참조).

<Ⅰ-1> 2007 도덕과 교육 과정의 '평화' 관련 영역

학년	내용 영역	비고 (대단원 영역)
도덕 초등 5학년	대화와 갈등 해결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도덕 초등 6학년	공정한 행동, 편견 극복과 관용, 평화로운 세상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나라·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도덕 중 2학년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청소년과 도덕
도덕 중 3학년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	세계 평화와 인류애
도덕 고 1학년	사회 제도와 정의, 평화로운 삶의 추구	사회 정의와 윤리/평화로운 삶의 추구
현대 생활과 윤리	전쟁과 평화	평화와 윤리
윤리와 사상	평화 애호의 인본주의	한국 고유 사상과 인본주의

새로운 교육 과정의 '평화 내용'은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분석하였다. 그 분석은 교육 과정 개발의 정신에 따라 분류하여 이루어졌다.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기준은 '덕목으로서의 평화', '평화 실현을 위한 정의', '통일교육의 질적 제고 수단으로서의 평화'이며, '통일교육의 질적 제고 수단으로서의 평화'의 기준을 상위의 목표로 놓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연구의 기본 방향인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에 부합하도록 해석을 유도하고 평화교육의 내용이 통일교육과 밀접한 관련 속에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교육 과정 내에서 평화교육의 단서를 포착하여 평화 지향적인 학교 통일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사나 연구자들에게 다른 교육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둘째,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논쟁점들에 대한 탐색이다. 이 장은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과정이다. 전술한 바처럼 현장 적합성의 중요성은 이론적 뒷받침과 총론적인 정당성만으로는 학교 교육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본 연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이 아직은 학교 현장에서 익숙한 영역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 형태를 의도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그 동안의 통일교육 형태와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평화교육(평화를 위한 교육)이 가져올 통일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는 없는가, '평화 지향적'이라는 말은 평화교육이 통일교육에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 것인가, 평화 지향적이라는 것은 '안보'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인가,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 교육을 위한 적합한 교수 기법을 별도로 마련할 것인가, 평화교육 내용을 통일교육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가,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 외에 다른 평화교육 내용이 학교 교육과의 충돌 가능성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필요 불급한 일부의 내용들만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셋째,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콘텐츠(contents) 및 프로그램 개발(programing)이다. 본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개발에는 새로이 개정된 도덕과 교육 과정의 평화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학교 교육에서의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것이 개발·보급될 필요가 있다.

콘텐츠와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하나의 교육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할 경우, 가장 중심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청

소년에게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내용 자료의 부족과 교육의 체계적 접근을 위한 프로그램의 부재를 해결하는 것이 1차적인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것은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의 방향이기도 하다.

가. 평화 교육적 내용을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소재, 내용 자료 개발이 중요한 관건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도덕과에서 다루고 있는 '평화'의 교육 과정 내용이 통일교육을 위해서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 학교 교육 현장에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의 틀, 즉 평화 지향적 틀에서 볼 수 있도록 기존의 자료는 배제하고 최대한 새로운 자료의 개발을 모색하였다.

다. 사회 평화교육과 청소년 평화교육의 특성 차이에서 오는 것들이 충분히 고려된 '평화 지향적'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학교 교육의 중립성과 사회적 성숙도를 반영한다는 취지가 들어 있다.

라.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교과 진도와 상관없이 학교 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수업 프로그램도 개발하려고 노력하였다. 재량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 그 예라고 하겠다.[11]

마. 프로그램 개발에는 교육 과정의 전개 속에서 필요한 수업 보조 내용 자료(이것 역시 콘텐츠에 속하나 관련 글, 사진 자료 등 좀 더 범위가 넓어짐)가 프로그램의 전개에 따라 제공되도록 하였다.

바. 경우에 따라서는 본 프로그램 중 일부는 통일교육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은유적으로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지나치게 통일 교육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겠다는 연구진들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때

11)원칙적으로 교육 과정 문서를 보면, '재량 수업 시간'은 정규 수업 시간이다. 다만, 재량 수업 시간이 통상적으로 교과 시간과는 구별되어 이해되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의 학교 행사 내용에 포함하여 서술을 한 것이다(연구자 주).

에도 학교 교육 현장에 수용 가능한 표현 방식과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여러 가지 논쟁점들을 평화 지향적 통일 교육 콘텐츠의 자료 또는 내용으로 제공하려고 하였다. 이는 독일 통일 교육에서 강조된 "사회적 이슈가 동시에 교실 문제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김창환 외, 2002).

이들 콘텐츠들은 주로 '5분 통일교육 자료' 등으로 제시될 것이다. 예를 들어, 평화의 내용과 안보 교육의 관계, 통일교육과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과의 관계 등이다.

사. 프로그램 및 보조 자료는 일정한 정보표를 근간으로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하여 현장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다음의 메타 정보표 참조).

<I-1> 학습프로그램 정보표

■ 자료 명: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table>
<tr><td>평화의 내용 분류
(평화 영역)</td><td colspan="2">평화에 관한 지식 · 내용
(국가간 문제로서 평화)</td><td colspan="2">관련 단원
(대, 중, 소단원)</td><td colspan="2">도덕 6학년
Ⅲ-3-(1)</td></tr>
<tr><td>핵심 가치</td><td>전쟁과 평화</td><td>대상</td><td>초등 고학년</td><td>통일 교육 단계</td><td colspan="2">과정으로서의 통일 교육</td></tr>
<tr><td colspan="2">교수 기법</td><td colspan="2">이해-매체활용법</td><td>수업 모형 및 시수 계획</td><td>1. 내러티브 활용
2. 2시간</td></tr>
<tr><td>학습 목표</td><td colspan="5">1. 모든 사람에게는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음을 안다.
2. 전쟁의 참상과 피해를 통해 폭력적 문제해결의 위험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td></tr>
</table>

넷째,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이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룬 내용은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을 어떻게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학교 교육 과정에 평화의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 외의 과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대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교육 과정 이외의 접근 방안으로 학교 교육의 특성에 따른 계기 교육 방안, 5분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행사성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등의 접근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학교 통일 교육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과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을 위한 행사들의 접점 모색도 중요하며, 교실과 학교를 평화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교육이 병행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 학교 평화교육 교수 기법을 정리하여 실었다. 부록에 평화교육 교수 기법을 싣는 이유는 비록 본 연구가 학교 통일교육이기는 하지만,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평화교육'의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요구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수 기법들은 학교 평화교육의 교수 기법으로 활용되기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올 수 있는 데, 하나는 학교 수업 진행 방식의 차이에서 올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현실 인식 차이에서 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평화 교수는 주로 'workshop 기법'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 평화교육도 주로 이러한 기법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상기한 문제의식 아래,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설정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가. 본 교수 기법 연구는 다른 나라나 세계 기구에서 평화교육관련 교육의 내용 및 프로그램의 원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남아공, 독일, 북아일랜드 등의 평화교육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통일·평화교육 교수 기법 적용방안을 모색하는데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나. 국내의 평화 지향의 통일교육 교수 기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내용을 통해 그간 국내에서 활용한 평화교육의 다양한 교수 기법의 원리를 한국적 현실에서의 통일교육에 접합함으로써 독자적인 교수 기법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평화교육을 실시하는 학자들은 모든 출발점을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의미 있는 우리나라의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교수학습 기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범주화하였다. 그것은 이해- 참여- 조정- 발전을 위한 교수 기법으로의 범주화이다.[12)]

(1) 이해

이해는 문제제기와 관심을 포함하는 기초적인 평화의 인식을 만들어가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 참여

평화에 대한 이차적인 것은 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서의 통일교육은 바로 함께 하기를 전제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이후 참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3) 조정

리어든 교수의 공정규칙추구(respect for fair rules), 인권과 책임의식(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정의추구(seeking justice), 악의 교정(righting wrongs)은 평화교육에서의 갈등 해소를 위한 이해->참여->조정으로의 순차적인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다.

(4) 발전

평화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평화를 보장하는 미래 사회의 건설에 헌신하는 것이다.

---

12)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하- 참여- 조정- 발전을 위한 교수 기법으로의 범주화'는 기존의 학문적 틀이라기보다는 본 연구진들의 합의에 의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여러 평화교육 학자들에 의해 전개된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이라고 하겠다(연구자 주).

Ⅱ.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 교육의 쟁점

1. 학교 통일 교육의 근거(根據)로서 '평화주의' 이념

평화론자들은 그동안 인간의 공격성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원래 인간은 평화 지향적이라고 주장한다(Gil Fell, 1992). 한 사회가 분열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갖게 되고 사회 현실적으로 불안한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므로 통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통합의 개념은 경제, 사회 협력체, 나아가 정치적 공동체로서 해당 정치 체제나 그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동체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김도태, 2002). 둘 이상의 정치 체제 사이에 통합이 추진되는 이유는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정치 체제 또는 국가로의 통합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합 또는 통일은 평화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 유지 수단으로서의 통합을 이루려는 방안으로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체제 간의 대립을 종식시키는 경우, 방임적 수렴을 통하여 통합을 달성하는 경우, 평화 공존을 유지하면서 상호 이해와 동질화를 통하여 통합을 달성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 중 위협적 요소가 상존하는 분열 상태를 평화롭게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방임적 상태에서 수렴적 방법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불안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을 통한 통일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대결 상태에서 평화 없는 통일은 불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할 수 있다(통일교육원, 2003, pp. 3-5; 국가안전보장회의, 2004, p. 29 참조). 우리가 추구하는 통합은 그 과정에 있어서나 그 결과에 있어서 평

화로운 삶을 모색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평화로운 미래와 평화 통일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평화 정착과 그를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통일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쟁을 피하고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이다. 여기에 평화주의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평화의 개념 정의는 다양하다. 가장 보편적인 구분은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나누는 것이다. 소극적 평화란 단순히 물리적 폭력, 전쟁이 부재하는 전통적 입장의 평화 개념이라고 하겠다(Galtung, 1990; Hicks, 1992). 이것은 전쟁 및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는 입장에서 전쟁 문제 해결을 통하여 평화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견해는 그로티우스Grotius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이 만들어진 이후의 일반적 입장이라고 하겠다. 적극적 평화관에서 평화로운 상태란 전쟁의 부재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경제적 복지 및 평등, 환경적으로 안정된 상태 등을 포함하는 인간 본연의 가치가 구현되고 보전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박덕기, 2002, pp. 55-6; 김정수, 2002; Hicks, 1992).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의 이념은 소극적 의미를 포함하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라고 하겠다. 또한 평화의 이념은 통일 추구의 과정으로서 가치일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추구하여야 할 궁극적 가치인 것이다. 이러한 평화주의 이념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먼저, 헌법의 규정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평화 추구의 이념을 선언하면서 규범상 소극적 의미의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허영, 1990, pp. 171-81). 권영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헌법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전쟁 부인이라는 소극적 평화주의 입장)를 지향하고 있는데, 국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도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권영성, 1988, p. 122). 그 근거는 헌법 전문(前文)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 …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헌법 제69조)을 선서하게 하는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근거들은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의 기본 원리 중의 하나가 평화

주의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권영성의 예시에 더하여 헌법의 규정을 열거하면,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사명에 입각하여…,"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제4조),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제5조 1항) 등이 있다.

이것은 분단된 조국의 현실과 무력에 의한 통일 추구가 불가능한 국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통일 과정에서 침략 전쟁은 부인하되, 분단 현실을 직시하여 국가의 튼튼한 안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 헌법은 침략 전쟁을 부인할 뿐, 자위 수단으로서의 전쟁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통일교육지원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 교육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의 표현 속에 있는 안보와 평화의 개념을 별개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안보의 개념 속에는 경계선 밖의 상대방이 적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의 부재, 즉 소극적 평화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의 강화는 소극적 평화의 개념 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평화를 바탕으로 적극적 평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의 논의에서 언급한 소극적 평화의 바탕 위에 적극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즉, 전쟁의 위협을 없애면서 평화로운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일찍이 미트라니(Mitrany, 1948)가 제시한 기능주의적 접근(functional approach)이 그 한 예이다. 기능주의적 접근은 평화 공존과 평화 통일 달성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일교육의 이념으로 평화주의를 채택해야 하는 근거는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한국국민윤리학회, 1993). 유

구한 역사 속에 면면히 이어져 오는 우리 조상들의 평화 애호의 정신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나 국내 통치 과정에서 중요한 이념이었다. 외국의 무력 침공에 대해 침략자를 응징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려 했던 노력,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 사건이 거의 없다는 사실,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3·1 무저항 비폭력 운동의 정신 등은 평화 애호의 사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통일교육의 이념으로서 필요한 요소인 평화주의 접근이 갖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추병완, 2003). 통일은 지난한 과정이다. 서둘러서 하나의 체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적응 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더 많은 희생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하나가 되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분단의 고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로운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동시에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 교육의 필요성

평화 교육관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에서 평화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접목하려는 노력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통일교육을 평화교육[13]으로 대체하려는 입장이고(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01), 다른 하나는 통일교육의 방법으로 평화 교육적 방법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현재 통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자의 관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황인표, 2002; 추병완, 2003).

우리가 남북 간에 평화 공존 체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국가적 평화를

13)앞서 밝힌 바대로, 이하에서 사용하는 '평화교육'의 의미는 '평화를 위한 교육'의 의미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연구자 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상생활의 평화'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통해 군사주의와 고도성장을 위한 경쟁 체제 속에서 잃어버린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해야 한다. 평화교육의 결과, 긍정, 좋은 의사소통, 협력, 갈등 해결이라고 하는 산출물을 얻을 수 있다(Gil Fell, 1992). 그러므로 과도기적인 단계가 요구하는 통일교육의 또 다른 참여 방식은 우선 남한 사회 내에서의 대북 문제와 관련하여 '남-남 대화'에 보다 집중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평화교육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한 측면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좋은 태도에 관한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 전쟁, 군축' 등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토론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좀 더 모호한 측면이다(Hicks, 1992).

이러한 관점에서 첫 번째 내용에 대한 접근은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의 평화교육이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다.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접목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현재의 통일교육이 정책 중심의 교육이라는 점을 십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평화교육에서 제시하고 있는 힘을 통한 평화교육 또는 세계 질서로서의 평화교육 내용은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군사적 낭비의 문제, 국가 간의 대립 문제, 국제 사회에서의 갈등 문제 등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가 통일을 과정 중심으로 보는 유연한 자세의 평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추병완, 2003). 과정을 중시하는 단계에서는 상호 공존공영의 덕목을 습득할 수 있다. 이것은 전쟁의 공포로부터의 해방이며, 대립과 경쟁에서 오는 낭비를 줄이고 상대방에 대한 지원과 이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 이전 단계에서는 공존의 논리에 의해서, 통일 이후의 단계에서는 세계 시민주의 입장을 함양하는 것에서 평화교육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세계에 대한 안목을 필요로 하고, 구조적 폭력을 문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갈등의 중재와 해소 도구로서 평화교육이 필요하다. 통일 이전이나 통일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문제는 너무도 많다. 지역 갈등, 남북의 의식 갈

등, 사고방식의 갈등, 남북의 빈부 차에 의한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교육은 이의 해결을 위한 현명한 도구이다.

다섯째, 통일교육에서 평화 교육적 접근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통일 이후에도 우리 민족이 희구하고,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우리 민족의 평화 애호 정신을 드높이기 위해서이다. 평화의 이념을 통일 이후의 과정에서도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에 대한 주변국들의 침략상에서도 연유한다고 하겠다(허영, 2006 참조). 우리 주변국들은 아직도 대립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일 이후의 국제 관계에서 상존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은 평화의 이념을 통해서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곧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평화와 안보의 관계

통일교육에서 평화를 강조하면 안보 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우리의 현 상황에서 평화교육적 접근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평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동시에 통일교육에서 평화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안보와 평화의 개념을 별개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안보의 개념 속에는 경계선 밖의 상대방이 적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의 부재, 즉 소극적 평화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의 강화는 소극적 평화의 개념 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평화를 바탕으로 적극적 평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14]

14)통일 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통일 교육의 내용으로 민족 공동체 교육, 민주 시민 교육, 국가 안보 교육을 제시하고, 국가 안보 교육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생활 방식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그에 대응하는 의지를 진작시키는 교육으로 보는 설명이 있다(추병

한편,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이해는 보다 포괄적인 평화와 안보 이해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 놓였던 군사력에 근거한 국가 안보 중심주의는 환경, 경제, 복지, 인권, 평화를 포괄하는 '인간 안보' 개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과 남한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공존·공영해야 할 '공동 안보'의 인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기존의 국가 안보 개념을 '인간 안보'의 개념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요구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펴낸 1994년판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것은 그간 안보를 국가 안보 혹은 영토 안보로 해석해왔던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간 안보로 강조점을 옮겨 놓게 되었다.

인간 안보의 의미는 ① 국가보다 개인과 그들의 공동체를 안보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② 국가의 안보는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③ 폭력적·비폭력적 위협으로부터 구서원의 안전을 보호 하고, ④ 개인의 안녕을 지구적(생태적) 평화를 성취하는 것과 결합하고, ⑤ 기존의 국가 안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려는 노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 안보를 인간 안보의 개념으로 확장할 경우, 기존의 분단 극복과 통일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런 인간 안보가 국방의 과제를 소홀히 하자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그간의 인습적인 대응 방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대안적인 형태를 모색하자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의 평화는 바로 이 같은 공동 안보·인간 안보라는 포괄적 인식을 기초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현재의 통일교육의 평화 인식은 전쟁과 물리적 폭력이 극복된 소극적 평화를 포함하는 내용,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극복한 적극적 평화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기초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완, 2000, pp. 22-3 참조). 그러나 국가 안보 교육의 내용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그 이념상의 위계로 볼 때, 평화교육(소극적 평화)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 변화의 실익(實益)은 체제 이념 논쟁(양 체제가 대립적 상황에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평화교육과 평화 운동

통일교육에서 평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반전·반핵의 적극적인 의사를 실천해 보여 주어야 하는 평화운동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 또한 그간의 통일교육을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통일교육이 전반적으로 평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보면,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평화에 대한 다양한 인식에서 우리 사회에서 활용가능한 평화의 내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교육은 예를 들면, 남북한의 사회·문화의 '다름'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하며, 체제와 이념으로 인한 '이질성'은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 운동은 과정으로서의 평화에 대한 진보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거나, 과도적 단계로서의 '사실상의 평화'에 대한 강조보다는 '적극적인 평화'로의 운동을 지향한다. 따라서 평화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통일교육의 평화는 남북한이 서로 오가는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의 통일'에 대한 강조는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 극복을 찾는 것이며, 더불어 같이 할 남북한의 체제와 이념에 대한 논의보다는 실제적인 사회·문화적 '다름'의 수용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 지향적 문제의식을 교육현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평화 교육적인 입장이라면, 평화 운동의 입장은 문제를 제기하여 전반적인 평화에 대한 소신을 교육의 장에서도 다루어 주기를 바라는 경향성을 갖는다. 평화 운동은 전향적인 사회 운동으로 자신의 평화에 대한 주장을 그대로 관철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그렇기에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교육은 평화 운동의 성격과는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교육은 그 역사적·사회적 맥락으로 볼 때, 통일교육과의 관계를 벗어나서는 제대로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평화'란 우선 '남과 북의 평화'이다. 이 평화는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적 평화도 포함한다.

그것을 떠나서 평화를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평화'는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는 절대 절망의 요구이며, 이것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남북 평화 통일의 출발선이 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 통일'은 힘의 우위에 의한 강제적인 통일이 아니며, 승패의 게임이 아니라 남북이 상호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를 바탕으로 상호 합의, 협력하여 이루어 가는 통일이다. 따라서 올바른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은 우리의 통일 문제가 안고 있는 평화적 내용과 다양한 인식 속에서의 다원주의를 배울 수 있는 문화 연구, 국제이해 등의 내용들이다. 이렇듯 분단과 전쟁 위기의 특수한 조건 속에 놓인 한반도에서는 '통일교육'이 '평화교육'을 어느 정도 수용할 근거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접근하여야 할 통일교육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남북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교육적 목표는 사회운동 차원에서의 평화 운동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 내용과는 다소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앞으로의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소극적인 평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확신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Ⅲ. 도덕과 교육 과정의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내용 분석 및 모듈화

도덕과 교육 과정의 평화 내용 및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도덕과 교육 과정(교과서)에서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탐색과 새로운 '2007 도덕과 교육 과정' 내에서 평화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것을 통일교육으로 전화(轉化) 또는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연결 고리로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한 분석 내용은 물론 후자의 것이다.

이 분석은 교육 과정을 구체화하는 교과서 작업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주기 위한 의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의 여러 과목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모듈(module)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교과서의 분석과 각 교과에서 반영 가능한 교과서 서술 모습 및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방대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모습의 몇 가지 모델을 제공하려고 노력 하였다.

현재 학교에서는 평화 교육을 통일교육에 접목하는 내용, 즉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유일하게 도덕과에서 부분적으로 도입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현행 제7차 도덕과 교육 과정도 원칙적으로 통일교육의 방향성이 '평화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교육 내용에 평화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서 부분적으로 교과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영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내용은 '교실에서의 평화'가 '통일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생각하게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평화교육의 내용을 통일교육에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중2 도덕 교과서, 288-289). 그럼에도 이러한 과정

이 필요한 이유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내용 분석은 주로 '2007년 도덕과 교육 과정'[15]이었으며, 전술한 현행 교육 과정에 서술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본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다행스러운 것은 새로운 '2007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는 상당한 분량의 단원이 '평화'를 주제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도덕과 교육 과정이 '평화'의 내용을 여러 단원에 걸쳐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 과정의 구성 과정에서 요청된 기본 정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통일교육을 위한 단원은 "국가·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의 영역 속에 배치시키고, '사회 정의' 차원이거나 '바람직한 이상 사회의 모습'으로 제시된 것은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영역이나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영역에 배치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교육 과정의 내용을 토대로 평화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는 '평화 지향적인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행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다른 교과 교육 과정도 부분적으로 포함하려고 하였으나,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가 거의 전무하였음을 밝혀 둔다(연구자 주).

<Ⅲ-1> 2007 도덕과 교육 과정의 '평화' 관련 영역

학년	내용 영역	비고(영역)
도덕 초등 5학년	대화와 갈등 해결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
도덕 초등 6학년	공정한 행동, 편견 극복과 관용, 평화로운 세상	우리·타인·사회와의 관계/나라·민족·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도덕 중 2학년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청소년과 도덕
도덕 중 3학년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	세계평화와 인류애
도덕 고 1학년	사회 제도와 정의, 평화로운 삶의 추구	사회정의와 윤리/평화로운 삶의 추구
현대 생활과 윤리	전쟁과 평화	평화와 윤리
윤리와 사상	평화 애호의 인본주의	한국고유사상과 인본주의

새로운 교육 과정의 '평화 내용'은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분석은 교육 과정 개발의 정신에 따라 분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과정 개발의 기준은 '덕목으로서의 평화', '평화 실현을 위한 정의', '통일교육의 질적 제고 수단으로서의 평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의 질적 제고 수단으로서의 평화'의 기준을 상위의 목표로 놓고, '덕목으로서의 평화', '평화 실현을 위한 정의'의 기준을 보다 하위의 목표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이것은 이른바 힉스(Hicks, D)류의 순수한 '평화교육'을 위한 분석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평화교육'을 위한 평화 내용의 분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힉스 등이 제시하고 있는 평화교육의 지향점과 같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데이비드 힉스가 제시한 평화교육의 통합적 성격의 유형화 및 도식화는 평화교육을 이해하는 좋은 도구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한 여러 가지 평화에 관한 지식, 평화를 만드는 기술, 평화의 가치와 태도는 본 장의 분석에서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도덕과 교육 과정의 평화 내용 분석은 본 연구가 지향하는 기본 방향인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에 부합하도록 해석을 유도하고, 평화교육의 내용이 통일교육과 밀접한 관련 속에 구성되어야 함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방대한 평화교육의 내용 모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2007 도덕과 교육 과정에 들어온 평화교육의 내용을 통일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가, 어떠한 목적(기준)을 가지고 서술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여 평화 지향적인 학교 통일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사나 연구자들에게 또는 다른 교육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평화교육의 내용과 통일교육의 결합, 즉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을 위한 모듈(module)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2007 도덕과 교육 과정'의 통일교육 내용 실태도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2007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는 2개의 학년에 걸쳐서 통일 내용과 평화의 내용이 동일 단원명에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6학년 『도덕』과 고등학교 선택과목의 『현대생활과 윤리』의 '평화와 윤리' 단원이 그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새로운 '2007 도덕과 교육 과정'의 통일교육 내용, 그리고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이 한 단원에 편제된 영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Ⅲ-2> 2007 도덕과 교육 과정의 '통일교육' 관련 영역

학년	내용 영역	비고(단원)
초등 3학년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아픔	
초등 4학년	우리나라· 민족에 대한 긍지,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의 통일 노력	
초등 5학년	북한 동포 및 새터민의 삶 이해 재외 동포에 대한 관심	
초등 6학년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평화' 교육 내용과 동일 단원을 이루고 있음
중 2학년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북한 주민과 민족애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통일과 민족 공동체 윤리
고 1학년	민족과 윤리	
현대 생활과 윤리	민족 통합의 윤리적 과제	평화와 윤리 ('평화' 내용과 동일 단원을 이루고 있음)

1. 초·중·고등학교 도덕과 교육 과정과 평화 내용 분석

1) 통일교육의 질적 제고 방안으로서의 평화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평화교육을 통일교육에 접목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는데,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황인표, 2006). 우리나라에서 평화교육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며, 초기 독일의 평화교육을 소개하는 단계에 머무르다가, 양적·질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한 시기는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걸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교육이 비록 내용적으로 접목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을지라도 통일교육과의 만남, 즉 평화지향적 통일 교육의 맹아를 이룬 시기가 80년대 말 90년대 초라고 할 수 있다(박보영, 2007; 고병헌, 2007).

앞서 밝힌 바대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접목하려는 방향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통일교육을 평화교육으로 대체하려는 입장(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01)과 통일교육의 방법으로 평화교육적 내용과 방법을 동원하려는 입장이 그것이다. 현재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자의 관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황인표, 2002; 2006; 추병완, 2003).

통일교육 연구자들이 평화교육적 요소를 결합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존의 정치적 내용 중심의 통일교육을 계속할 경우, 체제 논쟁에 휘말릴 염려가 있지만, '평화교육적(또는 평화 지향적)'으로 접근하면, 이런 갈등의 소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과 좀 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하고자 함에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통일교육이 지금 과도기적 단계에 있음을 고려하면,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결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통일교육의 질적 제고 수단으로서 이러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즉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만남을 위한 노력이 교육 과정 속에 나타나 있다. '2007 도덕과

교육 과정'에 그러한 내용의 일부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도덕』 6학년 'Ⅲ영역: 나라·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 '편견 극복과 관용/ 평화로운 세상(이상 평화교육 영역)/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통일교육 영역)'을 배치하여 함께 다루도록 하고 있고, 고등학교 윤리 선택 과목의 『현대생활과 윤리』 'Ⅵ. 평화와 윤리' 영역에 '민족 통합의 윤리적 과제(통일교육 영역)/지구촌의 윤리적 상황과 과제/전쟁과 평화(평화교육 영역)'를 배치하여 함께 다루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내용 분석 1

● 교육 과정 영역

윤리 선택 과목 『현대생활과 윤리』 "Ⅵ. 평화와 윤리"

● 교육 과정 내용

㈎ 민족 통합의 윤리적 과제

우리 민족의 통일과 관련된 제반 문제가 민족공동체의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민족관 및 통일관을 함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국제화 및 세계화의 시대흐름 속에서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것인가, 바람직한 통일 방향이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토론한다.

① 지구촌 시대 민족의 정체성 문제와 민족 통합 문제의 관련성
② 국방의 의무에 대한 자신과 국가의 관점 비교(병역 거부 문제 등)
③ 통일 방법과 평화 비용
④ 북한 주민들의 우리 사회 정착에 따른 제반 윤리적 문제
⑤ 재외 동포의 문제와 한민족 네트워크

㈏ 전쟁과 평화

국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 관계의 윤리성 회복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분쟁 지역, 세계 각국이 평화를 위해 펼치고 있는 활동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국제 관계에서 윤리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조사·분석한다.

① 국제 관계의 윤리성
② 문명의 충돌과 갈등 해결의 방안
③ 평화 가치의 중요성(개인의 평화에서 국제 관계의 평화까지)

● 교육 과정의 분석

새로운 도덕과 교육 과정은 평화의 문제가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일 수 있음을 부분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7도덕과 교육 과정'에 의하면, 표 <Ⅲ- 2>와 전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개의 학년에 걸쳐서 평화의 문제를 통일교육의 단원에 함께 배치해 놓고 있다.

'Ⅵ. 평화와 윤리' 단원은 큰 테두리에서 보면, 민족 통합의 문제가 지구촌의 윤리적 상황과 과제의 범주 속에 들어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며, 세계 평화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족 통합의 윤리적 과제'라는 주제 속에 들어 있는 소주제 또는 하위 주제들이 명시적으로 '평화'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내용은 많지 않다.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③ 통일 방법과 평화 비용'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하위 주제들을 보면, 재외 동포와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문제나 지구촌 시대의 민족 정체성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병역 의무와 평화 비용의 문제를 민족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하여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하위 주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술될지는 교과서 저자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고 하겠다.

'(다) 전쟁과 평화'의 단원에서는 국제간의 갈등, 평화 가치의 중요성을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의 평화의 중요성까지 강조하고 있다. 본 단원은 민족 공동체 형성의 문제(통일의 문제)를 국제적인 평화 문제의 일부로 보고 교과서 서술 또는 교육 과정을 해석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겠다.

나. 내용 분석 2

● 교육 과정 영역

중학교 9학년 『도덕』 "나라 · 민족 · 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세계 평화와 인류애>

● 교육 과정 내용

(나)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의 다양한 원인을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 등의 평화적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 진정한 인류애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평화 운동의 사례를 찾아본다.

① 평화의 소중함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원인들

② 비폭력과 평화(진정한 평화의 의미)

③ 남북한 상생의 추구

④ 외국의 재난과 우리의 협조

● 교육 과정의 분석

본 주제 역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이 접목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영역 중 하나이다. 본 영역은 중학교 마지막 단계에서 통일교육이 평화 지향적으로 질적 전화(轉化)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본 단원의 특징은 다른 학교 급에서와 달리 평화의 문제가 남북한 상생에 작용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주제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평화를 위협하는 많은 국지적 분쟁과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 인류의 역사상 갈등과 분쟁, 폭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는 거의 없었다. 그러다보니 인간은 늘 평화를 갈망하고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질적으로 평화는 그 자체가 이미 많은 도덕적 가치들이 실현된 결과이다. 즉 진정한 평화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세계 평화와 인류애를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덕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주제에서는 진정한 평화의 의미와 평화의 소중함 그리고 남북한 상생을 위한 평화의 추구와 아울러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원인,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평화 활동 등을 교수·학습한다. 평화는 소극적 의미에서는 전쟁이나

폭력의 부재 상태를 말하나, 적극적 의미에서는 전쟁과 폭력을 발생하게 하는 여러 원인들이 제거된 상태 즉 빈곤과 기아, 정치 및 종교적 억압, 부정의(不正義) 등의 사회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제거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이 조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달리 말하여, 평화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전쟁과 폭력의 부재이며 평화의 충분조건은 인간이 더욱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다. 한편,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세계 평화는 개별 국가의 주권이 평등해져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세계 각국과 인류가 평화와 상호 도움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평화 운동에 매진할 때 실현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남북한 간의 상생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다. 내용 분석 3

● 교육 과정 영역

초등학교 6학년 『도덕』 "Ⅲ.나라·민족 ·지구공동체와의 관계"

● 교육 과정 내용

㈏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이 보편적이고 상생적이며 현실적인가를 살펴보고, 좀 더 보편적이고 상생적이며 현실적인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우리 민족과 동북아 전체가 평화롭고 공동 번영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극복 방안을 찾아본다.

①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 평가

②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③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 설정

㈐ 평화로운 세상

지구촌 시대에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세계 평화가 인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본다.

① 지구촌 시대에 세계 평화가 인류에 끼치는 영향

②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③ 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과 자세

● 교육 과정의 분석

본 단원 역시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 평화의 문제가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임을 부분적으로 고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 단원의 주제 구성을 보면, 평화의 문제를 통일 교육의 단원에 함께 배치해 놓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나)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의 주제 개요에서 좀 더 분명하게 통일 문제와 평화의 문제가 직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이 ..... 좀 더 보편적이고 상생적이며 현실적인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미

래상을 설정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우리 민족과 동북아 전체가 평화롭고 공동 번영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한국의 모습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도구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통일 성취는 평화의 실천력 강화를 통한 평화 문제의 해결력 증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과정 내용들은 평화의 내용이 통일교육의 질적 제고 방안으로서, 통일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통일 문제가 국제적 관계 속의 평화를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점만이 강조되다 보니 통일 문제와 평화가 우리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되고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 문제는 다음에서 분석하려는 '덕목으로서의 평화'와 '사회 정의 구현의 수단으로서의 평화'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것을 통일교육에 활용하는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2) 덕목으로서의 평화

덕목으로서의 평화, 또는 평화의 가치는 인간의 삶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것 중의 하나일 것이다.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은 인간 개인으로서, 그리고 자신이 속한 환경으로서, 지구 또는 우주의 질서로서 가장 기대되는 것이다.

무엇이 평화(平和, peace)인가. 자칫, 쉽게 사용되고 있는 평화라는 말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평화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유네스코 제18차 총회(1974)"였으므로, 먼저 그 결의 내용을 살펴보자.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진보와 정의의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자기 몫의 정신적, 물질적 자원들을 향유할 수 있는 국제 사회의 건설"과 그러한 "사회의 건설을 굳건히 하는 일에 뜻을 두고 있는 모든 민족들 간의 상호 존중의 과정을 함축하고 있다."

상기의 내용을 보면, 평화는 실체적인 것과 절차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고,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그리고 국제 질서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화라는 덕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개인적 차원에서든 사회적 차원에서든)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가 무엇인지는 모를지라도, 평화를 위해서 제거되어야 하거나 평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은 있는 것이다. 제거되어야 할 대표적인 것, 평화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갈등과 폭력'이다.

'2007 도덕과 교육 과정'은 이러한 관점에서 최소한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교육 과정 내로 흡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통일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내용 분석 1

● 교육 과정 영역

초등학교 5학년 "우리 · 타인 · 사회와의 관계"

● 교육 과정 내용

> ㈐ 대화와 갈등 해결
>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덕적 갈등의 원인과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덕적 갈등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도덕적 갈등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장 · 단점을 분석하고, 평화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① 도덕적 갈등의 원인
>
> ②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갈등의 해결과 그렇지 않은 경우
>
> ③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구체적인 과정과 절차

● 교육 과정의 분석

일반적으로 평화교육에서의 '갈등 해결'은 모든 문제에 대한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키운다. 그러나 본 단원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갈등 사태 중 '도덕적' 문제에 대한 갈등 해결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고, 갈등의 대상적 범위를 대화나 대면이 가능한 '우리 또는 타인'간의 갈등 해결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갈등의 범위에 있어서도 '전쟁' 과 같은 극단적인 갈등 상황보다는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부재로 나타나는 갈등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해결 방안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그 구체적인 과정 및 절차를 교육 과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화교육에서는 갈등 해결을 위해 '의사소통'의 기술과 '분노 조절'의 기술, '개방과 관용'의 가치·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단원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와 평화적인 해결이 가져올 구체적인 이점들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교육 과정 요소라고 생각된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 내용 분석 2

● 교육 과정 영역

초등학교 6학년 "나라·민족·지구공동체와의 관계"

● 교육 과정 내용

> ㈐ 평화로운 세상
>
> 지구촌 시대에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세계 평화가 인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본다.
>
> ① 지구촌 시대에 세계 평화가 인류에 끼치는 영향
>
> ②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
> ③ 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과 자세

● 교육 과정의 분석

본 영역은 힉스의 분류에 의한 평화교육 접근 방법으로 보면, '세계 질서로서의 평화교육' 영역이 될 것이다. 이 접근법에서는 "평화는 세계 질서 속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으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세계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다."(정현백 · 김정수, 2007)

주제에 대한 개요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본 영역에서는 한 개인 또는 전체 인류의 삶, 그리고 한 국가의 태도나 행위가 세계의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습득된 평화교육의 내용을 통일교육으로 접목하는 것은 한반도의 문제가 국내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이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변국들,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과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함께 동참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 4개국과 6자 회담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다. 내용 분석 3

● 교육 과정 영역

초등학교 6학년 『도덕』 "나라 · 민족 · 지구공동체와의 관계"

● 교육 과정 내용

(가) 편견 극복과 관용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도 존중하는 관용의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문화 차이 때문에 상대를 차별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찾아본다.

① 예절, 관습 등을 포함한 다른 문화에 대한 우리의 편견

②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례와 공존의 장점

③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 교육 과정의 분석

길 펠(Gil Fell, 1992)은 평화에 관한 전망과 전략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화의 장애물'로 다음의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 요람에서부터 빚어지고 있는 남녀 차별 교육, 둘째, 경쟁과 갈등에 대한 해석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것, 셋째, 장애에 대한 두려움, 넷째, 인간의 공격성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 즉 인간의 본성에 대한 편견, 다섯째, 언론 및 대중 매체가 행하는 선전이 그것이다.

길 펠의 언급에서 강조된 것이 '편견'의 극복에 대한 것이다. 편견에는 모든 대상에 대한 것들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관념에 대한 편견에서부터 사람에 대한 편견(외국인, 특이 기호자 등), 문화에 대한 편견, 새로운 상황에 대한 편견 등 평화로운 공존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해당될 수 있다.

본 단원의 교육 과정은 순서대로 한다면 개인간의 편견 등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나,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 문제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문화적 편견을 우선적으로 타파하려는 목적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하겠다.[16]

16)9학년 중학교 2학년에서의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도 문화에 대한 편견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나 '사람'에 대한 편견 문제가 추가되어 있는 정도이다(연구자 주).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하면, 북한 주민이나 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관점으로 도입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남과 북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 문화 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편견을 극복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은 남과 북의 통합 과정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의 민주 시민 사회를 이루는 요건으로도 중요하다. 물론, 편견을 극복하고 관용의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은 평화교육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른 여타의 교육 또는 가치에서도 강조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라. 내용 분석 4

● 교육 과정 영역

중학교 2학년(8학년) 『도덕』 "우리 · 타인 · 사회와의 관계"<청소년과 도덕>

● 교육 과정 내용

㈏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갈등에 폭력적으로 대처했을 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폭력을 예방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폭력 사례와 폭력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 ① 갈등 사례와 갈등 증폭의 이유 ② 폭력을 행사한 사례들과 문제점 ③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 ④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

● 교육 과정의 분석

초등학교 5학년 <대화와 갈등 해결>단원에서 습득한 초보적 수준의 수많은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 능력을 좀 더 추상적이고 가치적 수준으로 고양하기 위한 단원이다. 특히, 본 단원에서는 폭력의 형태와 문제, 그리고 대체 방안을 체득하게 함으로써 평화로운 삶과 세계 평화 실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주제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폭력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은 개인적 형태의 폭력과 집단적 형태의 폭력이 있으며,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 있고, 행위에 의한 폭력과 부작위에 의한 폭력 등이 있다. 따라서 각각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도 개인적 차원의 대응 방법과 제도적 차원의 대응 방법이 있음을 제시한다. 폭력이 자행되는 공간에 있어서도 국가간의 폭력만이 아니라 교실 상황에서의 폭력도 자행될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화와 협상 등의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에서는 외국의 다양한 갈등 해결 프로그램 즉, 이스라엘의 대면프로그램, 북아일랜드의 상호이해교육, 미국의 갈등해결 교육, 남아프리카의 교육개혁 운동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적절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

마. 내용 분석 5

● 교육 과정 영역

중학교 9학년 『도덕』 "나라 · 민족 · 지구공동체와의 관계"<세계 평화와 인류애>

● 교육 과정 내용

(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편견 극복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며, 문화 교류와 체험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타문화와 우리 문화를 비교·분석하고, 타문화와 교류·체험할 때에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하여 토론한다.

①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상대주의적 태도

② 다른 나라 풍습 중 우리가 존중해야 할 것

③ 문화적 차이로 인한 편견이나 오해(혼혈아, 해외입양아,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편견 등)

④ 타문화 이해를 위한 문화체험, 문화교류

● 교육 과정의 분석

이 주제에서는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습득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존중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 사회 내의 소수 문화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대한 극복 등을 교수·학습한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인종과 국가, 지역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 관습, 종교 등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우열이 있거나 상호 비교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다름 그 자체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타문화를 존중하는 것과 타문화를 숭배하는 것은 다르다. 즉 다른 나라의 문화나 풍습 중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풍토에서는 수용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도 있다. 또한 타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문화체험이나 문화 교류를 할 때 사전 학습을 통해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상대 문화에 대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내 거주 소수 문화 대상자(혼혈아, 귀화자,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극복하여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풍부히 유지하고,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본 단원이 통일 교육에서 갖는 의의는 앞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설명하였다.

바. 내용 분석 6

● 교육 과정 영역

고등학교 10학년 『도덕』 "자연 ·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 교육 과정 내용

> ㈎ 평화로운 삶의 추구
>
> 인간 삶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요소임을 알고 현실 속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은 분석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현실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 원인과 해소 방안을 찾아본다.
>
> 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본 사회적 갈등의 원인
>
> ② 용서와 화해
>
> ③ 도덕적 삶과 내적 평화의 관계(마음의 평정과 부동심)
>
> ④ 인간과 자연 및 우주와의 조화 추구

● 교육 과정의 분석

본 주제는 다른 평화의 내용 영역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나(따라서 우리 · 타인 · 사회와의 관계 영역에 속함) 민족 또는 지구공동체 속의 질서로서(따라서 나라 · 민족 · 지구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 속함) 다루고 있음에 대하여 <이상적인 삶>이라는 대 주제 속에 하나의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평화로운 세상과 삶의 추구가 가장 바람직한 이상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본 주제에서는 평정심이나 부동심 같은 윤리학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끌어들여서 내용 요소를 풍부하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서 언급한 '덕목으로서의

평화' 영역에서 분류하고 정리한 내용(갈등 및 편견 등)을 그대로 다시 언급하고 있다. 교육 과정 구성에서 다소 신중을 기하지 못한 소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주제를 포함한 많은 교육 과정 내용들이 평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평화교육과 더불어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에 유용하리라고 생각된다.

사. 내용 분석 7

● 교육 과정 영역

초등학교 6학년 "나라 · 민족 · 지구공동체와의 관계"

● 교육 과정 내용

㈐ 전쟁과 평화 국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 관계의 윤리성 회복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분쟁 지역, 세계 각국이 평화를 위해 펼치고 있는 활동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국제 관계에서 윤리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조사 · 분석한다. ① 국제 관계의 윤리성 ② 문명의 충돌과 갈등 해결의 방안 ③ 평화 가치의 중요성(개인의 평화에서 국제 관계의 평화까지)

● 교육 과정의 분석

본 영역 역시 힉스의 분류에 의한 평화 교육 접근 방법으로 보면, '세계 질서로서의 평화교육' 영역이 될 것이다. 이 접근법에서는 "평화는 세계 질서 속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으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세계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정현백 · 김정수, 2007)

국제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평화의 양상을 파악하여, 전쟁이라는 폭력의 극치가 여전히 현실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본 주제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특히, 국제 관계의 윤리성에서는 현실주의 입장(전쟁과 폭력)과 이상주의(대화와 타협) 입장이 교차하면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제 관계의 문제들이 해소되어 가는 것을 학생들이 알게 한다. 국제 질서에는 여전히 힘을 통한 세계 평화의 유지라는 행태가 존재하고 있음을 안다.

남과 북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와 교류를 행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는 힘이라고 할 수도 있다. 현재 남북간의 평화 공존은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남측의 힘의 우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 사회 정의로서의 평화

평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때로는 가시적으로,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는 폭력들을 없애는 데에서 출발한다. 여기에서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나 잠정적 폭력도 포함한다(Hicks, 1992). 결국, "평화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Carter, 2002,)라고 하는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의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물리적 폭력의 문제가 1차적인 평화의 문제라면, 잠정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으로 인한 불합리, 부조리를 바로 잡는 정의의 실현 문제는 2차적인 평화의 실현이며 궁극적인 평화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2007 도덕과 교육 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에 <사회 정의와 윤리> 단원을 설정하고, 초등학교 6학년에 "공정한 행동"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단원들은 모두 "우리 · 타인 · 사회와의 관계" 영역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단원들의 설정은 평화의 교육 내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평화교육의 한 형태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회 정의로서의 평화의 교육 내용이 남북 관계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통일교육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과정으로서의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반영하여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 이후 구조적인 차별 문제나 자원 배분 문제와 관련한 이슈들에서는 적용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된다.

가. 내용 분석 1

● 교육 과정 영역

초등학교 6학년 "우리 · 타인 · 사회와의 관계"

● 교육 과정 내용

(나) 공정한 행동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줄이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불공정하다고 느낀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여 공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자신이 공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을 찾아본다.

①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의 느낌

② 불공정한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

③ 공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

● 교육 과정의 분석

'공정한 행동'은 교육 과정상 정의라는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인간의 공동체 삶에 있어 정의를 실현하고 조화와 평화를 이루어 가는데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공정한 삶의 자세를 기르기 위한 취지에서 설정된 것이다. 이 지도요소를 가르침에 있어서는 우선 공정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의지를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의 여러 의미를 이해하고 각자에게 합당한 대우와 몫을 배분하는 것으로서의 공정과 그 속에 담긴 기본정신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일,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정이 잘 준수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들에 어떤 결과들이 빚어졌는지를 파악하는 일 등을 통해 인식을 깊게 하고 공정한 삶의 자세를 기르는 접근이 요청된다 하겠다.

공정한 삶에 필요한 절차적 정의를 알고 이에 의거하여 의사결정과 실천을 실행해 보는 일, 학급·학교, 가정에서 공정한 생활을 구현해 가기 위해 약속이나 규칙 또는 제도 등(학급 법정 운영하기 등)을 공동 논의를 통해 수립하고 이를 실제로 실천해 가는 일 등이 실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내용 분석 2

● 교육 과정 영역

고등학교 10학년 『도덕』 "우리 · 타인 · 사회와의 관계"영역의 <사회정의와 윤리>

● 교육 과정 내용

> ㈎ 사회 제도와 정의
>
> 현대 사회 제도의 중요성과 의미, 그리고 기능을 이해하며, 제도의 불공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이를 위해 제도의 불공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정의로운 사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 ①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
> ② 제도의 불공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문제
>
> ③ 사회정의의 의미(절차적 정의)
>
> ④ 정의로운 사회 제도

● 교육과정의 분석

이 단원은 개인 윤리와 대비되는 내용으로서 '사회 윤리' 차원에서 설정된 것이다. 한 개인의 비윤리적 행위는 개인의 도덕성 부족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사회의 제도나 구조, 시설의 미비에서 비롯되기도 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평화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구조적 비합리성, 즉 구조적 폭력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삶의 비합리성이 단순히 물리적 폭력이나 생태학적 폭력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여러 형태의 폭력 내지는 부조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내용 분석 3

● 교육 과정 영역

현대 생활과 윤리 "Ⅳ. 사회 정의와 직업윤리"

● 교육 과정 내용

> ㈏ 사회 부패 현상과 윤리
>
> 정의론의 관점에서 사회 부패의 현상과 원인을 이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적 자세와 태도를 가진다. 이를 위해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 의지를 확립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
> ① 사회부패의 현상과 원인
>
> ② 사회 부패 방지와 응보적 정의
>
> ③ 사회 부패 현상의 개선과 정의론의 역할
>
> ④ 청렴의 의미와 반부패·청렴의지의 확립

● 교육과정의 분석

원칙적으로 본 단원은 청렴의 의미와 그에 대한 실천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서 설정된 단원이나, 윤리 과목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의론'적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정의론적 관점에서 부패의 원인과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단원으로 개인적 차원의 문제인 '청렴 의지'와 사회 구조적 차원의 부정부패를 동시에 다룬다는 점에서 개인 윤리적 차원과 사회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동시에 거론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의 평화로운 삶의 문제와 사회 질서로서의 평화 문제가 동시에 언급될 수 있는 내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모듈화 예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의 여러 과목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모듈(module)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모듈화는 통일교육을 '평화 지향적'으로 꾸미기 위한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모듈화의 모습은 구체적인 교과서의 내용 분석과 각 교과에서 반영 가능한 교과서 서술 모습 및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원칙적으로 먼저 평화 지향적 교육 과정의 틀을 설정하고, 교과서의 내용이 그러한 교육 과정의 어느 영역에 속하며 무엇을 고양하기 위한 것이냐(통일 의식인가 또는 통일 문제의 해결 능력인가 등 다양한 교육 목적의 어느 하나)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교과서 서술의 기본 방향과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방대한 작업 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모든 내용을 포함한 모듈화의 제공을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몇 가지 모델 정도를 제공하려고 한다.

1) 초등학교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모듈화 예시

■ 모듈명 : 평화로운 세상 - 6학년

□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나라 · 민족 ·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다) 평화로운 세상

① 지구촌 시대에 세계 평화가 인류에 끼치는 영향

②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③ 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과 자세

□ 평화 지향적 통일 교육 내용

Ⅰ. 통일 교육의 질적 제고 방안으로서의 평화	2. 덕목으로서의 평화

□ 도덕과의 평화 지향적 통일 교육 관련 단원의 성취목표

▶ 지구촌 시대에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 세계 평화가 인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본다.

□ 모듈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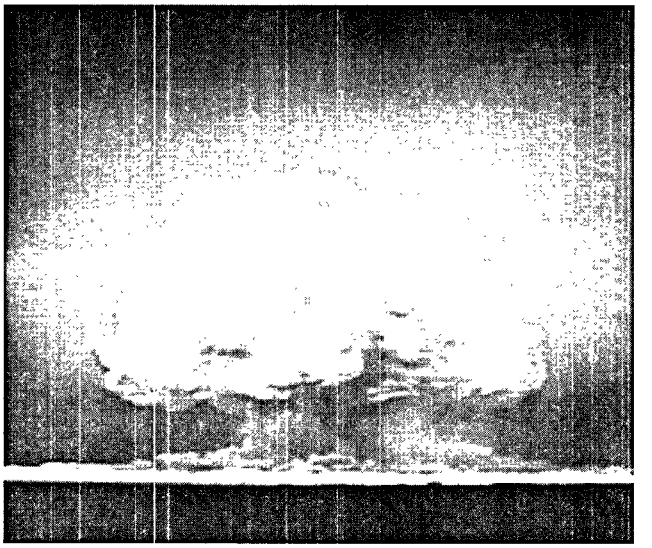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는 과제가 우리의 통일 과정에 주는 의의는 무엇인가?	1.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을까? 2. 평화로운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가? 3.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4. 평화적인 분쟁해결 방법과 이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 민족의 통일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1.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을까?

○ 20세기에 발생한 몇 가지 전쟁에 대해 알아보자.

- 20세기에는 평화를 이룩하려는 노력도 많았지만, 전쟁의 폐해도 그 못지않게 많이 있었다. 한국, 베트남, 러시아, 중국, 체첸, 유고슬라비아, 스리랑카, 콩고 등의 나라에서 참담한 전쟁이 발생하였다.
-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으로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고,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으로 여러 번의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 분쟁은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의 성지가 함께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서로 차지하려는 싸움에서 발생하였다.
- 1994년 르완다에서 일어난 내전으로 인해 집단 학살이 자행되었다. 르완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후투족 민병대가 투치족 80여 만 명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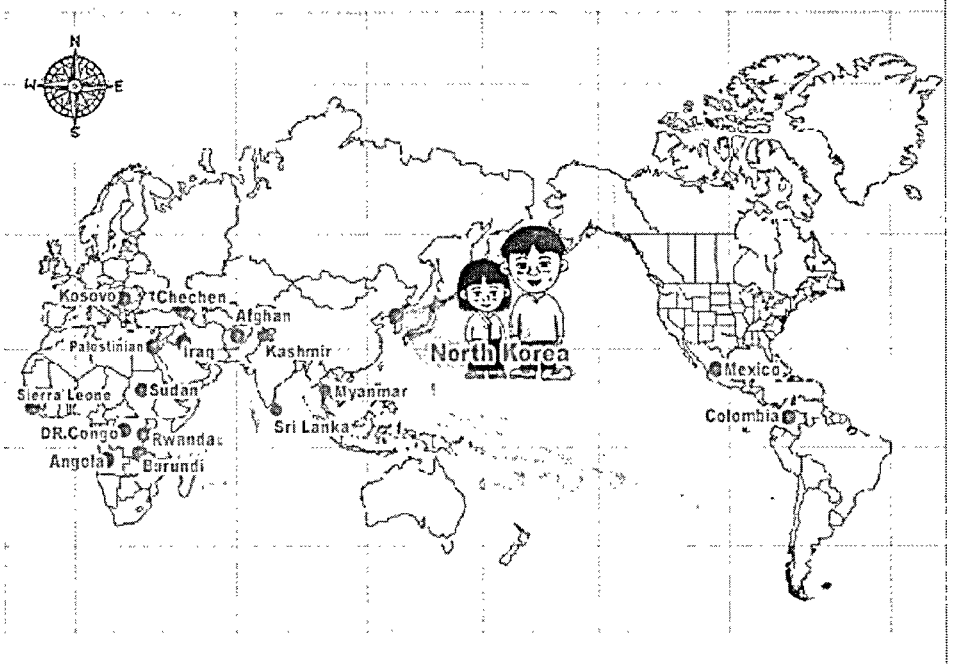
※ 원자폭탄의 위력



○ 현재 분쟁 중인 지역을 찾아봄으로써 지금의 국제사회에도 전쟁이 수없이 일어남을 인식시킨다.

- 세계 지도에 현재 분쟁 중인 지역을 표시하고 왜 그런 분쟁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찾아본다.
- 각각의 분쟁 지역에 전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전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다.

※ 현재 분쟁 중인 지역을 찾아봅시다.



※ 분쟁 중인 지역의 원인을 찾아봅시다.

VS	
VS	
VS	
VS	

2. 평화로운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가?

○ 국제적인 분쟁 사례 중 평화적으로 해결된 경우를 찾아 살펴보자.

- 국제 사회에서 분쟁의 불씨가 되었던 것이 꼭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님을 인식시킨다. 예를 들어 인구는 점점 늘어가고 물의 사용은 많아지는데, 물의 양이 정해져있기에 필요한 물 자원을 얻기 위해 국가 간의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 구체적인 예 : 갠지스 강을 둘러싼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분쟁, 요르단 강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분쟁
- 나일 강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과 이집트의 물 분쟁은 평화롭게 해결되었음을 설명한다.

※ 나일 강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

나일 강은 이집트 문명의 발생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통과하는 국제적인 강이다. 부룬디에서 발원하는 백나일은 에티오피아에서 흘러오는 청나일과 합류하여 나일 강이 되고 이는 이집트로 흘러가게 된다. 그런데 이집트는 자국의 인구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 1929년 체결된 조약에 따라 나일 강 전체수자원의 95%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변국가와 물 자원을 함께 사용하기를 거절해왔다.

1959년 이집트의 아스완댐 건설을 둘러싸고 이집트와 수단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고 1959년 두 나라가 "나일 강 이용협약"으로 알려진 협정을 맺으면서 나일 강은 이집트와 수단을 중심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이는 에티오피아를 배제시킨 협정이었고, 에티오피아는 자국의 식량사정 개선을 위해 자국에서 흐르는 청나일의 물을 더 많이 사용하기를 원했다. 결국 1999년부터 유네스코의 중재로 관련 국가들이 모여 '나일 강 유역 구상(NBI)'이 발족하였다.

3.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생애를 살피며,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삶의 가치를 느껴본다.

- 사상사적으로는 '비폭력 사상'을 강조한 위인들을 찾아본다. 구체적으로 헨리 데이빗 소로우, 간디, 톨스토이, 마르틴 루터 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의 저술과 이들에 대한 영상을 제시하며 수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노벨평화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신이 만약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사람을 선정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을 무슨 기준에 의해 뽑고 싶은지 자유롭게 발표시킨다.

※ 노벨평화상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여 큰 돈을 벌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가 광산이나 산업 현장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무기로도 사용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죽거나 다치게 되었다. 항상 이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노벨은 1896년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여 노벨상을 만들었고, 국적에 상관없이 인류를 위해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수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벨 평화상은 세계 평화의 정착과 확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4. 평화적인 분쟁해결 방법과 이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의 통일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 평화를 중시하는 태도가 우리의 통일에 중요한 이유를 찾아본다.

- 우리나라는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전쟁도 많아 900번이 넘는 침략을 당했고 그로 인한 고통이 많았다. 또한 20세기에는 일제의 강점기를 겪고 민족 간의 전쟁을 경험하게 되어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운 삶을 갈망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반도는 완전한 평화 상태가 아니다. 남과 북은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휴전 중일뿐이다. 이에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게 되었다.

○ 남과 북 사이 비무장지대에 '평화 마을'을 만드는 모둠 활동을 할 수 있다.

- 비무장 지대에 평화의 마을을 건립할 것임을 알린다. 교사는 미리 준비한 비무장 지대 그림을 보여주고 이를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평화의 마을로 바꿀 것임을 아이들에게 설명한다. 모둠별로 이 평화의 마을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지 상의하여 그림을 그려보게 한다.
- 구체적인 예 : 놀이동산, 학교, 자연 공원, 병원, 통일 기념관 등
- 모둠별로 만든 것을 발표하며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마을 그림을 장식하게 한다.
- 모둠별로 발표를 마치고 모든 그림을 장식한 후, 전체적인 평화의 마을 모습을 보며 감상을 나눈다.

2) 중등학교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모듈화 예시

■ 모듈명 : 전쟁과 평화 - 12학년

□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

<평화와 윤리>

(가) 전쟁과 평화

① 국제 관계의 윤리성

② 문명의 충돌과 갈등 해결의 방안

③ 평화 가치의 중요성(개인의 평화에서 국제 관계의 평화까지)

□ 평화 지향적 통일 교육 내용

Ⅰ. 통일 교육의 질적 제고 방안으로서의 평화	4. 평화 문제 해결력 증진

□ 도덕과의 평화 지향적 통일 교육 관련 단원의 성취목표

▶ 국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 관계의 윤리성 회복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 현재의 분쟁 지역, 세계 각국이 평화를 위해 펼치고 있는 활동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국제 관계에서 윤리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조사·분석한다.

□ 모듈의 전개

▷개인의 평화에서 국제 평화의 문제를 우리의 통일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1. 내 개인의 문제가 사회, 나라, 지구의 문제로 연결된 사례가 있는가? 2. 국제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접근과 전쟁과 같은 무력을 통한 문제 해결 접근의 사례와 그 실익(實益)은 무엇인가? 3. 세계 각국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4.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가 국제적인 평화 실현의 일부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 도덕과에서의 토론/논의를 통한 주제 탐구과정

1단계 : 학습 문제 파악

2단계 : 토론/논의를 위한 자료 수집과 읽기

3단계 : 토론(전체/소집단별 과정)

i) 문제의 확인

ii) 문제의 원인 분석/문제 해결의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iii) 제시된 의견이나 주장의 타당성 검토

iv) 합당한 결론이나 실천 방안 도출

4단계 : 개인별로 지지하는 입장/가치 확인(공언)

1. 내 개인의 문제가 사회, 나라, 전 지구의 문제로 연결된 사례가 있는가?

○ 세계적인 문제가 나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찾아보자.

• 1973년의 석유 파동(oil shock)은 각 국가의 재정 문제를 가져오고, 국민 개

개인에 대해서 확대일로에 있던 복지비용을 줄이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 또한, 9.11 미국 무역 센터에 대한 테러는 각 국의 보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그 결과 일부 국가의 국민들은 미국 등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제한적 입국만이 허용되는 사례가 있었다.

※ 석유 파동(oil shock)은 무엇인가요?

1973년 10월 6일부터 시작된 중동전쟁(아랍이스라엘분쟁)이 10월 17일부터 석유전쟁으로 비화하여 세계의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1971년부터 OPEC(석유수출국기구)는 석유이권(石油利權) 수입의 인상을 추진해 오던 중, 1973년 10월 16일 페르시아만(灣)의 6개 석유수출국들은 OPEC 회의에서 원유 고시가격을 17% 인상하여 종전의 원유 1배럴당 3달러 2센트에서 3달러 65센트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17일 이스라엘이 아랍 점령지역에서부터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매월 원유생산을 전월에 비해 5%씩 감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중동전쟁에서 석유를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결정으로 인하여 서방세계에서는 '에너지 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는데, OPEC의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은 다시 1974년 1월 1일을 기해 배럴당 5.119달러에서 11.651달러로 인상하였다. 석유에 기간산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서방세계의 경제는 석유부족으로 인한 제품생산의 부족과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세계적인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만연시켰다.

이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 및 후진국을 막론하고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왔다. 외교면에서는 서방세계로 하여금 이제까지의 친(親)이스라엘에서 친아랍 중동정책으로 기울게 하였으며, 한편 OPEC는 국제석유자본(Oil Major)이 독점하고 있던 원유가격의 결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자원민족주의(resource nationalism)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네이버 백과 사전-

※ 9.11 테러

2001년 9월11일 오전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펜타곤), 의사당을 비롯한 주요 관청 건물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WTC)빌딩 등이 항공기와 폭탄을 동원한 테러공격을 동시다발적으로 받은 사건.

오후 4시경 CNN방송은 '오사마 빈 라덴'이 배후세력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과 그가 이끄는 테러조직 '알 카에다'를 테러의 주범으로 발표했다.

이후 9.11테러에 대한 미국의 아프간 보복 공격으로 오사마 빈 라덴을 비호하고 있던 탈레반 정권과 알 카에다 조직이 거의 붕괴되었으며, 빈 라덴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테러직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을 세계를 문명세력과 테러세력으로 분리하며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 개인의 어떠한 행위나 사례가 전 국민 또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제시하여 개인과 국가, 그리고 세계 또는 지구적인 상황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시킨다.

- 윌슨(Wilson, W)의 '민족자결주의' 주창이 전 세계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을 불러 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과거 학교에서 실시되었던 체력장의 여러 종목 중에서 1000m 달리기 도중 '사망한 학생'이 발생함으로써 그 종목이 폐지되었다.

※ 윌슨(W. Willson)의 민족자결주의

민족자결주의 또는 민족 자결의 원리는 프랑스 혁명에서 비로소 확립되었다. 18세기 합리주의에 의해서 세련된 자아에 대한 자각은 프랑스 혁명에서는 마침내 '민족아'에 대한 자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자아의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주의는 민족아의 확립을 지향하는 집단적 개인주의로서의 민족주의에까지 전개되어 간 것이다.

1차 대전을 전후하여 민족주의 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데, 러시아 혁명은 민족 자결의 원칙이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난 것으로 간주되고, 윌슨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는 식민지 민족의식 발흥에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다. 다만, 이러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동유럽과 발칸 반도 등 유럽 약소민족의 독립에 적용되었을 뿐, 아시아, 아프리카의 해방을 약속한 것은 아니었다.

-이극찬, 정치학, 1987; 국민윤리학회, 사상과 윤리, 1994-

○ 사소한 하나의 행위가 여러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대단한 파장을 일으키는 행위가 되는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의 사례를 학생들에게 인식시킬 필요도 있다.

- 사소한 어떠한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는 인과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행위와 세상의 모든 행위가 직접적으로만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요소들이 결합하여 여러 가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인식 과정이기 때문이다.

※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

혼돈 상태에 대하여 통찰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된 인과 구조의 설명 내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변두리에서 나비가 펄럭이며 날고 이것이 주변의 공기를 흔든다. 이 미미한 공기의 진동은 주위로 전파되면서 증폭되어서 뉴욕에서는 폭풍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사소한 원인- 결과 계열이 점점 증폭되어서 마침내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인과적 구조가 바로 나비효과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선을 보러가는 날 아침, 구두끈이 풀어져서 몇 초 늦게 집을 출발하고, 그래서 정확히 출발하는 버스를 놓치고, 그래서 선 본 장소에 늦게 도착하고, 시간관념에 가장 민감한 여성에게 시간관념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면서, 맘에 드는 그 여자와의 연을 맺지 못하는 사례 같은 것이다.

- 신일철 외, 『고등학교 철학』,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 -

2. 국제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접근과 전쟁과 같은 무력을 통한 문제 해결 접근의 사례와 그 실익(實益)은 무엇인가?

○ 국제 문제에 대한 이상주의적 접근(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과 현실주의적 접근(무력에 의한 문제 해결)의 사례를 구체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 현실주의적 접근의 실태를 파악하게 한다.

- 현실적으로 다양한 분쟁국이 존재하고 있고, 분쟁의 사태는 우리의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아프가니스탄 분쟁 사태와 같은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보다는 태평양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원 확보 전쟁이나 각국이 영토 확장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사례 같은 것을 비디오 등의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

이다(그러한 사례가 효과가 큰 이유는 겉으로는 평온한 듯이 보이나, 보이지 않은 무력 충돌과 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예: 일본의 오끼노 다이또지마 섬의 사례

2) 이상주의적 접근의 실태를 파악하게 하게 한다.

- 양차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인류는 대화와 타협의 통로를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그 대표적인 것이 '국제 연맹'과 '국제 연합(UN)'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 이상주의적 입장에서 성공한 사례를 남과 북의 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으면 더욱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일 것이다. 6자 회담의 사례나 클린턴 시절의 페리 특사 파견 사례 등이 있을 수 있다(언론 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6자 회담 보다는 북한의 핵문제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었던 북한과 미국이 특사 파견을 통하여 대화로써 해결한 것이 좀더 극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 클린턴 시절의 페리 특사 사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북은 광명성이라고 함) 발사 사건 이후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가 더욱 냉각되며 북한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해 진 미국은 조지 부시 행정부 때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암 페리를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단장으로 임명하고 북한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페리는 이례적으로 평양까지 방문하고 보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평가하게 되었다. 페리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붕괴는 미국의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으며 북한을 있는 그대로 다루어야 하고 (We must treat North Korea as it is, not as we want it to.), 북한과의 평화협정 후 단계적 국교 정상화를 권고하였다. 이후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고, 조명록 차수가 워싱톤을 방문,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과 면담 하는 등 북미 관계는 정상화로 가는 듯 했다.

○ 이상주의적 입장에서의 문제 해결과 현실주의적 입장에서의 문제 해결이 주는 실익을 비교 하여 분석해 보자. 일반적으로 이상주의적 접근이 유익한 것을 알면서 현실적인 무력 등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1) 이상주의적 입장과 현실주의적 입장의 문제 해결이 주는 실익은?

- 이상주의적 접근은 시간이 많이 들지만, 현실주의적 입장은 시간 비용을 줄이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이상주의 입장은 물리적 비용을 치르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주의 입장은 상당한 인적, 물적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다.
- 힘의 우위에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현실주의 입장을 택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주변국들에 의해 무역 제재나 인적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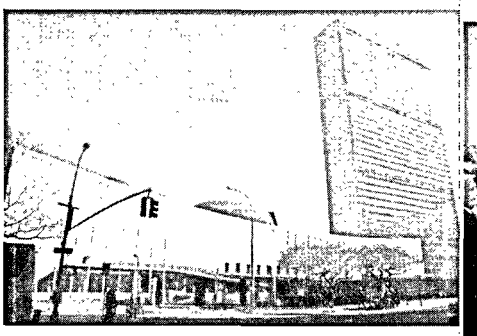
2) 현실적으로 무력 사용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 일시적인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국의 실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의 표출이다.
- 어떠한 경우는 대화와 타협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 북 예멘의 통일 사례)
- 약소국이 오히려 동정 여론을 배경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3. 세계 각국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인류의 평화를 위한 대표적인 협의체가 유엔(UN)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1차 대전 후에 '국제 연맹'의 탄생이 실패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유엔 본부 건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인터뷰

- 국제 연맹과 국제 연합의 성격 차이를 비교해 보자.

○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은 국가를 단위로 한 노력들이 있는가 하면, 단체나 개인들의 차원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사례들을 조사 발표 하도록 한다.

- 그린피스(Green peace)의 활동 사례
- 테레사 수녀의 사례

4.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국제적인 평화 실현의 일부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 앞서 살펴 본 개인의 행위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역으로 세계의 어떠한 상황이 개인에게 끼친 영향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전제에서 남과 북의 대립 상태 또는 적으로서 분단된 상태에서 발생한 평화 갈등 상황에 대해서 사례를 나열하고 그것을 간단히 설명한다.

- 6.25 전쟁 중에 세계 각국이 전쟁의 상흔에 휩싸였던 사례가 있다.
- 89년 북한 핵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 등 국제 사회가 전쟁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있었다.

○ 동북아 평화 공존 정책을 통하여 우리의 통일 문제가 바로 세계 평화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음을 학생들에게 깨닫게 한다.

- 우리의 통일은 주변국들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대립 구도가 협력 중심의 모습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Ⅵ.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1. 학교 교육 과정과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프로그램

■ 자료명: '시금치 밭' 교수-학습 프로그램

<table>
<tr><td>평화교육의 분류
(평화 교육 영역)</td><td colspan="2">평화의 가치와 태도
(개인적 문제로서 평화교육)</td><td>관련 단원
(대, 중, 소단원)</td><td colspan="2">도덕 5학년,
(2) -(다) -②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갈등의 해결과 그렇지 않은 경우</td></tr>
<tr><td>핵심 가치</td><td>비폭력 존중</td><td>대상</td><td>초등 고학년</td><td>통일 교육 단계</td><td>통일 준비 교육</td></tr>
<tr><td>평화 교수 기법</td><td colspan="2">조정-매체 활용법</td><td>수업 모형 및 시수 계획</td><td colspan="2">1.시청각 매체 활용 수업모형
2. 시간: 1시간</td></tr>
<tr><td>학습 목표</td><td colspan="5">1.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td></tr>
</table>

1. 교수학습 방법

평화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고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며, 평화적인 갈등 해결의 좋은 점을 이해한다. 그러고 난 뒤 우리국가의 가장 큰 갈등인 남과 북의 분단문제를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호천사가 되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2. 활동 과정

▷ 도입

- 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것임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평화로운 갈등해결 방법에 대해 배운다고 소개한다.

▷ 전개

- KBS TV 동화 행복한 세상 "시금치 밭"(컨텐츠1)을 시청한다.
- 학습지1을 풀어보며 평화로운 갈등해결이 효과적임을 인식시킨다.
-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당면한 가장 큰 갈등요소가 남과 북의 분단 상황임을 알려준다.
- 수호천사 임명장을 만들면서, 남과 북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한다.(예시1)
- 수호천사 임명식을 하면서 평화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한다.

▷ 정리

- 이번 시간에 활동을 하면서 느끼거나 생각한 것을 발표시킨다.

3. 유의점

- 수호천사 임명식에서 모든 학생이 돌아가며 공언하기를 한다면 의지력을 고양시키는 데는 효과적이나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 추후에 수호천사로서 본인이 다짐한 내용을 실천하였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4. 컨텐츠1 (KBS TV 동화 행복한 세상 2002. 4. 5 방영)

시금치 밭
인심이 사나운 부자가 사는 집 옆에는 조그만 공터가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공터에 쓰레기를 버렸고, 그 곳은 악취로 뒤덮였다. 마침내 부자는 돈을 들여 쓰레기를 치우고, 경고장을 붙이고, 철조망을 치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동네 사람들과 신경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걸 본 부자의 아버지는 공터를 갈고 씨앗을 뿌려 시금치를 키운다. 그러자 더 이상 동네 사람들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충고를 들은 부자는 동네 사람들과의 인정의 꽃밭을 만들었다.

4. 학습지1

시금치 밭

1.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자 부자는 어떻게 했나요?

2. 아들의 불평을 들은 아버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나요?

3. 아들이 실패하고 아버지가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이외에도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요?

5. 수호천사 임명장(예시 1)

수호천사 임명장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위 사람은 우리나라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지키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실천하는 수호천사로 임명합니다.

- 수호천사의 다짐 -

1. _____

2. _____

년 월 일

수호천사 : (서명)

■ 자료명: '보통 사람' 교수-학습 프로그램

<table>
<tr><td>평화교육의 분류
(평화 교육 영역)</td><td colspan="2">평화의 가치와 태도
(개인적 문제로서 평화교육)</td><td>관련 단원
(대, 중, 소단원)</td><td colspan="3">도덕 9학년
(3)-(가)-③문화적 차이로 인한 편견이나 오해</td></tr>
<tr><td>핵심 가치</td><td colspan="2">타인에 대한 존중</td><td>대상</td><td>고등학교</td><td>통일 교육 단계</td><td>과정으로서의 통일 교육</td></tr>
<tr><td colspan="2">평화 교수 기법</td><td colspan="2">이해-매체 활용법</td><td>수업 모형 및 시수 계획</td><td colspan="2">1.시청각 매체 활용 수업모형
2. 시간: 1시간</td></tr>
<tr><td colspan="2">학습 목표</td><td colspan="5">1. 스스로가 갖고 있는 새터민에 대한 편견을 깨닫고 반성한다.</td></tr>
</table>

1. 교수학습 방법

남북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도 많은 새터민들이 살고 있음에 대해 인식시키기 위한 컨텐츠와 프로그램이다. 새터민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감상한 후에 학생들과 느낌을 나눈다. 또, 주인공의 처지에 공감하기 위한 활동으로 주인공에게 문자 메시지를 쓰게 된다면 보다 주인공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어 편견을 없애려고 하는 자세를 지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활동 과정

▷ 도입

- 많은 새터민들이 사회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음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 전개

- EBS지식 채널 동영상(컨텐츠1)을 시청한다.
- 학습지 1을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편견을 깨닫고, 반성한다.
-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동영상의 주인공에게 문자메시지로 전한다.

▷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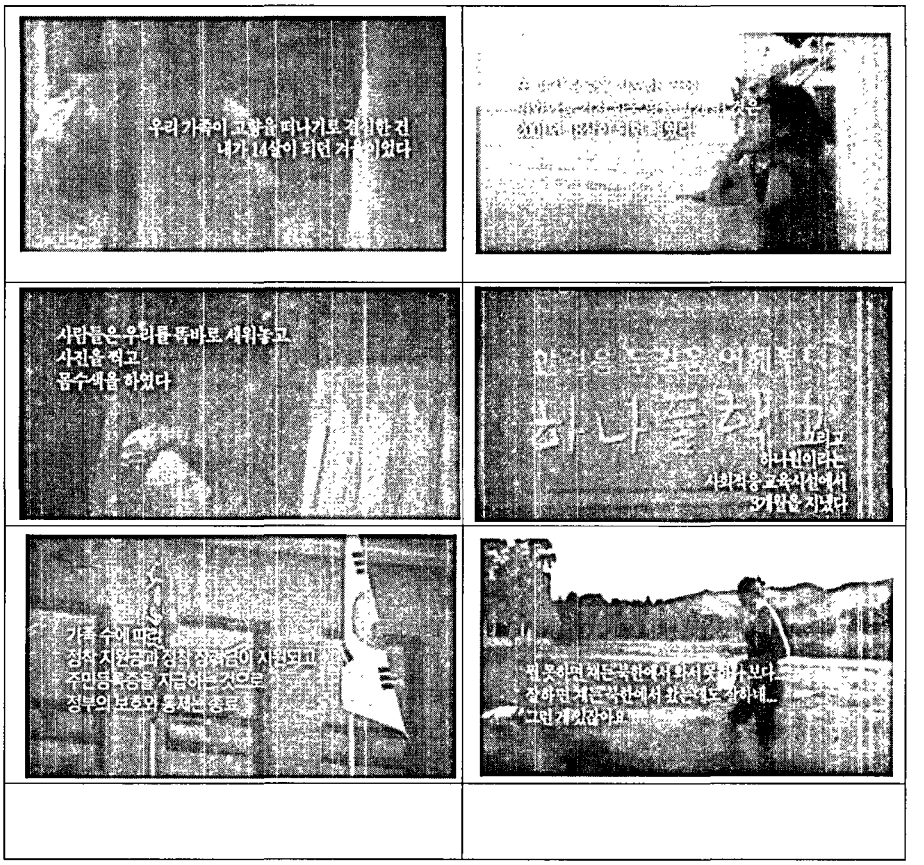
- 주인공에게 쓴 문자 메시지를 발표하고 평가한다.

3. 유의점

- 새터민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일깨우도록 지도한다.
- 통일이 된 후에 만나게 될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함을 덧붙인다.

4. 영상자료

EBS 지식채널e, 보통사람(http://www.ebs.co.kr)



참고영상의 글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까요?" "97년도에 14살 되던 해에 중국으로 넘어간 계기는 제 고향이 북한이어서...어찌 보면 살기 위해서 중국 땅을 간 것이고... 그 땅에서 4,5년이란 기간을 너무 힘들게 지냈어요."

우리 가족이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한 건 내가 14살이 되던 겨울이었다. 칼바람이 부는 두만강을 건너 도착한 곳은 중국. "'산둥성'이라는 곳에서 그때 처음 한국에 가는 것을 실패하고 갈매기를 보고, 내가 저 갈매기가 되어 한국으로 날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갈매기만 보면 눈물이 촉촉해지고..."

또 다시 탈출을 시도한 끝에 미얀마를 거쳐 한국 땅을 밟게 된 것은 2001년 18살이 되던 해였다. 사람들은 우리를 똑바로 세워놓고 사진을 찍고 몸수색을 하였다. 그리고 하나원이라는 사회적응 교육시설에서 3개월을 지냈다. 가족 수에 따라 정착 지원금과 정착 장려금이 지원되고 주민등록증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의 보호와 통제는 종료.

어느 날, 식단에서 밥을 먹는데 탈북한 사람들이 온다는 TV뉴스가 나왔다. 그러나 옆 자리에 있던 아저씨가 언성을 높였다. "탈북자들은 왜 온대? 여기도 굶는 사람 많은데... 쟤네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살잖아." 한국 사람들은 나를 몰랐고 나도 한국을 몰랐다.

"중국에서 바라본 내 고향을 봤는데.. 되게 가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가보고 싶어요. 그곳에.. 제 친구들에게도 그런 말 하거든요. 통일되면 꼭 가자고.."

2007년 현재, 북한에서 한국으로 1만 여명 탈북. 그 중 10.5%가 청소년(1,047명) 109영의 청소년들이 가족 없이 홀로 탈출.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요? 부모밖에 없죠." "지금 부모님 어디 계시는데요?" "하늘나라요." (신영옥)

"뭘 못하면 쟤는 북한에서 와서 못하나 보다... 잘하면 쟤는 북한에서 왔는데도 잘하네... 그런 게 있잖아요. 쟤네는 머리 뒤에 뿔 달리지 않았나.. 하는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처럼 봐주는 게 제일 좋죠." 이명학(탈북학교 학생)

"귀순용사, 탈북자, 새터민.. 이런 말 대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하고 발 맞춰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게 내 꿈이에요.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2004년 입국, 정동민씨(가명)

취학 대상 탈북 청소년 987명 중 재학생은 43.7%에 불과. 중학생 14.1%, 고등학생 15.2%가 중도에 학업을 포기. 학교에서 탈북했다는 것을 숨기는 경우는 48% 탈북했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은 경험은 20%에 달한다.

4. 학습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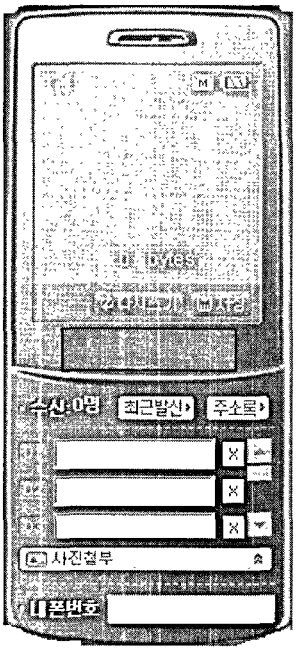
내 안에 있는 편견

1. 새터민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2. 새터민에 대해 갖고 있던 스스로의 편견은 없었나요?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3. 편견은 왜 나쁜가요?

4. 동영상의 주인공에게 자신의 새로운 마음을 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봅시다.



■ 자료명: '미움의 골짜기를 없애요' 교수-학습 프로그램

평화교육의 분류 (평화 교육 영역)	평화의 가치와 태도 (개인적 문제로서 평화교육)	관련 단원 (대, 중, 소단원)	도덕 10학년 (4)-(가)-②용서와 화해

핵심 가치	관용	대상	고등학교	통일 교육 단계	과정으로서의 통일 교육

평화 교수 기법	조정-주제별 접근법	수업 모형 및 시수 계획	1. 이야기/노래를 활용한 수업모형 2. 시간: 2시간

학습 목표	1.용서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2.민족 간에도 용서의 자세가 필요함을 안다.

1. 교수학습 방법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용서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통찰과 타인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함으로써 생기는 긍정적인 결과를 알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그 동안의 남북한 간의 미움을 생각해보고 이를 용서하는 태도를 기른다.

2. 활동 과정

1차시

▷ 도입

-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존재함을 설명한다.
- 이런 분노와 미움의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지나칠 경우 마음에 짐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 전개

- 학습지 1을 하면서 이런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없앨 수 있는 용서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용서로서 다음 차시에 다룰 사회적 차원에서의 용서를 위한 기초가 된다.
- 학습지 2를 하면서 용서와 관련된 개인의 경험담을 성찰하게 한다. 타인을 용서했던 경험이나 타인에게 용서 받았던 경험을 떠올리고, 그 용서가 자신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깨닫게 한다.

▷ 정리

- 용서를 통해 상처받은 개인이 이를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됨을 확인한다.

2차시

▷ 도입

- 전 시간에 배웠던 개인적 차원의 용서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상기시킨다.

▷ 전개

- 학습지 3을 하면서 남북한간 용서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미움 이외에도 사회적 차원 민족적 차원에서의 미움이 존재함을 알고, 이를 용서하려는 자세가 필요함을 인식시킨다.

▷ 정리

- 남북한간의 용서가 민족적 상처를 아물게 하고, 종국에는 평화로운 삶을 가져다 줄 것임을 확인한다.

3. 유의점

- 보충설명으로 용서란 먼저 정의(justice)에 대한 의식을 가진 후에 이를 뛰어넘는 것임을 제시한다.

학습지 1

용 서

다음 글을 차분한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 친구를 만났다.

"자네 오랜만일세. 아무개하고 원수가 되었다던데 이제는 화해를 했겠지?"

"아니, 내가 왜 그 사람과 화해를 해?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는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해. 나는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어. 상처를 입은 것은 나야."

그러자 그 사람은 정면으로 그 친구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자네는 앞으로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네. 자네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 자네가 죄를 지었지만 그 누군가가 용서를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이 아닐까? 그런데 자네가 자네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다면 앞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을 생각은 말게나."

이 말을 듣고 그 친구는 고개를 떨구며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쳤다고 한다.

1. 용서란 무엇일까요?

2. 용서는 왜 필요할까요?

3.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학습지2

용서의 시간

용서와 관련된 경험담(다른 사람에게서 용서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주었던)을 적어봅시다.

1. 무슨 일이었나요?

2.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나요?

3. 용서 후 새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4.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뜻하나요?

학습지 3

미움의 골짜기를 넘어

다음 노래를 차분한 마음으로 들어봅시다.

철망 앞에서

윤도현) 내 맘에 흐르는 시냇물 미움의 골짜기로
물살을 가르는 물고기떼 물위로 차 오르네
김윤아) 냇물은 흐르네 철망을 헤집고
그런 꿈들을 품에 안고 흘려 굽이쳐 가네
김경호) 저 건너 들에 핀 풀꽃들 꽃내음도 향긋해
거기 서 있는 그대 숨소리 들리는 듯도해
김장훈) 이렇게 가까이에 이렇게 나뉘어서
힘 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쳐다만 보네
박기영) 빗방울이 떨어지려나 들어봐 저 소리
아이들이 울고 서 있어 먹구름도 몰려와
다같이) 자 총을 내리고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걷어버려요
자 총을 내려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걷어버려요

1. 남북한 간에 '미움의 골짜기'는 왜 생겼을까요?

2. 이 '미움의 골짜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3. 서로 간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남북한 간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자료명: '평화 통일 윷놀이' 교수-학습 프로그램

평화교육의 분류 (평화 교육 영역)	평화에 관한 지식 · 내용 (개인적 문제로서 평화교육)	관련 단원 (대, 중, 소단원)	6학년 (4)-(다)-③세계평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과 자세

핵심 가치	비폭력 갈등해결	대상	초등학교	통일 교육 단계	통일 준비 교육

평화 교수 기법	접근법	수업 모형 및 시수 계획	1.놀이를 활용한 소집단학습 2. 시간: 1차시

학습 목표	1. 평화로운 통일의 미래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구별할 수 있다.

1. 교수학습 방법

초, 중, 고 학생들의 통일수업에 대한 흥미가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평화통일 윷놀이는 우리의 전통 윷놀이를 활용한 소집단 게임 활동인데, 윷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레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2. 활동 과정

▷ 도입

-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의 모습을 학습자들이 상상하게 한다.

▷ 전개

- 평화로운 통일의 미래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학습지 1을 작성시킨다.
- 그 중에서도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놓여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개

성 공단, 정상회담, 경의선, 화합, 단결)과 부정적인 요소들(언어 차이, 불신, 이념 차이, 핵무기, 통일 비용, 철조망)에 대해 설명한다.

- 특히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합과 단결이라는 가치의 중요성과 불신과 이념 차이(생각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심화에 대해 강조한다.
- 평화통일 윷놀이의 놀이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 전체학급을 5개의 모둠으로 구성한다.
- 미리 만들어 놓은 윷과 말판을 준비한다.
- 5개 모둠을 중심으로 평화통일 윷놀이 활동을 펼친다.
- 가장 먼저 평화로운 통일을 이룬 모둠에게 전체 학급이 박수를 보낸다.

▷ 정리

- 비둘기 그림에 통일과 관련된 단어들(평화 통일, 한민족, 백두산, 개성 공단, 경의선 등)을 이용하여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둠의 다짐을 삼행시 짓기로 표현한다.
- 조별로 한 사람씩 나와서 삼행시 짓기의 결과를 발표한 뒤, 한반도 지도에 삼행시가 적힌 비둘기 그림을 부착한다.

3. 유의점

- 평화로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며, 평화통일 윷놀이를 진행한다.
- 윷놀이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규칙을 숙지시키고 빠르게 활동을 진행한다.
- 평화로운 통일의 과정은 충분한 연구와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을 주지시킨다. 또한 평화통일이 인내와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학생들에게 인식시킨다.

학습지1

평화로운 통일로 나아가는 길

◎ 평화로운 통일의 과정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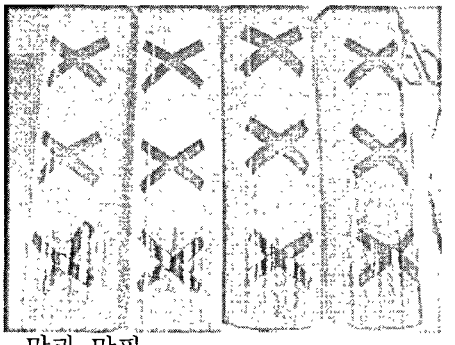
평화로운 통일의 과정에 놓인 어려움	이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안

■ 평화통일 윷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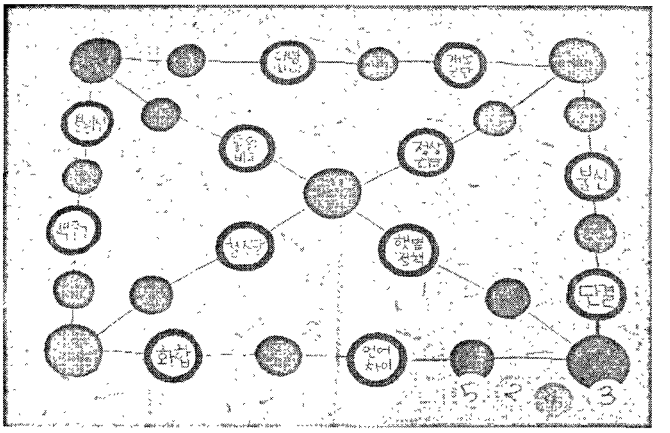
(1) 준비물
- 윷, 말판, 말(5개)
(2) 놀이 순서
- 윷놀이의 방식과 같으며, 대신 말이 말판의 특정 단계(남북통일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에 머무르게 되면 긍정적인 요소는 한 칸 앞으로, 부정적인 요소는 한 칸 뒤로 이동한다.
- 가장 먼저 통일을 이룩한 모둠이 승자가 된다.

■ 평화통일 윷놀이 도구(예시)

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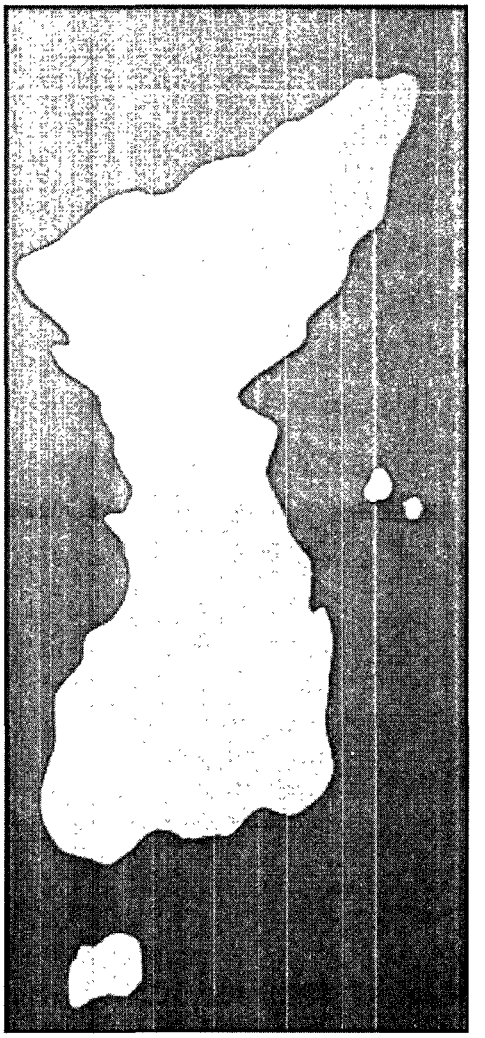
말과 말판



■ 통일 관련 단어 삼행시 짓기 도구(예시)

<비둘기> 그림

<한반도> 그림



■ 자료명: '이방인' 교수-학습 프로그램

평화교육의 분류 (평화교육영역)	평화에 관한 지식·내용 (개인과 사회문제로서 평화교육)	관련 단원 (대, 중, 소단원)	도덕6학년 (3)-(가)-① 도덕8학년 (3)-(다)-③

핵심 가치	관용의 필요성	대상	중학교	통일 교육 단계	과정으로서의 통일교육

평화 교수 기법	이해-매체활용법	수업 모형 및 시수 계획	1. 시청각매체활용 2. 시간: 1차시

학습 목표	1. 공존과 통일을 위해서는 관용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1. 교수학습 방법

이 시간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관용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방인의 입장에서 먼저 느껴보고, 우리사회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평화 증진을 위해 강조하는 보편적인 가치라는 인식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불관용의 증상과 징표들에 대하여 먼저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눈으로 우리 안의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돌려 불관용의 실제를 느껴봄으로써 통일하기 위해서는 공존의 가능성을 여는 관용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활동과정

▷ 도입

- 관용은 다른 사람들의 살 권리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 관용보다 더 구체적인 불관용의 현실 인식을 통하여 공존의 가능성을 여는 관용의 필요성을 배운다고 소개한다.

▷ 전개

- EBS 지식 채널 동영상(이방인)을 함께 시청한다.

- 학습지 1에서 '차이가 차별이 되는'이유와 우리 사회의 차별을 알아보고, 차별이 폭력과 부정의의 근원임을 알 수 있게 한다.
- 학습지 2에서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왜 전 세계가 관용을 필요로 하는지 문제제기를 하고, 구체적인 사례 탐색으로 불관용의 증상과 징표에 대하여 조사 발표하게 한다. (사전에 과제로 부여하여 풍부한 사례발표를 하거나, 즉석에서 신문과 잡지를 갖고서 짝, 모둠별 활동으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 가상 인터뷰를 통해서 남한 사회의 이방인인 새터민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들이 경험하는 불관용의 징표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관용의 자세가 필요함을 깨닫게 한다.

▷ 정리

-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차이, 차별, 관용)을 정리하게 한다.
- 우리 주변에서 관용의 자세가 필요한 사례를 발표하게 한다.

3. 유의점

- 불관용을 인식하는 법을 가르칠 때, 그 지역사회 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설명이나 사례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토론과 탐색을 거친 후에 학생 자신들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불관용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야 구체적 사례를 찾아내어 스스로 '불관용'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불관용의 현상이 여느 사회에도 일어나는 세계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학교나 사회 안에 존재하는 증상들을 해결하는 것이 곧 세계적인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데 기여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학습자료

학습지 1

1. (발표) 여자, 유대인, 영어를 못하는 이방인 거다 러너는 뒤늦은 나이에 왜 여성학을 공부하려고 하였을까?

학습지 2

관용의 필요성

1. (발표) 유엔은 유네스코의 제청에 따라 1995년을 '세계관용의 해'로 정하고 선포했다. 왜 하필이면 유엔은 창설 50주년이 되는 해에 이해하기도 또 성취하기도 어려운 관용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요구했을까?

2. (과제 사례발표) 어떤 사회 안에 존재하는 불관용의 증상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불관용의 징표들이다. 이러한 증상의 구체적인 예를 찾아보자.

언어, 전형화하기, 놀리기, 편견, 희생양 만들기, 차별, 말살, 괴롭히기, 신성모독, 파괴, 약한 자 못살게 굴기, 추방, 배척, 인종차별, 억압

예) 베트남전이 끝난 직후 많은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탈출을 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를 유랑하며 떠돌던 적이 있었다. 소위 보트피플(Boat people)이라 불리던 이들에 대해 각 나라가 보인 태도는 상당히 불관용적이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상과 자국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이들 난민은 국제 미아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구 분	구체적 예

3. (가상 인터뷰) 우리 안의 이방인 새터민이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을지 순위를 매겨 보고, 그들이 경험하는 불관용의 증상

을 가상 인터뷰로 나타내보자.

" 처음에는 동정을 베풀고 협조적이지만 점점 갈수록 냉담해짐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 사귀기가 참 어렵습니다." " 일시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난 다음에는 모르는 척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을 주고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 제일 힘들게 합니다."

" 우리를 대한민국 사람으로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스트레스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새터민의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	순위
남한사회에서 필요한 기초적 상식적 예비지식과 정보 부족	
언어문제로 겪는 곤란함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어 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어려움	
경제 사정으로 인한 어려움	
남한 사람들의 무관심, 냉정함, 경멸로부터 오는 어려움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열등감에 빠지기 쉬운 어려움	

성명 :	남, 여	나이 :	입국 시기:
가족 :	거주 지역 :	직업 :	
(인터뷰)			

5. 컨텐츠

1) '세계 관용의 해' 제정 이유

유엔은 유네스코의 제청에 따라 1995년을 '세계관용의 해'로 정하고 선포했다. 왜 하필이면 유엔은 창설 50주년이 되는 해에 이해하기도 또 성취하기도 어려운 관용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요구했을까?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1945년 10월 24일에 창설된 국제연합은 인류의 비극을 막고 모든 분쟁과 갈등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창설되었다. 그 창설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의 확보와 개인적 인권과 자유의 신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유엔이 이와 같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훌륭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여전히 민족이나 국가 사이의 갈등이 치열해 갈 뿐만 아니라 국가 안에서 개인들의 자유와 인권이 점차 열악한 상황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엔은 다시 한 번 창설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 자기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끼고 있다. 인류의 평화와 번영, 개인들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의 증진이라는 유엔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덕목이 '관용'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관용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인 전략이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할 태도이기 때문이다. 관용의 정신없이는 파괴적인 분쟁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유엔이 창설 50주년이 되는 1995년을 '세계관용의 해'로 정했다는 것은 이 관용의 가치가 현재와 미래의 인류에게 얼마나 절실히 요청되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준 것이다.

2) 불관용 대표적 징표

불관용	구체적 설명
전형화하기	어떤 집단의 전체 구성원을 똑같은 속성으로(종종 부정적인) 특징지어 묘사하는 것
희생양 만들기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회적 문제들을 특정집단의 탓으로 돌리는 것
편견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실제적인 사례나 하나하나의 행위로 판단하기보다는 전형화하고, 부정적으로 일반화하여 판단하는 것
차별	주로 편견에 근거하여 사회적인 혜택이나 사회활동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
추방	난민들이 기대어 살만한 일자리나 은신처와 같은 것을 포함하여, 특별한 장소, 사회적 모임, 직업, 사람들이 활동할 만한 어떤 장소에라도 들어오거나 존재하지 못하도록 공식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권리를 박탈하거나 거부하는 것
배척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특히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
억압	인간적인 권리를 누리는 것을 강제로 막는 것
파괴	감금, 육체적 학대, 삶의 터전으로부터의 강제적인 이주, 무장공격과 살인(인종말살 포함)

3) 유네스코 - 민주주의, 평화, 인권, 관용

"관용은 인권을 구현하고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이다.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형태의 관용은 개성과 정체성을 존중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의 국제인권규범들을 잉태했던 현대의 정치적, 사회적 가치들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관용을 주장함으로써 비로소 그 모습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 집단들 사이의 갈등의 대부분이 정치,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을 결정짓는 자신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불관용에 의해 심화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세계선언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폭력은 불관용의 결과로 나올 수 있고, 민주주의의 기운을 억압하는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은 정치적인 변화를 촉진시키고 정치적인 차이점들을 폭력 없이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평화, 인권, 관용과 필수적으로 맞물리게 되는 것이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역, 1995)

■ 자료명: '검정 풍선' 교수-학습 프로그램

평화교육의 분류 (평화교육영역)	평화의 가치와 태도 (개인과 사회문제로서 평화교육)	관련 단원 (대, 중, 소단원)	도덕9학년 (2)-(가)-②

핵심 가치	편견과 차별	대상	중학교	통일 교육 단계	과정으로서의 통일교육

평화 교수 기법	참여-매체활용법	수업 모형 및 시수 계획	1. 시청각매체활용 2. 시간: 1차시

학습 목표	1. 새터민에 대한 편견을 깨닫고 관용의 태도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1. 교수학습 방법

본 학습을 통해서 북한 사람, 특히 새터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성찰해보고 통일을 위해서는 관용의 가치와 태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종적 차별에 근거한 사회적 편견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관심사를 예를 들어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 내는 부정적 편견의 실제를 찾아보게 한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차별이 여전히 현실을 지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둘러보게 하여 새터민에 대한 차가운 시선과 편견이 그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느껴본다.

2. 활동과정

▷ 도입

- KBS TV 동화 행복한 세상의 "검정 풍선"을 시청하고 느낌을 나눈다.
- 부정적, 적대적 편견이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낸다는 것과 북한사회와 새터민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어떠한 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임을 설명한다.

▷ 전개

- 학습지 1에서 차별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
- 인종적 편견에도 차별하지 않는 아저씨의 '배려'를 느껴보고, 내가 행위자라면 세상 어느 지역 누구에게 희망을 나눠줄 것인지를 말해 본다.
- 탐구과제 발표를 통해서 사회적 편견과 인종적 차별을 극복한 사람에 대하여 발표하게 하고, 한 사람의 개인사를 통해서 차별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느껴본다.
- 학습지 2에서 수영 선수 박태환과 흑인 존스의 이야기를 통해 편견과 차별의 시선이 여전하며, 우리사회는 북한사회와 새터민에게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 게시판 토론을 통하여 알아본다.
- 그러한 편견에는 지역차별과 함께 '전형화하기'를 통한 편견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게 한다.
- (심화학습) 새터민에 대한 편견이 씌워지는 사례 탐색을 통하여 그들이 우려하는 바를 생각해보게 하고, 통일을 위한 우리사회의 통합능력에 대한 관심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리

- 차이를 우열로 차별하게 만드는 편견의 뜻과 예를 말해보게 한다.
- 활동을 하면서 다른 생각, 느낌,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발표하게 한다.

3. 지도상의 유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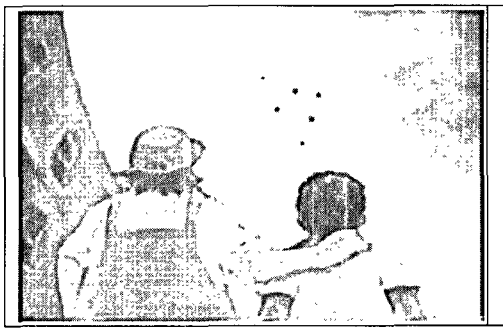
- 차별받는 사람의 고통과 약자의 불행에 대하여 공감할 줄 알고, 민감할 수 있어야 함을 안내해야 한다.
- 차별적 편견으로 대상화되는 집단은 세심한 주의를 두어야 한다.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인간이하의 범주로 밀려나거나 이방인으로 취급될수록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불관용으로 대하기가 쉽다는 것을 눈여겨보게 해야 한다.
- 심화 수준에서는 '브라운 판결' 과 같은 인종차별적 편견 극복 사례들을 통하여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4. 학습자료

학습지 1

편견과 차별

1. (그리기) 눈을 감고서 풍선장수의 아저씨 얼굴을 떠올려 보면 어떤 모습일까 ? 아저씨의 배려하는 웃는 얼굴(눈)을 그려본다면?



2. (발표) 내가 풍선장수라면 어떤 지역 어떤 사람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고 싶은가?

사진은 어느 AP통신 기자가 찍은 '아프가니스탄의 풍선장수'라는 제목의 사진이다. 폐허가 되어버린 저 곳에도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만일 풍선장수라면 어떤 사람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고 싶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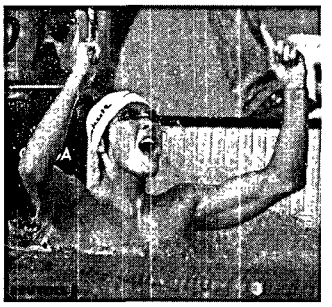
3. (탐구과제) 까만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그 소년이 나중에 UN 사무총장이 되었고, 흑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랄프 번치(Ralph J. Bunche)였다. 이처럼 편견과 차별을 스스로 이겨낸 훌륭한 사람들은 또 누가 있을까?

학습지 2

편견과 차별

1. 다음의 내용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자유형 첫 금메달 비(非) 백인 동양인 박태환과 흑인 존스



지난 3월 박태환이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국내 언론이 모두 박태환에게 환호를 보낼 때, 세계의 뉴스는 또 다른 선수에게 이목이 집중되었다.

미국 수영 대표선수인 컬런 존스는 아기 때부터 수영을 좋아했다. 존스의 어머니 데브라는 "아기 때부터 물을 너무 좋아해서 욕조에서 꺼내 놓으면 울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그는 수영을 할 때마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넌 왜 농구나 미식축구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들어야 했다. 존스가 흑인이기 때문이다. 그 날 박태환의 자유형 400m 결선 바로 뒤에 치러진 남자 400m 계영에서 흑인인 존스는 미국 대표로 출전하여 당당하게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비록 계영이지만 흑인이 자유형에서 금메달 딴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수영은, 특히 자유형은 '백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존스가 수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도 "수영은 백인(white man)을 위한 스포츠"였다. 그런 점에서 박태환의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은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단지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자유형 금메달을 딴 것을 넘어서 수십 년 동안 내려온 스포츠계의 편견을 통쾌하게 날린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출처 : 00신문, 2007년 3월 27일 보도)

1) 지금까지 흑인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빛을 내지 못하는 스포츠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왜 그런 운동들은 백인들의 잔치였을까?

2) 흑인 수영선수들이 들었던 대표적인 편견은 "흑인들은 부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어떤 편견과 차별의 시선에 시달려야 했을까?

3) 지금까지 수영은 왜 백인들의 잔치였을까를 생각해보면서 인종차별적 편견을 사회적 측면에서 비판해본다면?

3. 적대적으로 대립해 온 남과 북은 서로가 부정적인 편견을 길러왔다. 우리사회가 북한사회와 새터민에게 드러내는 대표적인 편견에 대하여 알아보자.

1) (게시판 토론) 북한사회와 새터민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은?

북한 사회(주민)	새터민

2) 우리 학급에도 새터민 청소년이 있다면, 우리에게 또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을까?

새터민 청소년이 한국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탈북자, 북쪽에서 온 아이라는 수식어가 없어지고 탈북자와 한국인이라는 구분이 없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북쪽 친구들이 학교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상황은, 자신들이 실수를 하면 남한 친구들은 '북쪽에서 왔으니까 그렇지'라는 반응을 보이고, 반대로 노래를 잘 했더니 '북쪽 애들은 노래도 잘하네' 라는 반응이랍니다. 북쪽사람이 아닌, 있는 그대로 평가해주고 한국인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들의 바램입니다.

■(심화학습) 다음은 신문보도의 일부이다.

최근 10·4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지만 숨겨진 그늘에서는 새터민들의 범죄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새터민 정착이 1만 명을 넘어서면서 단순히 범죄 건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다. 과거 새터민 범죄 유형이 주로 생계형이었다면 요즘에는 폭력 마약 강도 등 강력 범죄로 옮아가는 추세다. 예) 경기지방경찰청은 중국 동포와 위장결혼, 불법입국을 도운 혐의로 새터민 윤모씨를 구속했다. 예) 서울경찰청 마약수사과는 새터민 안모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 새터민에게 어떤 편견이 덧씌워질 수 있을까?

2) 그러한 편견들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5. 컨텐츠

1) 검정풍선

검정풍선

미국 디트로이트 시 작은 마을에서 한 풍선 장수가 동네 한 복판에 기구를 설치해 놓고 풍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단골 고객은 당연히 동네의 꼬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아이들은 노는 데 정신이 팔려 풍선 따위에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풍선장수는 장사 수완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빨간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냈습니다.

"어 풍선이다, 잡아! 잡아!"

그러자 아이들이 그 풍선을 잡으려고 우~ 몰려들었습니다. 하늘로 날아간 풍선은 아이들의 시선을 일시에 모으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풍선을 놓친 아이들이 주위에 몰려와 에워싸자 흥이 난 풍선장수는 파란풍선 하나를 또 날려 보냈습니다. 노란 풍선, 하얀 풍선 차례차례 날아오른 풍선들은 더 넓은 하늘로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와, 하늘나라로 가겠다."

그리고 이내 까만 점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아저씨 풍선주세요, 저도요, 저도요."

풍선은 날개 돋듯이 팔렸습니다. 근처에 있던 아이들이 다 하나씩 풍선을 사가지고 간 뒤, 아까부터 물끄러미 바라보던 흑인 꼬마가 풍선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아저씨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래, 그게 뭐지?"

흑인 꼬마는 알록달록 풍선 옆에 매달린 검정풍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만일 저 검정풍선을 날려 보내면 이것도 다른 풍선처럼 높이 날 수 있나요?"

풍선장수는 곰곰이 생각한 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꽁꽁 묶어 두었던 검정풍선들을 모두 풀었습니다. 끈이 풀린 검정풍선들은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검정풍선이 다른 풍선들과 똑같이 날아올라 점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풍선장수가 소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얘야 풍선이 나르는 것은 색깔이 아니라 그 안에 든 것이란다."

"헤헤헤…."

순간 아이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풍선장수의 지혜가 아이의 두려움까지 모두 날려 보낸 것입니다. 까만 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는 것을 본 그 아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UN 사무총장이 된 랄프 번치였습니다.

- 노만 빈센트 필, 「The Power of Positive Living」(1990) 중에서

2) 최초의 흑인 동계올림픽 금메달과 영화 쿨러닝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경기에 자메이카 팀이 출전했다. 봅슬레이는 구불구불한 얼음코스를 썰매를 타고 쏜살같이 달리는 경기다. 자메이카는 눈과 얼음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열사(熱沙)의 나라다. 게다가 온통 백인 천지인 동계올림픽에 새까만 피부의 선수들이 고물썰매를 끌고 나타났으니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이들은 경기도중 썰매가 부서지는 바람에 28위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스토리는 영화로 제작돼 세계에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바로 '쿨 러닝(Cool Running)'이다.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흑인 파워는 놀랍다. 특히 미국 스포츠는 흑인들의 잔치마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흑인들도 유독 수영 테니스 골프 등에선 빛을 내지 못한다. 올림픽 수영경기에 흑인선수가 미국대표로 나선 것은 2년 전 시드니올림픽이 처음이다. 윌리엄스 자매가 휘젓기 전만 해도 테니스 역시 백인들의 독무대였고 타이거 우즈를 빼면 골프도 마찬가지다. 이유는 돈에 있다. 다른 경기는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배울 수 있지만 수영 테니스 골프는 비용이 많이 들어 상대적으로 가난한 흑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런가 하면 흑백차별을 이유로 드는 사람도 있다. 하긴 흑인은 수영장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던 때도 있었다지 않은가.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백인의 전유물은 역시 동계올림픽이다. 흑인들이 판치는 하계올림픽과 달리 동계올림픽은 철저하게 백인 위주, 선진국 중심으로 치러진다. 4년 전 나가노대회까지 18차례나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동안 흑인 금메달리스트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인조링크가 개발돼 요즘은 더운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겨울스포츠를 할 수 있다지만 가난한 나라들은 지을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또 장비도 엄청나게 비싸 봅슬레이 한 대 값만 해도 4500만원이나 한다. '하계올림픽은 빈자(貧者) 올림픽, 동계올림픽은 부자 올림픽'이란 말은 이래서 나왔다.

그러기에 이번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 흑인여자선수 보네타 플라워스는 신화의 주인공으로 손색이 없다. 그는 육상선수로 한 차례 좌절을 겪은 뒤 동계종목으로 바꿨다고 한다. 더구나 200명이 넘는 미국 선수단 가운데 유일한 흑인선수였다니 그 기쁨이 오죽 클까. 그가 출전한 경기 또한 '쿨 러닝'의 주인공처럼 봅슬레이라는 점도 공교롭다. 이만 하면 '쿨 러닝Ⅱ' 영화 소재로는 안성맞춤이 아닌가.

(최화경, 00일보, 2002년 2월 21일 보도)

3) 브라운 판결

흑인들에게 온전한 평등이 부여되기 전 미국 사회에서는 백인과 흑인을 분리하지만 평등하게 대우한다면 평등한 것이 아닌가? 라는 '분리된 평등'(separate but equal)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1950년대 초 미국은 학교, 병원, 공원, 교통수단 등 공공시설에서 백인과 흑인을 분리하는 것이 당연하던 때였다. **'분리는 하되 평등하게'** 시설물을 이용하게만 한다면 그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던 때였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여서 교육구 내의 모든 학교가 평등한 조건으로 운영되도록 정해져 있다고는 하나, 흑인은 백인과 같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다.

당시 캔자스주 토피카에 린다 브라운이라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살고 있었다. 이 흑인 여자 아이는 자기 집에서 7블록 거리에 있는 가까운 초등학교를 놔두고 위험한 철길까지 건너가며 1마일이나 떨어진 흑인들이 다니는 학교를 걸어 다녀야 했다. 린다의 아버지 올리버 브라운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백인들이 다니던 학교로 옮기려고 시도했으나 교장이 거절한다. 결국 그로 인한 사건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고, 1954년 대법원이 토피카 교육위원회를 누르고 브라운 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3년 만에 마무리 짓게 된다. 아무리 평등한 환경과 시설을 누리게 한다 해도,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평등이며 따라서 '법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처사라는 것이다.

'브라운 판결'은 공교육 부문에만 한정된 것이어서, 학교 이외의 공공장소나 공공시설의 인종분리주의까지 폐지시키지는 못했지만, 인종차별 철폐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기념할 만한 사건이 되었다.

2. 학교 행사 활동과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학교 교육은 교육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다양한 학교 행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교육 과정의 한 방법으로 '재량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정규 과정이 없을 때는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과정을 통한 접근과 더불어 이러한 행사 및 시간들을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행사 활동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적으로 무엇 한 가지를 언급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으나, 특정의 교육 주간을 선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일정하게 계기 교육을 하는 방법과 5분 교육 시간을 적절한 횟수로 활용하는 방법도 권장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5분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자료의 예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 자료명: '평화의 사람' 교수-학습 프로그램

<table>
<tr><td>평화교육의 분류
(평화 교육 영역)</td><td colspan="2">평화에 관한 태도 · 가치
(개인적 문제로서 평화교육)</td><td colspan="2">관련 단원
(대, 중, 소단원)</td><td colspan="2">5분 평화 교육</td></tr>
<tr><td>핵심 가치</td><td colspan="2">비폭력 존중</td><td>대상</td><td>중학교</td><td>통일 교육 단계</td><td>통일 준비 교육</td></tr>
<tr><td colspan="2">평화 교수 기법</td><td colspan="2">이해-주제별 접근법</td><td colspan="2">수업 모형 및 시수 계획</td><td>1.이야기를 이용한 개별학습
2. 시간: 5분</td></tr>
<tr><td colspan="2">학습 목표</td><td colspan="5">1. 평화의 사람이 지녀야 하는 자세를 깨닫는다.
2. 평화의 민족이 지녀야 하는 자세를 깨닫는다.</td></tr>
</table>

1. 교수학습 방법

이 5분 평화 교육 자료는 이해인 수녀의 시인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를 보고, 평화의 사람이 가져야할 마음가짐과 태도는 무엇인지를 각성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둔다. 그런 뒤, 민족적인 차원에 이를 적용해 평화의 민족이 지녀야 할 자세를 유추하고 이를 지니려는 마음을 함양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2. 활동 과정

▷ 도입

- 사람들은 항상 새해를 맞이할 때면, 자신이 그동안 해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결심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 새해 결심과 관련된 학생들의 경험담을 짧게 나눈다.

▷ 전개

- 이해인 수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학습지 1을 제시한다.
- 학습지 1의 시를 읽고 그 중 평화의 사람이 지녀야할 태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 특히, 이해인 수녀의 생각 외에도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다.
- 개인적 차원에서의 평화 이외에도 사회적 차원 민족적 차원에서의 평화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 정리

- 남북한 간 평화로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 민족적 차원의 평화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평화의 사람이 되려는 실천의지를 북돋는다.

3. 유의점

- 시에 종교적인 내용이 부분적으로 담기었지만, 이를 종교적인 차원에서 다루지 말고,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 차원에서 다룬다.

학습지1

평화의 사람, 평화의 민족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중

이해인

저의 삶에 새해라는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이 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넓고 큰 인류애에는 못 미치더라도
제 주변을 따사롭게 하는
조그만 사랑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늘진 곳에 골고루 빛을 보내는 해님처럼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인정을 베푸신 주님처럼
골고루 사랑하는 법을
저도 조금씩 배워 가고 싶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1.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2. 평화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3. 민족적 차원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

참고자료(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원문)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이해인

새해 첫날
제 마음에 펼쳐지는 수평선 위에
첫 태양으로 떠오르시는 주님,
새해라고 하여 새삼 놀랍고
새로운 것을 청하진 않겠습니다.
날마다 지녀왔던 일곱 가지 염원
오늘은 사라지지 않는 무지개 빛깔로
제 마음속에 다시 걸어두겠습니다.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에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써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에 새해라는
또 하나의 문을 열어 주신 주님,
이 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로 보며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넓고 큰 인류애에는 못 미치더라도
제 주변을 따사롭게 하는
조그만 사랑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늘진 곳에 골고루 빛을 보내는 해님처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인정을 베푸신 주님처럼
골고루 사랑하는 법을
저도 조금씩 배워 가고 싶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날이 그날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임종의 순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평소에도 죽음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욕심을 버리는 연습
자기 뜻을 포기하는 연습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오늘은 지상에 충실히 살되
내일은 홀연히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순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비오니 이 모든 것
헛된 꿈이 아닌
참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 자료명: '준비하는 평화' 교수-학습 프로그램

<table>
<tr><td>평화교육의 분류 (평화 교육 영역)</td><td colspan="2">평화에 관한 지식 · 내용 (국가간 문제로서 평화교육)</td><td>관련 단원 (대, 중, 소단원)</td><td colspan="3">5분 평화 교육</td></tr>
<tr><td>핵심 가치</td><td colspan="2">전쟁과 평화</td><td>대상</td><td>중학교</td><td>통일 교육 단계</td><td>과정으로서의 통일 교육</td></tr>
<tr><td colspan="2">평화 교수 기법</td><td colspan="2">이해-매체 활용법</td><td>수업 모형 및 시수 계획</td><td colspan="2">1. 플래시를 활용한 수업모형
2. 시간: 5분</td></tr>
<tr><td colspan="2">학습 목표</td><td colspan="5">1.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안보를 중시하는 태도를 갖는다.</td></tr>
</table>

1. 교수학습 방법

요즘 우리사회에서 평화로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나타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평화와 안보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여기는 생각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평화와 안보를 함께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인지, 평화와 안보 사이에 갈등하는 요소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인식시키기 위해 준비한 컨텐츠와 프로그램이다. 수업의 도입부에서 학생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 플래시"를 감상한 뒤, 안보의 관점에서 동화를 재해석 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학습지를 풀면서 진정한 평화주의자가 되기 위해 안보를 중시하는 자세가 왜 필요한지를 토론한다.

2. 활동 과정

▷ 도입

- "아기 돼지 삼형제" 플래시를 보여주며, 안보의 관점에서 동화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유도한다.
-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한다.

▷ 전개

- 학습지 1의 제시문을 읽게 한다.
- 제시문에 나오는 인물(조레스)과 어려운 용어(레지스탕스 등)를 설명한다.
- 제시문의 질문에 대해 학생들의 토론을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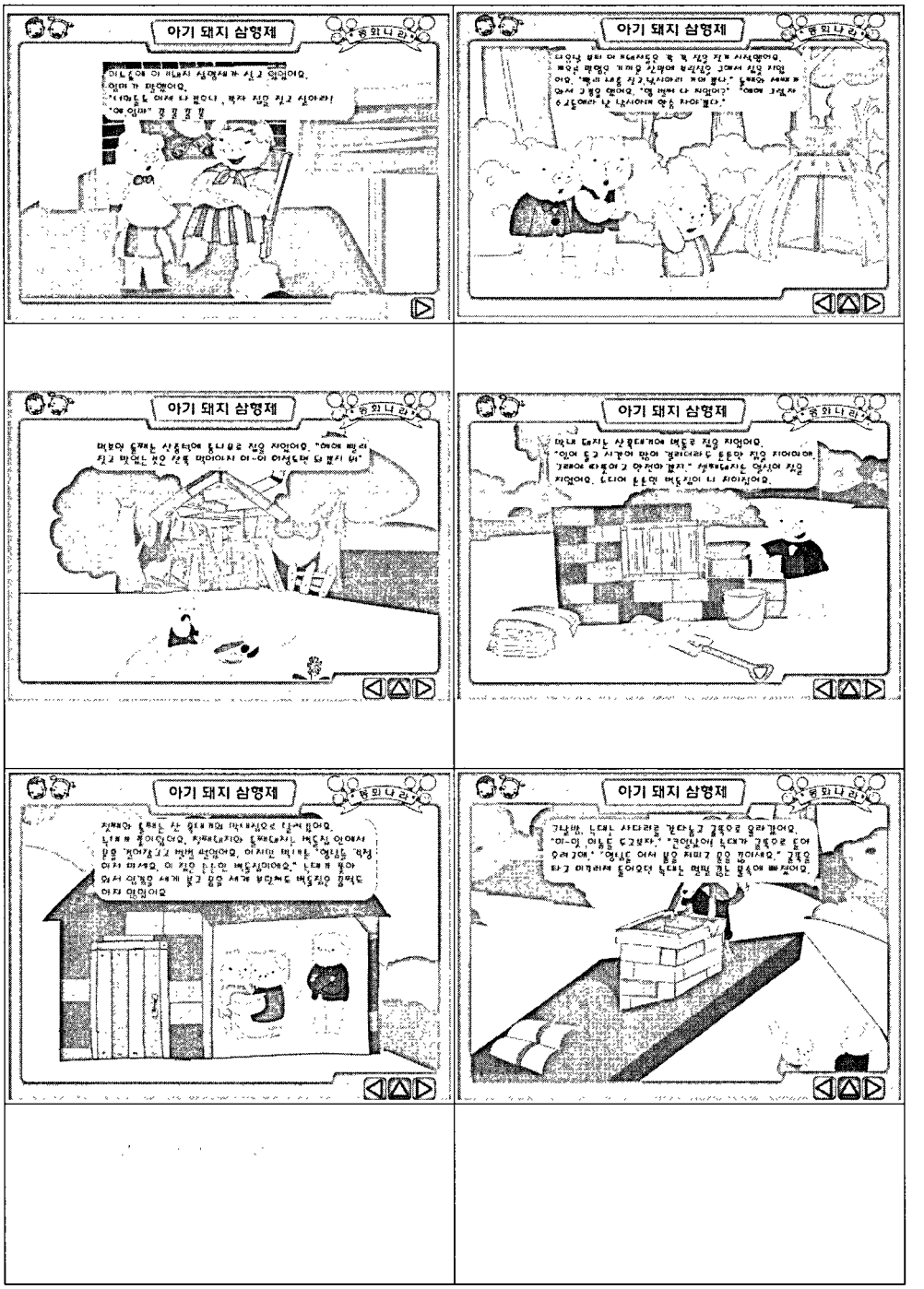
▷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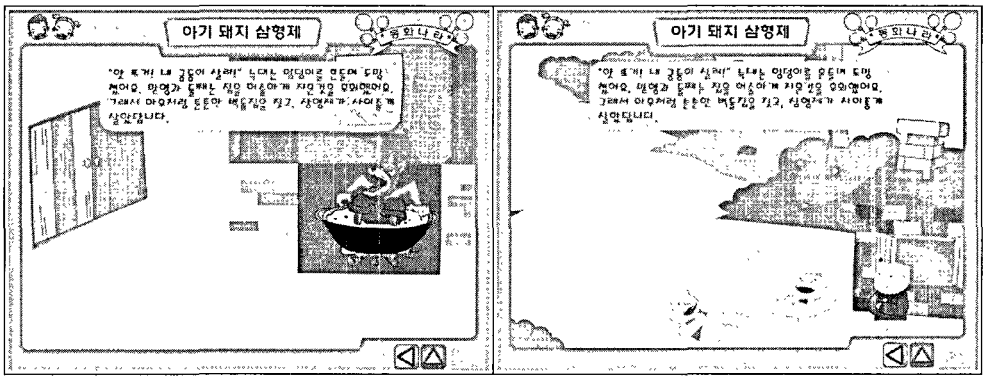
- 통일을 위해 필요한 평화와 안보의 관계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지도한다.

3. 유의점

- 북한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세계평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중요한 우리의 동반자이자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이런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인식의 바탕 위에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충분히 제시한다.

4. 영상자료 (http://www.yuanet.com/yua/yua.htm)





<참고영상의 글>

어느 숲에 아기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너희들도 이제 다 컸으니, 각자 집을 짓고 살아라!"

"예, 엄마"

다음날부터 아기 돼지들은 각각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게으른 맏형은 가까운 산 밑에 보릿짚을 구해서 집을 지었어요.

"빨리 대충 짓고, 낚시하러 가야겠다."

둘째와 셋째가 와서 구경을 했어요.

"형, 벌써 다 지었어?"

"헤헤 그럼, 수고들 해라. 난 낚시하며 한숨 자야겠다."

먹보인 둘째는 산중턱에 통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헤헤 빨리 짓고 맛있는 것을 잔뜩 먹어야지. 야~ 이정도면 되겠지 뭐"

막내 돼지는 산꼭대기에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튼튼한 집을 지어야해. 그래야 따뜻하고 안전하겠지."

셋째 돼지는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드디어 튼튼한 벽돌집이 다 지어졌어요.

어느 날 굶주린 늑대가 맏형을 찾아왔어요.

"꿀꺽 거참 맛있게 생겼는데. 쩝쩝"

첫째 돼지는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았어요.

그러나 보릿짚으로 지은 집은 늑대가 입김을 불자, 훅~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아악 나 좀 살려."

첫째 돼지는 산 중턱의 통나무집으로 달려갔어요.

늑대가 쫓아왔어요.

"으하핫,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아먹게 되었군. 쩝쩝"

이번에는 늑대가 통나무집에 몸을 세게 부딪쳤어요.

그러자 통나무집이 부서졌어요.

"아이구, 돼지 살려."

첫째와 둘째는 산꼭대기의 막내 집으로 달려갔어요. 늑대가 쫓아왔어요.

첫째와 둘째는 벽돌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어요.

하지만 막내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집은 튼튼한 벽돌집이에요."

늑대가 쫓아와서 입김을 세게 불고 몸을 세게 부딪쳐도 벽돌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늑대는 사다리를 갖다놓고 굴뚝으로 올라갔어요.

"히~ 잇, 이놈들 두고 보자."

"큰일 났어! 늑대가 굴뚝으로 들어오려고 해."

"형님들 어서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이세요."

굴뚝을 타고 미끄러져 들어오던 늑대는 펄펄 끓는 물속에 빠졌어요.

"앗 뜨거! 내 궁둥이 살려!"

늑대는 엉덩이를 흔들며 도망쳤어요.

맏형과 둘째는 집을 허술하게 지은 것을 후회했어요.

그래서 아우처럼 튼튼한 벽돌집을 짓고, 삼형제가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4. 학습지1

평화주의자의 모습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가)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들의 폭력에 가족과 친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겠지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적과 맞서 싸우는 게 옳은지, 전쟁을 거부하는 게 옳은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적의 폭력에 당하고만 있는 것이 진정한 평화주의자의 모습일까요?

1914년,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조레스는 전 세계 사람들의 연대와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쟁은 권력자나 자본가들이 원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희생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그 해 7월 28일 끔찍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그로부터 사흘 뒤 조레스는 한 광신도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인간과 평화에 대한 그의 숭고한 믿음도 전쟁의 참화를 막을 수는 없었지요.

독일은 프랑스에게 선전 포고를 하고 프랑스를 향해 무섭게 돌진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단호한 의지로 국가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전쟁에 뛰어들지 않으면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전쟁에 나가기를 거부하면 병역기피자로 몰려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탈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회피한 사람들, 이들도 평화주의자일까요? (...)

모든 사람이 어떤 힘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게 평화라면... 평화주의자는 평화를 위해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평화의 시기라고 하면서 국방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국가나 국민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낙관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리고 군사력을 대수롭게 않게 여긴다면 흑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처칠-

실비 보시에, <전쟁과 평화 두 얼굴의 역사>

1.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적과 싸워야할까요? 전쟁을 거부해야할까요?

2. 처칠은 왜 평화의 시기에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일까요?

■ 자료명: '전쟁은 죽은 자에게서만 끝난다' 교수-학습 프로그램

평화교육의 분류 (평화 교육 영역)	평화에 관한 태도 · 가치 (개인적 문제로서 평화교육)	관련 단원 (대, 중, 소단원)	5분 평화 교육

핵심 가치	비폭력 존중	대상	중학교	통일 교육 단계	통일 준비 교육

평화 교수 기법	이해-주제별 접근법	수업 모형 및 시수 계획	1.이야기/사진을 이용한 개별학습 2. 시간: 5분

학습 목표	1. 전쟁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음을 인식한다. 2. 전쟁을 막기 위해 평화가 필요함을 깨닫는다.

1. 교수학습 방법

이 5분 평화 교육 자료는 전쟁의 무서움을 느껴보고, 우리나라에서도 남과 북 사이에 전쟁이 있었음을 깨달아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보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전쟁의 비극을 담은 사진과 전쟁의 고통을 서술한 이야기를 사용하였다.

2. 활동 과정

▷ 도입

- 전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것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브레인스토밍).
- 이를 토대로 전쟁의 무서움에 대해 상기시킨다.

▷ 전개

- 학습지 1의 사진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비극을 학생들이 느끼게 한다.
- 전쟁을 하는 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묻고,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당시 사진을 보며, 한국 전쟁 시의 고통을 설명한다.

- <예화 1>을 읽고 전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고통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 학습지를 풀어가며 또 다른 한국전쟁을 막기 위해 평화가 필요함을 깨닫는 시간을 갖는다.
-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 답하게 한다.
-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해 준다(종교분쟁, 영토분쟁 등).
- 전쟁을 하지 않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이 제시하게 한다(평화롭게 말로써 해결하는 방법).

▷ 정리

- 오늘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소감을 나눈다.

3. 유의점

- 전쟁의 고통이 우리에게도 먼 일이 아님을 주의 깊게 상기시킨다.

학습지1

전쟁은 죽은 자에게서만 끝난다

잭 켈리라는 한 신문기자가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다가 겪은 체험담입니다. 기자 일행이 수도 모가디슈에 있을 때는 기근이 심했습니다. 기자가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자는 한 작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온몸이 벌레에 물려 있었고, 영양실조에 걸려 배가 불룩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빨갛게 변해 있었으며, 피부는 백 살쯤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침 일행 중의 한 사진기자가 과일을 하나 갖고 있어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너무 허약해서 그것을 들고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기자는 그것을 반으로 잘라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을 그것을 받아들고 고맙다는 눈짓을 하더니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기자 일행이 소년의 뒤를 따라갔지만, 소년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한 작은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은 과일을 한 입 베어서는 그것을 씹어 동생의 입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동생이 씹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자 일행은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 온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소년은 영양실조로 죽었지만, 소년의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영화<블랙호크 다운>은 다음과 같은 자막으로 시작됩니다. 플라톤이 한 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전쟁은 죽은 자에게서만 끝난다.'

김혜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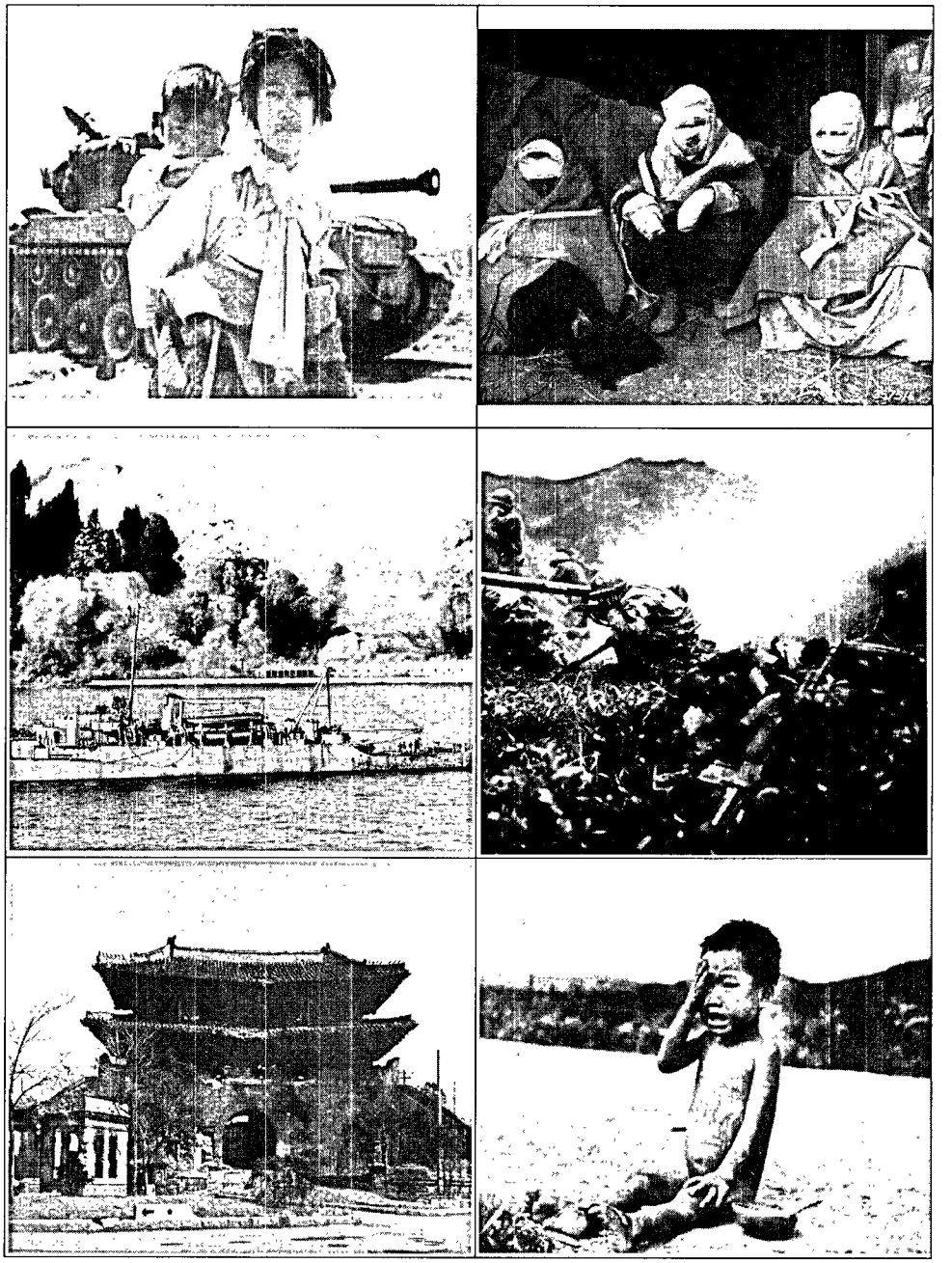
1. 옆의 여자 어린이는 왜 울고 있을까요?

2. 전쟁의 무서움은 무엇일까요?

3. 전쟁의 고통을 우리나라에서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울린 한국전쟁 100장면』 중

참고 사진들(『나를 울린 한국전쟁 100장면』 중)



■ 자료명: '검은 나이팅게일 메리 시콜' 교수-학습 프로그램

<table>
<tr><td>평화교육의 분류
(평화 교육 영역)</td><td colspan="2">평화에 관한 태도 · 가치
(개인적 문제로서 평화교육)</td><td colspan="2">관련 단원
(대, 중, 소단원)</td><td colspan="2">5분 평화 교육</td></tr>
<tr><td>핵심 가치</td><td colspan="2">평화의 실천</td><td>대상</td><td>중학교</td><td>통일 교육 단계</td><td>통일 준비 교육</td></tr>
<tr><td colspan="2">평화 교수 기법</td><td colspan="2">이해-주제별 접근법</td><td>수업 모형 및 시수 계획</td><td colspan="2">1.이야기를 이용한 개별학습
2. 시간: 5분</td></tr>
<tr><td colspan="2">학습 목표</td><td colspan="5">1. 평화를 위한 실천은 누구나 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td></tr>
</table>

1. 교수학습 방법

이 5분 평화교육 자료는 EBS 지식 채널e "메리 시콜의 초상화"를 보고 평화를 위한 인간의 노력은 그 어떤 차별과 편견도 장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이야기는 식민지 자메이카에서 온 흑인 간호사 메리 시콜(Mary Seacole)과 메리 시콜의 유일한 초상화를 그린 화가의 이야기이다. 메리 시콜은 크림 전쟁 때 최전방에서 다친 군인들을 돌보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지만 영국의 식민지 자메이카 출신에, 흑인이라는 이유로 나이팅게일의 그늘에 가려져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힌 존재였다. 이처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수호에 전 생애를 바친 사람 중에는 훌륭한 무명인(이름 없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들을 오늘에 다시 불러내어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평화 의지를 본받아야 함을 새겨본다. 우리도 평범하지만 생활 속의 평화존중과 한반도 평화는 물론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도 작은 행동과 연대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해본다.

2. 활동 과정

▷ 도입

•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 전 생애를 바친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을 열거해 본다.

- 나이팅게일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본다.

▷ 전개

- 지식 채널 e '메리 시콜의 초상화'를 함께 시청한다.
- 잊힌 흑인 메리 시콜을 보고 느낀 점을 말해보게 하고, 학습지 1의 두 개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듣는다.
- '메리 시콜의 초상화'가 던지는 평화의 메시지를 점검해본다.
- '메리 시콜의 삶을 통해 평화는 전문가들이나 국가, 군대의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어느 누구도 평화를 위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한다.

▷ 정리

- 메리 시콜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면서 누구나 평화를 위해 행동할 수 있음을 다짐해본다.
- 평범하지만 보통사람들의 평화 존중과 평화 실천이 우리 사회를 평화롭게 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및 평화통일을 실현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3. 유의점

-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학습지 2를 활용하여 느낌 위주의 '공감'과 '표현'에 중점을 둘 수 있다.
- 크림 전쟁 당시에도 간호 여성은 '나이팅게일' 외에도 '메리 시콜', '조아나 브리지먼' 수녀 같은 훌륭한 인물들도 있었음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 '한 사람을 구하는 일은 곧 세상을 구하는 일이다'라는 탈무드의 교훈처럼 평화는 생명을 구하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콘텐츠

- EBS 지식 채널 e '메리 시콜의 초상화' (2006년 8월 28일 방영)

학습지 1

메리 시콜의 초상화

노파는 가슴에 세 개의 훈장을 달고 있었다. "그거, 진짜 훈장 맞아요?" 화가의 물음에 노파는 수줍게 웃으며 훈장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화가는 노파를 그리기 시작했다.

메리 시콜은 영국의 식민지 자메이카에서 태어난다. 그녀는 어릴 때 어머니한테서 약초의 사용법을 배웠고 군병원에서 일하게 된다. 어느 날 크림전쟁이 발발할 때 그녀는 신문에서 간호사를 구한다는 기사를 보게 되고 홀로 영국행배에 몸을 싣는다. 하지만 번번이 자리가 없다며 간호단에서 떨어진다. 이유는 그녀가 흑인이고 식민지 출신이라서 아무리 일손이 달려도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 재산을 다 털어 홀로 크림반도로 갔으나 나이팅게일 간호단 면접에서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떨어지게 된다. 그녀는 다들 가기를 꺼려하는 최전방에 직접 치료소와 급식소를 차렸고, 그곳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병사는 후방의 나이팅게일 병원으로 보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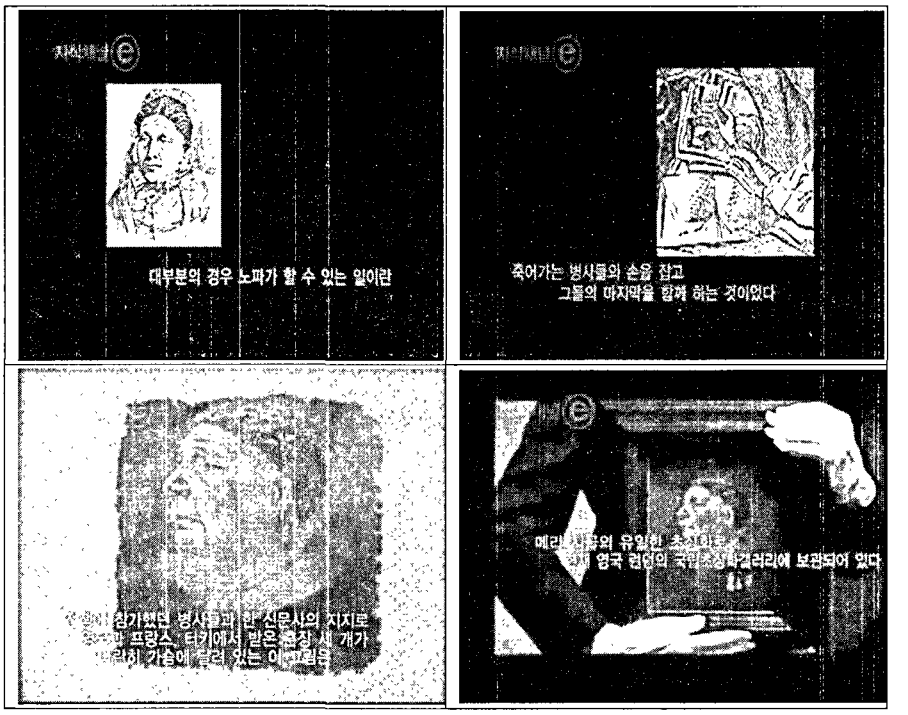
"그랬군요, 그래도 많은 사람을 구하셨겠네요."화가가 말했다. "아니, 꼭 그렇지 만도 않았지." 후방과 달리 약이 많이 부족했던 최전방에서 대부분의 경우 노파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죽어가는 병사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마지막을 함께 하는 것이었다. "정말 끔찍한 일이군요." "죽어가는 병사들을 그저 바라봐야 하는 내 자신이 가장 끔찍했지." 화가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노파도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림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가 숨을 거둔 후 초상화는 행방불명이 된 채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액자 속 다른 그림을 보호하는 뒷면 종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런던의 국립 초상화 갤러리에 보관되었다.

1. '메리 시콜 초상화'가 전달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나열해보면?

2. 나도 평범한 평화주의자가 된다면,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옹호하기 위해 장차 어떤 활동이나 실천을 할 수 있을까?

학습지 2

노벨평화상 - 메리 시콜



* 우리가 메리 시콜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평화 사랑을 기리고자 그녀에게 노벨평화상을 선사한다면? 상장이나 메달을 만들어보세요.

V.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평화의 패러다임으로 통일교육을 질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들이 접목되어야 한다. 그것은 외형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내적인 콘텐츠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의식까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은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 중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사회적 공감대(social consensus) 형성

한 국가나 사회, 또는 일정한 공동체가 의도하는 소정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회적 공감대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이 평화교육으로 질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도 소위 '남남갈등'이라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부분에서 너무도 많은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통일교육의 방향이나 또는 통일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교육이 또 한 번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

력이 필요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할 것이다. '평화 지향적' 또는 '평화'의 이념을 중심에 두고 통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새로운 논란의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평화' 운동이 대체로 급진적인 것을 표상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의 평화 운동 또는 평화교육이 시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모순(즉,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는 운동으로 표현되었다. 그러한 운동들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현상 유지의 관점 또는 보수적 관점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진보적 또는 급진적인 세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념적 관점에서 보면,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은 새로운 평화 운동의 일환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고, 평화주의 또는 평화의 이념에 근거해서 통일교육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본질적 의도와는 다르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장애가 될 가능성이 또한 큰 것이다.

따라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시도할 때, 충분한 홍보나 합의 과정을 통하여 도출함으로써 그러한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문제는 실제 통일교육 현장에서 수시로 접하게 되는 시급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교무실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 방향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여도, 교육 주체들 간의 이견이 강하게 표출되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태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남북 관계 및 분단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교장과 교사 등 일선 현장 교육자 간의 대화가 활성화되어 통일교육의 방향을 공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지난 통일 교육의 '이해 교육적 차원'의 접근에서도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짐작할 수 있다. 6.15 남북 정상 회담 이후 일부 학교에서는

6.15 기념 노래를 방송하는 문제를 가지고 학내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북한 노래 <반갑습니다>를 교실에서 교사의 지도와 해설 속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확성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것은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생각해 볼 때 부적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첫째 어떠한 교육 목적을 지녔느냐 하는 것과 둘째 사용된 교육 자료가 교육 현장을 벗어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감안한 절제된 접근이 아직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을 함에 있어서 자칫 지나치게 평화교육의 방법과 내용이 전면적으로 도입될 경우, 사람들이 부딪히게 될 충격을 감안하여 적절한 정도로 평화의 내용과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평화의 내용(또는 필요하다면 평화교육의 방법)이 통일교육의 문제에 어느 정도의 범위와 강도를 가지고 들어 올 것인가와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계열(scope)이 어느 정도 틀로서 확정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합의의 내용이라는 의미이다. 이 문제는 별도의 항목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제 Ⅱ장 참조).

2) 양적 · 질적 확대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양적, 질적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일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통일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버금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청소년들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의 관심과 함께 체계적 교육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단계의 통일교육은 기존의 교육 방법과 내용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덕목 교육이나 청렴 교육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 전적으로 부정되어야 할 것은 아니지만, 통일 문제에 정합성를 가진 독자적인 교육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주로 북한의 이해를 위주로 하는 1단계 교육이었다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이 필요하다. 즉,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교육 범위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교육 체제에서는 청소년들을 행사성 통일교육 위주로 유도할 수밖에 없다. 교육 과정을 통한 통일교육은 소수의 교과목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과목 중에서 통일과 북한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목은 도덕, 윤리, 일반 사회 정도이다(황인표, 2000).

이러한 현상은 제7차 교육 과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모든 과목들이 북한과 통일 관련 내용들을 싣고 있지는 않다. 그나마, 내용에 있어서 문화 이해적 접근을 꾀하는 수준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변화로는 너무도 미진하다. 교과목의 특성상 불가능한 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에 북한과 통일 관련 내용이 상당 분량 수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 문제는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단순히 흥미를 끄는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통일교육, 인간 존중과 동포애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 한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동시에 통일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인하는 교육이기도 하다. 교육의 장(場)도 학교만이 아니라 학교와 사회, 학교와 가정이 연결된 체계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좀 더 상론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적 확대를 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여전히 소수가 주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모든 교육 과정에 통일교육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을 지배하는 설계도가 교육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둘째,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저변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동안 통일교육 연수 대상자들은 주로 도덕·사회과 교사들이었다. 교과 내용에 통일 관련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양적인 저변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는 통일 담당 교사의 다양화를 꾀하는 일이다. 교육의 주체가 정확히 인지한 후에야 여건에 따른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교사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회 등을 만들어 활동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생각하는 교사들의 모임, 서울초·중·고 통일교육 연구회, 인천 지역 통일 교사 모임 등 전국적으로 지역에 맞는 나름의 통일교육 연구회들이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활동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통일교육의 활성화는 현장 교사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면, 이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회 활동에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질적 확대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육 내용에서의 질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현재의 학교 통일교육을 대강 요약하면, 북한 이해 교육이고, 행사성·간접 체험 중심의 통일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교육 내용과 방법은 여전히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다음과 같은 발전적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수-학습 전문가가 등장하여 남북한 동포가 함께 소속하게 될 민족 공동체를 하나의 도덕적 선(善)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선을 공유할 수 있는 전망과 이해를 내면화하는 민족 공동체 교육, 서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교육이나 남북 통합을 위한 인권 교육이 통일 교육에 대한 시민 교육적 접근, 다문화 교육 접근, 평화교육적 접근 등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그러한 점에서 통일교육의 질적 전환과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고,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의 통일교육이 종국적으

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합리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유대감을 키우는 것이다. 독일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에곤 바르에 의하면, 독일 통일 과정에서는 학생들을 상호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란트 총리 이후 콜 총리 시절까지 지속적인 동방 정책으로 청소년들의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수학여행을 동독으로 보냄으로써 오고 가는 학생들 모두 서로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었다(게하르트 미켈스, 2000. 11. 3).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수용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육로 및 해상을 통한 수학 여행단 교환이나 일정 학생 단체 수준의 방문 장려 등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강산 육로관광은 학생들의 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강산 관광을 대행하고 있는 현대아산 실무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2003년 9월 이후 약 1년여 동안 18,000여명의 학생들이 육로를 통한 체험 학습 및 수학여행에 참여했다고 한다. 좀 더 많은 체험 대상지가 개방된다면, 체험 교육 효과는 그 어느 것에 못지않은 중요한 교육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실천에 많은 장애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계를 벗어나 우리가 좀 더 진전된 교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권장 장치가 필요하고, 교류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교류 활성화 촉진 특례법(가칭)"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인솔자의 책임 하에 방북 또는 방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획기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동시에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 방문, 홈스테이(home stay) 제도의 활용, 육로를 통한 수학여행 및 졸업 여행, 각종 학술 탐사 활동이 보편화되어야 할 것이다(황인표, 2001).

3) 행정적 · 재정적 지원

이러한 모든 것을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실질적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첫째, 법적 ·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의 실제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육지원법"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우선, 당장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방향을 어느 형태로든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강령적 형태도 선언적 의미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으나, 이제는 실제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지원책인 예산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거나, 교사와 교수, 언론인 등이 포함된 통일 교육 심의회의 구성과 같은 규정들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구체적인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 통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현장과 관련이 깊은 교육 당국의 몫이다. 따라서 당국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17] 무엇보다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시도 교육감의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과 통일교육 담당 장학사 및 교육 연수원의 연수 책임자의 통일교육 인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셋째, 온라인상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프라인에서의 분위기 조성이 한 부분이라면, 사이버 영역은 또 하나의 공간이다. 더구나, 최근 학생들은 오프라인 세계보다는 사이버 세계에 침잠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통일 문화 형성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는 바로 사이버 통일 문화의 형성이다.

특히, 청소년 통일 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관련 통일 자료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다. 현재 우리는 통일부에 '사이버통일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것을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일부 청소년 관련 사이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17)구체적인 예를 들면, 학교 통일교육 지원을 위해 재정 지원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의 공문이 있느냐 없느냐는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이트는 상당히 영세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그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통일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사이버 세계를 통일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과 통일을 주제로 한 게임 개발(예를 들어, 두더지를 이용한 북한 지리 탐사 게임), 사이버 통일 표어·포스터 대회, 사이버 북한 답사 등의 게임 개발과 행사 개최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2. 학교 통일교육의 평화 내용 반영 방안

교육 과정 상의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 과정의 문제는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교육 수업 시간과 관련하여서는 금번 제7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 시수는 축소되었으나 재량 활동 시간에 통일교육을 포함할 수 있어 수업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보다 많은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통일 관련 내용이 시대의 조류에 맞게 조정 등재되고 있고, 통일교육의 지원 체제는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하여 큰 틀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장애를 제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첫째, 모듈화 작업 과정이 필요하다.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의 여러 과목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모듈(module)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모듈화 작업은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를 전제로 그것에 근거해서 교과서의 분석과 각 교과에서 반영 가능한 교과서 서술 모습 및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방대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교육은 교육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 과정 상의 강화 방안은 체계적인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각 과목마다 이미 교육 과정의 틀이 설정되어 있고, 그 동안 진행되어 온 교육 과정 내용이 존재하므로 새로운 교육 과정 내용을 교과 저자들에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반영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와 체계, 가능한 정도 등이 연구되어서 각 교과 저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모듈화'는 중요한 산물이다.

한 가지 강조해야 할 사실은 현행 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원칙적으로 수시·부분 개정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교육인적자원부 발표, 2002. 12). 이것은 통일 교육의 반영의 방향과 내용 정도를 요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 번 교육 과정이 형성되고 나면, 새로운 문제나 요구

항목이 발생하여도 그것을 반영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 과정 개정 시스템에서는 최소한 1년을 단위로 하여 새로운 요구 사항에 대한 반영 가능성이 생겼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부연하면,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 과정에 대한 반영 요구가 시기를 상실한 경우, 수시로 정책적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반영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일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 성과가 생겼을 경우, 그것을 교육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내용 및 방향도 정책 협조에 의해서 새로운 교육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18]

이러한 교육 과정 반영 요구에서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자료가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내용의 모듈화' 작업이다. 그리고 관련 교과의 협조를 얻는 일이다. 모듈화의 틀에 의하여 관련 교과가 어느 교과인지,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구체적 세부 목표들에 부합하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그에 적절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과서 집필자들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능한 다음 조치는 교과서 저자들에게 긴밀한 협조를 구하는 일이다. 동일한 교육 과정 내에서도 교과서 서술 등의 주제나 자료는 교과서 저자가 선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금번 '2007개정 교육 과정'은 교육 과정 집필 지침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교육 과정 요소를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해 놓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단원 요소의 주제에서 제목을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든지, 주제의 서술 분량을 조절할 수 있다든지, 주제의 구성 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든지 하는 등의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

18)물론, 교육 과정의 성립이 단순히 정책 결정에 의해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내용에 관한 부분이다. 교과의 내용은 발달 단계와 교육 과정의 구성 논리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수많은 관련 문서들이 부수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재량권은 특히 교육 과정을 발전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살려 주고자함이다. 교과서는 교육 과정의 최소 요건 위에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교과서의 질 제고에 유익하다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교과서 저자들에게 소정의 자료를 제공하면서 전환된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전달하고 그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교과서 저자들에게 자료를 전달한다 함은 바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모듈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실제의 교과 저작 과정에서 교과서 저자들은 자료의 결핍을 느끼므로 충분한 자료의 원천을 갖는다는 점에서 호감을 가질 것이며, 가능하면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교과서 검정기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9]

19)새로운 교육 과정은 '교과서 검정 기준'에 따라 거의 모든 과목 교과서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검정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교과서 저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은 교과서 저자들에게 많은 자료의 필요성, 특히 국가가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자료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에서 통일부가 원하는 소정의 정책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점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기타

본 연구가 소정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교사 교육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학교 통일 교육은 주로 '이해 교육'이고 그와 관련한 자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교사 연구 내지는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원이 가장 앞장서야 할 것이고, 일선 시도교육청의 교육 연수원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 모든 연수 과정의 교양 과정으로 4시간 정도를 확보하는 일부터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장, 교감, 및 교육전문직(담당 장학사)의 연수 및 의식 전환을 도와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 담당자들에게 일정한 성과 상여(merit system)가 주어져야 한다.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통일 담담 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성과 상여의 방식은 승진에 대한 가산점 또는 연구 학점의 부여가 있으며, 금전적인 이익을 보게 하는 방법도 있다.

넷째, 전국 통일 교사 경진 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초·중등부로 나누어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경진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교사 대회 경진을 통하여 결정된 순위에 의해 가산점 또는 연구 학점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명예심 과 자부심을 키워주는 것이다.

Ⅵ.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통일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향 탐색의 일환이다. 즉, 학교 통일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해서 '평화'의 가치를 통일교육으로 도입하여 학교에서 교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콘텐츠가 무엇인가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더불어 현장 적합성이라는 관점을 양대 축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서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콘텐츠로서 새로이 시작되는 연구이기 때문이다. 용어의 개념 정의는 본 연구자들의 독자적인 소견과 연구 총론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성립되었다.[20] 그것은 '평화교육'이 아니라 평화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심 테마인 '평화'라는 개념이다. 한 가지 강조할 것은 '평화'의 가치 또는 덕목이 평화교육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 지향적'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평화'라는 가치와 덕목을 통일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교육의 내용과 지향점의 하나로 삼고자한 것이다.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이라는 의미는 바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에 '평화'의 요소를 최대한 끌어들여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새로이 정립하고자하는 것이다.

다만, '평화교육'이라는 용어를 부분적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평화의 요소를 통일교육에 접목한다하더라도 평화는 평화교육의 핵심 주제이고, 항간에서 그 의미를 혼용하고 있으므로, 그 표현을 일단 차용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21]

---

20)본 연구는 총론격 연구인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개념과 내용 체계에 관한 연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병행하여 추진되었다.

21)정현백·김정수(2007)에 의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이해』에서는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을 접목할 경우, (1)통일교육의 역동성 회복,(2) 지구적 관점의 함양, (3)사고의 유연화와 '일상 속의 평화'회복,(4)남·남 대화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본 연구가 평화교육의 접목과 차이는 '지구적 관점의 함양'이나 '일상 속의 평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근본적으로 '통일 의지의 함양'에 그 목표가 있다(연구자 주).

평화교육과 관련하여 굳이 그 연관성을 밝히자면, '평화에 대한 교육', '평화에 의한 교육', '평화를 위한 교육' 중 '평화를 위한 교육'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분류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평화'의 덕목 또는 가치가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의 통일 교육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 지향적' 또는 '평화교육적'이라고 할 때의 평화교육 내용은 '평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평화에 대한 교육'도 아니고, '평화적 방법'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염두에 둔 '평화에 의한 교육'도 아니다. 그 핵심은 통일교육의 과정으로서, 통일교육의 목적으로서 '평화'를 통일교육의 내용으로서 받아들이고자하는 '평화를 위한 교육'인 것이다. 이것은 통일교육을 질적으로 도약하는 방안으로 평화 교육을 접목하는 것이며, 그것이 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연계를 가지면서 할 수 있는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방향 및 주제 속에서 연구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를 비롯한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쟁점들을 해소하는 작업에서 출발하고자 하였다. 이론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정당성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것을 한 마디로 "현장 적합성"의 문제로 다루었다.

따라서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평화교육(평화를 위한 교육)이 가져올 통일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 평화교육의 통일 교육에의 도입 정도,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적합한 교수 기법의 활용 문제, 평화교육 내용을 통일교육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문제, 평화교육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이 그러한 내용들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 분석이었다. 특히, 교육 과정 중심의 실태 분석이다. 이것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교육 과정의 내용을 토대로 평화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평화 지향적인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행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의 질적 제고 수단으로서의 평화'의 기준을 상위의 목표로 놓고 '덕목으로서의 평화', '평화 실현을 위한 정의'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교육과정의 분석은 새로운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을 위한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모듈화'를 일부 제안하였다. 모듈화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초등학교용과 중등학교용을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하였다. 이 모듈화는 향후 모든 교육 과정 속에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반영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 교육을 위한 논쟁점들에 대한 탐색이었다.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이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으로 도입될 경우, 현장 교사들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들이라고 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이념적 근거는 무엇인가? 평화교육(평화를 위한 교육)이 가져올 통일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는 없는가,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이 필요한 것인가? 평화 지향적이라는 것은 '안보'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인가? 평화교육과 평화운동의 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셋째,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을 위한 콘텐츠(contents) 및 프로그램 개발(programing)이다. 본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개발은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하나의 교육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할 경우, 가장 중심된 과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학교 수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학교 행사 활동으로서 5분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본 연구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 및 콘텐츠에서는 특히 기존의 내용을 빌려 오는 형태가 아니라 새롭게 탐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동시에 본 연구의 교육 과정 분석 내용과 연관을 가지면서 연구의 방향을 드러내도록 노력하였다. 제목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딱딱함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시금치 밭'이나 '이방인'

은 프로그램의 주요 콘텐츠에 해당한다. 갈등 해결이나 편견의 문제를 논하고 있지만 그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룬 내용은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을 어떻게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학교 교육 과정에 평화의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 외의 과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대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몇 가지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구조 틀(frame work)이 결핍되었다는 점이다. 그 구조 틀이란 앞서 이미 언급한 바대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이념과 목적에 맞추어 가상의 교육 과정을 작성한 후,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과정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가상의 교육 과정 즉, 모듈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구체적인 요구 반응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라도 알 수 있는 실험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현장 교사들과 교수 학습 전문가 등의 토론 검토를 거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효과를 서술하지 못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지면상의 한계와 시간상의 한계로 교육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싣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도 어느 경우는 성우에 의한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파워포인트로 제시하여야 할 내용, 비디오 자료를 링크하거나 곁들여야 할 내용이 있음에도 그러한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일부 논자들은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이 무슨 새삼스러운 것이냐고 논박하기도 한다.[22] 이미, 기존의 통일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화를 주제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22)2007. 12. 4(화) 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 현장에서의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 실천 방안"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통일교육발전토론회'에서 일부 통일 교육 전문가들은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연구자 주, 통일교육토론회 자료집 및 토론 자료 참조).

일반화라고 생각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일교육 전반을 보면, 현재의 통일교육은 '북한 이해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도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의 지속적인 콘텐츠 제공과 행정적 지원 아래서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교과의 교육 과정 속에 들어있는 통일교육 관련 내용마저도 시간적 한계, 여건상의 한계 등을 핑계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부분의 학교는 통일교육 자체를 연례행사처럼 단순히 형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 개인적인 노력이나 신념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과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전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것과는 그 영향력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교육의 활성화는 여타의 교육 영역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교육이 나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진행되지만, 통일교육은 국가가 어느 단계까지는 주도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이, 저변 확대의 기본은 자생적이며 필요를 스스로 자각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 교육은 교육 수요자들이 구체적인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국가의 국시(國是)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 주도성이 강하게 대두된다. 이것은 통일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이미 현실의 문제로 닥쳐서 그때부터 준비하기에는 시의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라는 '공공재(public goods)'의 실현은 국가가 준비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자못 크다고 생각된다. 다만, 연구자들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구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본 연구물에 담지 못한 점은 후속 연구자들의 뛰어난 역량으로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여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 록

Ⅰ. 평화 교육 교수 기법

1. 개관

평화교육을 학교에 적용할 경우, 학생의 일상적인 삶속에서의 평화를 구현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상당한 방법적 논의가 거듭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평화가 개인이나 사회에 주는 가치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평화는 분단 60년이 넘는 한국 사회에서 통일의 완성을 도모하는 길에 가장 기본적이며 현실적인 과제이다.[23]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평화교육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이론적인 연구나 방법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다 체계화된 평화교육의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계보다는 사회통일교육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평화교육을 시도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행해지는 평화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본격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자료는 국내에서의 평화교육 교수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평화교육의 사례를 통일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고찰도 불가피하다. 이는 현실에 근거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관계 정립이 모든 논의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본 내용에서는 상기한 문제의식 아래 학교 현장의 구체적인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교수 학습 방법을 찾고자 한다.

---

23) 김창근(2007), 『평화를 위한 통일교육』, 고양, 인간사랑, p.167.

2.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교수 기법 근거와 구체성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은 내용과 방법에서 이전의 평화교육을 오늘날의 통일교육으로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24] 이러한 노력 속에서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은 지식 전달 중심에서 참여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는 통일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개방적이고 합리적 토의라든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적 토의와 다양한 교육 기법 등은 객관적 지식 전달을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된다.

평화교육은 이에 비해 평화의 내용, 평화의 가치, 평화의 태도 등 세 가지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을 지향하고, 사실과 지식의 전달보다는 피교육자들이 창조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능력을 기르는 데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리어든 교수의 공정규칙추구(respect for fair rules), 인권과 책임의식(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정의추구(seeking justice), 악의 교정(righting wrongs)은 평화교육에서의 갈등 해소를 위한 이해->참여->조정->발전으로의 순차적인 진행을 도모하는데 주요한 내용적 근거가 된다.[25] 그 근거는 순차적인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강화를 위해 전개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에서 참여를 전제로 하여 전개하면 맹목적인 이해와 조정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조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면 학생들의 이해를 전제하지 않는 조정으로 참여의 행동만을 강화하는 문제를 야기할 있다. 또한 참여가 조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면, 이해의 틀에서 조정이 이

24)정현백 · 김엘리 · 김정수 · 이장원(2001)의 연구나 정현백 · 김정수(2007)의 연구 참조.

25)Betty A. Reardon, *Educating for Human Dignity-Learning About Rights and Responsibilities*(Penn Press:University of Pennsylvania,1995). 심연수(2005), 『학교 통일교육의 체계성 확립 및 방향에 관한 연구-통일 대비 통합 통일 교육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원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 이론적 근거를 재구성하였음. 리어든 교수는 아동에서 성년에 이르기 까지 사회적 가치의 개념들을 인식하는 교육심리학에 근거하여 인간존엄과 공정규칙추구(respect for dignity and fair rules), 인권과 책임의식(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정의추구(seeking justice), 악의 교정(righting wrongs)을 평화교육의 주요한 목표로 삼고 각 연령에 따른 발전적 접근(developmental approach)을 강조하고 있다.

루어지는 것에는 의미가 있으나, 편향적 참여를 조장하기에 교사-학생들의 인식의 괴리를 가중시킬 수 있다. 그리고 미래 지향적 발전에 기초를 두면 평화교육으로 지향이 아닌 평화 운동으로서의 성격이 부각되어 학생들의 평화 감수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은 그 내용만큼이나 그 교육방법의 수순이 매우 중요하며, 적절한 교육 과정의 계획과 교수방법, 기법의 선택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져야 한다.

통일교육을 평화교육적 관점에서 시도하는 방법과 기법의 적용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대상과 목표와 내용에 따라 적절한 방법과 기법이 구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느 교과나 대체로 지도방법은 주입식방법(expository teaching)과 탐구식방법(inquiry teaching)으로 구분되어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지도기법은 교사가 그의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의 선택이므로 그 기법은 다양할 수 있다.

여기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은 교사들의 철학이나 자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의 문제이다. 따라서 교사는 어떻게 접근하든 평화적 삶의 가치를 수용하고 내면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수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은 결과 지향적이기보다는 과정 중심의 교육방법이 우선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은 다양한 교수 학습으로 전개될 수 있다.[26] 여기서 평화 교수 기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해, 참여, 조정, 발전 요소와 일반 교수기법에서 활용되는 강의법, 토의법, 매체 활용법, 협동학습, 사회체험학습, 주제별 접근별을 연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서 주요한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록1> 평화교육 교수 기법 체계표

26) 정용민(2000), 평화교육의 사례분석과 평화교육 방법론 개발, 평화교육 심포지움, p.32.

일반교수기법 / 평화교수기법	강의법	토의법	매체 활용법	협동 학습	사회 체험 학습	주제별 접근법
이해	가-1	가-2	가-3	가-4	가-5	가-6
참여	나-1	나-2	나-3	나-4	나-5	나-6
조정	다-1	다-2	다-3	다-4	다-5	다-6
발전	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1) 이해

(1) 이해의 이론적 근거

평화교육의 이해 단계는 문제 제기와 관심을 포함하는 기초적인 평화의 인식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평화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통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역사 인식을 갖추게 함으로써 무지로부터 발생하는 폭력을 줄일 수 있다.

이해는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 인권, 관용과 연대의 원칙에 입각하여 타문화에 대한 지식·이해·존중을 국내적이고 국제적 차원에서 강조하고 또 여러 문제의 세계적인 상호의존 관계를 지역의 행동에 연결시켜야 한다. 종교적·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국은 자기의 문화적 상황에 더욱 적합한 가치 교육에 대한 접근방법을 결정한다.

데이비드 힉스는 평화교육을 평화에 관한 지식(머리), 평화를 만드는 기술(손), 평화의 가치와 태도(가슴)라는 세 측면의 상호 유기적 혹은 통합적 성격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속에서 평화 교육의 내용과 지식 영역은 적극적·소극적 평화를 포괄하는 통합적 평화개념을 통해 평화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 속에서 지식을 파악하는 것을 통해 평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화할 수 있

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경험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의 목적이 학습자들의 객관적인 조건과 그러한 상황 하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문제 제기단계에서 촉진자들은 학습자들이 응답에서 비일관성과 부조리를 끌어 낼 수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사고를 통해서 생각하도록 자극하고, 그들의 사고 유형을 논리적으로 보다 일관성 있고 경험적으로 조리에 맞게 하기 위해 그들의 사고유형을 재정립하도록 독려한다.

외국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의 공존모형이나 북아일랜드에서 실시해 온 상호이해 교육(EMU)은 전반적으로 평화교육에서 오랜 역사적 갈등 당사자인 서로에 대한 상호이해를 기초로 설정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평화교육은 인간존엄을 통한 인간에 대한 기본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기에 현장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들은 평화의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비판적 교육의 성격도 인간적인 모습을 내포하여야 한다.

(2) 이해의 구체적 교수 학습기법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남남갈등, 남북갈등은 서로간의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그렇기에 상호간의 이해는 통일교육이나 평화교육에서 교수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는 평화의 내용과 평화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 훈련, 평화감수성 습득에 필요한 태도와 가치의 변화 등에 기초적인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27]

① 가-1: 이해-강의법

실제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은 이전의 반공교육이나 통일교육보다 더 심층적인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해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강의법은 학습자들에는 다소 피동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강의자의 평화나 통일에 대한 이해는 강의법을 통해 그 의도를 잘

27)정현백·김정수(2007),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해』,p.33.

파악할 수 있다.[28] 따라서 강의법은 강의자가 자의적인 수업이 되는 것을 스스로 적절히 제어하면 학생들에게 통일과 평화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좋은 기법이다. 여기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이해가 설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강의식 수업은 평화적 논의를 학생들에게 심화할 수 있는 교수기법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통일문제나 사회문제를 접근시켜 학생들의 평화에 대한 감수성과 관찰력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② 가-2: 이해-토의법

기존의 통일교육은 토의보다는 일방적으로 남북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초점을 두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한 방식이 2000년대를 전후하여 토론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통일문제에 대한 토론은 학생들의 통일관이나 북한관에 상당한 자기 논리를 갖게 하기 때문이었다. 평화와 평화교육은 더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29] 이러한 관점에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는 학생들이 교실 속에서 토의를 통한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말하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화는 상호 보완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고병헌은 평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강조하였다. 그는 평화에 대한 논란성, 교화 문제, 평화적 가치의 형식과 내용의 문제를 다루었다.[30] 여기서 중시되는 것은 바로 평화교육은 정치교육과 가치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당한 논의를 전개하여야 하는 입장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의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은 바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학생 스스로의 논의를 고무하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③ 가-3: 이해-매체 활용법

---

28)정세구·추병완·차우규·박찬석(1999), 『통일교육 교수기법』, 통일교육원, p. 39.

29)박보영(2006), 「평화교육의 이론과 과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p. 38.

30)고병헌(1994), 「평화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정치교육과 가치교육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20분 이상 토의나 강의에 집중할 수 없다. 강의법이나 토의법만으로 학생들의 평화적 인식과 능력을 고양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나 영상 매체의 활용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르너(Bruner)는 "학습자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작동적, 영상적, 상징적 양식의 표상 형식을 사용하면, 어떤 교과 내용도 그 내용의 지적 성격에 충실하게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31]

이러한 입장에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도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를 모색하는 학습을 매체 활용을 통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전쟁으로 고통 받는 난민들의 사진, 그림, 영상물들은 학생들에게 반 평화의 고통과 아픈 현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④ 가-4: 이해-협동학습

교실에서도 사회생활이나 어려운 일상 상황의 돌출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길은 학생들 간의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속에서 최소한의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역동적인 상황과 환경이 좌우하는 교실에서 교사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 자신의 고민, 가정 문제, 교우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는 수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입장을 통감하는 교사들은 특별한 시설이나 도구 없이 학생들이 각각의 책임과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개별학생들의 끼리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협동학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32] 이 학습은 기존의 조별학습보다 더 치밀하게 긍정적인 상호 의존을 고무할 수 있다. 특히 평화교육은 서로에 대한 상호 관심을 기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이에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은 협동 학습을 통해 서로에 대한 상호 의존과 개인적인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서로에게 다면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협동학습을 전개할 때는 상당한 이해력과 인내심이 요구된다. 그 이유

31)통일부(2003), 「통일교육기본지침서」,p. 98.

32)정창우 외(2007),『도덕과 교수 - 학습 방법 및 평가』, 서울: 인간사랑, p. 174-175.

는 개인적인 이유로 협동학습을 싫어하는 학생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혼자 모든 것을 다하려는 학생과 무임승차 학생 그리고 일의 추진을 못하게 하는 방해꾼 학생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려는 노력이 교사에게 요구된다.

학교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장이 아니라, 바로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이다. 학교의 모든 것에서 학생들은 생활의 변화와 경험을 알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실에서의 협동학습은 상호 이해를 시도하는 중요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이해와 새로운 비전의 제시, 학습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 유익한 교수기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⑤ 가-5: 이해- 사회체험학습

2000년 이후 통일교육은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다양하게 전개하여 왔다. 남북한 상호이해를 위하여 북한 주민들을 만나고 북한 사회를 직접·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계속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남북한 주민간의 실질적인 만남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은 '만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체험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통일교육에서 강조되는 것은 자기 주도적인 관점의 학습을 도모하면서 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할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한 방법 중의 하나가 가상 체험 학습이라고 하겠다.

평화를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가상 체험 학습은 크게 5단계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1단계는 '학습 과정 소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평화와 통일로의 가상 체험학습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즉 실질적인 사회 체험을 대신하여 가상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다. 2단계는 '학급 과제수행 안내 및 학습 집단 구성'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상적 체험학습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시해 주고, 학습 집단을 구성해 준다.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평화 관련 사이트나 통일관련 사이트를 학생들에게 알려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단계는 '가상 교환학습 체험 과정' 단계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자기 과제를 완성하는 것이다. 4단계는 개인별, 조별로 관련 과제에 대해 질의응답을 받고, 5단계는 '정리 및 소감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실시한다.[33]

이러한 전반적인 논의전개를 통해 학생들은 평화 문제와 통일 문제를 이해하고, 학습자 스스로의 체험의 교감작용과 수업 내용의 실생활 적용 문제에 대해 실천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⑥ 가-6: 이해-주제별 접근법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미래 전망을 갖고, 학생들이 갖는 고민에 대한 민감성과 방향 제시에 성숙한 평화적 인성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속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평화적 삶에 대한 인식과 미래 전망을 가름할 수 있게 된다.

개개인의 통일문제 인식은 자기 생각의 주체적 인식과 더불어 그 행동이 객관적이며 다른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는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진척되는 것이다. 그러한 일에 있어서 스스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주제별로 접근하는 교수기법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자성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적 노력이 필요하다. 남한은 북한의 핵 개발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북한은 남한의 독일식 통합노력 흡수통일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주제별로 접근하는 노력이 교실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해-주제별 접근을 통한 수업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새롭고 창의적인 남북관계나 통일문제, 평화문제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남북한 주민의 서로에 대한 인식', '북한 핵문제의 이해'라는 주제별 접근을 통해 학생들은 보다 많은 평화적 관점과 이해를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참여

33)한국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2002), 『가상 체험 학습을 통한 남북한 이해 프로그램』,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 교과교육 지정 연구과제, pp.14-15.

(1) 참여의 이론적 근거

평화 문제 이해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해결의 차원에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서의 통일교육은 바로 함께 하기를 전제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이후 참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해외 평화교육에서 강조되는 더 이상 폭력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정치적 결단 못지않게 평화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참여'가 요구된다.

북아일랜드의 평화교육에서 삶의 거주 공간, 교육 환경, 직업 환경, 놀이문화 등이 대립과 차별을 양산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가는 (living together) 혼합거주지를 조성하느냐는 오래된 관심이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대면 인식의 계기를 높이고 편견을 줄이기 위한 만남의 모형(meeting together)을 그리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학교 교육 과정으로 정착된 북아일랜드 평화교육 모형이 상호이해 교육(Educ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이다. 북아일랜드 역사를 민속박물관에서 양측의 학교 어린이가 함께 공부한다거나, 학교에서의 공동학습(joint learning)을 통해 음악, 미술, 글쓰기를 함께 한다. 또한 2-3일간의 평화캠프를 하면서 친구가 되는 등 상호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기획은 민간보다는 북아일랜드 교육 행정 당국이 주도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의 경우 갈등과 차별을 넘어선 흑백간의 평화교육이 전개되고 있다. 인구분포 상으로는 흑인이 백인보다 많지만, 교육이나 고용과 같은 사회적 기회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흑인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흑인을 위한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이들의 인권의식 제고나 민주주의를 위한 평화교육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시민 운동 단체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SADTU(South African Democratic Teachers Union)같은 교원 단체에서도 적극적인 평화교육안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남과 참여이다. 평화교육이란 평화를 가르치는 특수한 교육영역이 아니라 모든 교육 자체가 인권의식에 입각한 평화교육의 원리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통일 이전에 유네스코 평화교육안이 1970년대에 확산되고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평화교육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청소년 폭력에 대처하는 평화교육, 전쟁반대를 위한 군복무를 대치한 사회봉사, 이민자들의 통합을 위한 평화교육, 동성애자의 평화교육 등이 전개되고 있었지만 동서독간의 통일을 위한 평화교육은 1989년까지 추진되지는 않았다. 동서독 양쪽에서 보편적인 평화 운동과 교육이 전개되었고 분야별로 협력하기도 했다. 결국 이런 흐름은 통일이라는 특수한 독일의 주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일반론 속에서 자기 문제를 참여하고 만나고 해석하는 방식을 취한 사례라고 하겠다.

(2) 참여의 구체적 교수기법

평화교육의 방법은 학교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방법론에서 탈피하여 방법론을 다원화하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자신과 이웃 그리고 세계에 대한 개인의 감수성 훈련에서부터 크게는 정치적 의식화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 문제해결의 방향이 가능한 방법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34] 결국은 평화교육은 개인의 의식과 삶을 변화 시켜나가는 가치교육적 성격과 정치 교육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평화적으로 실천하는 프로그램이 구체화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의 목표를 분명하게 명료화하는 작업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① 나-1: 참여- 강의법

평화교육에 적용해 볼 만한 학습 이론에서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학습자들의 성장이나 학습은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하나의 '산물'(product)이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process)'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학습자인 학생들에게 있어 실효적인 평화교육의 경험은 '평화'의 지식이나 정보의 학습보다는 생활 속의 체험을 통한 그들 나름대로의 '평화'를 위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구성해 가는 접근방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구성주의적 교육의 핵심적인 원리는 상호 존중이 지속적으로 실천되어

34) 강순원(1997), 「한국 평화교육의 성격과 실제, 『한일 평화교육』, 제 1회 한일평화교육 심포지엄, p.70.

지는 하나의 사회 도덕적 분위기(a social-moral atmosphere)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즉 학교생활 공간에서 그들의 경험을 이루고 있는 전반적인 인간관계들의 평화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서 '평화'의 가치를 체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학급회의'나 '참여 수업'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② 나-2: 참여-토의법

콜버그의 '딜레마 방법'에 준하여 도덕적 토의를 실시해 본 여러 경험에 따르면, 학생들은 그들 자신이 당사자적인 관련성을 느끼고, 토의대상이 그들에게 구체적이며, 그들의 경험 세계 및 그들에게 중요한 것과 연결되어 있을 때 진지하게 토의에 참여한다고 한다.[35]

학생들에 있어서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참여를 하는 경험들은 점차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들이 그들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고, 그들 스스로 하여금 그러한 갈등들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고무해 줌으로써, 자율성을 신장하고,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도 배양하면서 스스로 평화능력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교사는 학생들이 교실이나 학교 그리고 주위 환경 속에서 평화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일을 찾도록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이론적인 평화 모색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립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 개방 시간을 연장, 학교 매점의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학생 스스로 논의하여 평화적인 참여를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 내는 일이다.[36]

③ 나-3: 토의-매체활용법

평화와 통일문제 접근에 있어서 단면(斷面)적으로 보는 논의가 중요하다. 이에 매체 활용을 통한 토의는 심층적인 통일관, 평화관, 대미관과 대북관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참여-매체활용법은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을 보다

35)허영식(1997), 『민주 시민 교육의 방법』,서울: 학문사, p.167.

36)김원태,"세상을 만들어 가는 아이들", 천희완·최종순 외(2001), 『사회참여 체험학습』,서울:우리교육, pp.148-151.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④ 나-4: 참여-협동학습

참여-협동학습은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된 소규모의 집단을 참여시켜 수업 과정에 협동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개개인의 학업 성취와 더불어 다른 학생들의 학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게끔 만든다.

참여-협동 학습은 그 자체가 학생들의 평화 인식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견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이견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참여하는 양식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수업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수업 전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입장이나 다른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 이 수업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이견을 갖는 사람들의 입장을 단정 짓지 않는 것이다. 통일은 다양한 인식을 기초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기법은 자신의 인식을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지양시킬 수 있다.

⑤ 나-5: 참여-사회체험 학습

평화교육은 현실적인 토양에서 기초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평화적 참여가 사회체험 학습에서는 한계를 보여 주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상당한 현실적인 고민을 던져 주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나 학교가 신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참여-사회 체험 학습을 전개하려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평화교육은 주변 환경의 성숙이나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으로 평화교육을 시도하는 근거도 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정적 지속을 위한 노력도 평화교육의 중요한 내용이다. 평화교육은 지식의 교육이 아니라 지혜의 교육이 되며, 평화에 대한 지식교육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문제해결의 방식과 평화로운 교육의 분위기 자체가 교육의 중대한 관심사이다.[37] 그렇기에 사회 체험 학습에 대한 교육자의 논의는 더욱 더 다양한 각도로 숙고되어야 한 것이다. 즉, 학생들은 미래의 평화 파수꾼이다. 그들에게 평화를 가르치는 데에는 다양한 시

37)박보영(2005), p.134.

간과 논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는 사회 체험 학습이 필요하다.

⑥ 나-6: 참여-주제별 접근법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은 우리의 통일 의지가 반영된 건전한 통일 논의의 대안들을 찾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평화를 논의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논쟁이 되는 내용에 대해 주제별로 접근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리나라의 분단은 갈등과 혼란 속에서 조장되어 온 면이 많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통일교육은 남과 북 주민들이 서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래된 적대감과 분노, 고정된 편견과 선입견을 어떻게 줄여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은 남과 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야로 문화적 접근이나 문화이해를 보다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38]

이러한 의미에서 학생의 참여 하에서 주제별 접근법은 학생들의 통일과 평화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실제 유럽의 평화교육 수업모형은 크게 "이슈(issue)를 중심으로 하는 workshop", "lifeskills ", "theme" 중심으로 설정하여 전개한다. 이러한 수업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 평화와 통일과정에 대한 다양한 참여-주제별 접근의 수업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정

(1) 조정의 이론적 근거

교사는 지식 전달자로서 정해진 대답을 주기보다 학생들의 창조적 사고를 발전시키고 촉진시키는 조력자(facilitator)의 역할이 더 크다. 따라서 평화를 만들어 가는 능력의 발달,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전환시킬 수 있는 문제 해결 학습,

38)정현백·김정수(2007),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p,28.

의사소통, 관용, 수용, 편견과 적대감 줄이기 등의 능력을 키우는 데 더 초점이 주어진다. 특히 '과정으로서의 통일', '사실상의 통일'을 강조하는 현행 통일교육에서는 남과 북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 훈련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 전반적인 과정은 바로 갈등 해결 능력을 모색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지식 전달 혹은 효과적인 지식 전달을 위한 토의와 참여로서는 부족하고 오히려 '다름'을 인정하는 감수성과 '다름'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관용적인 태도 그리고 공존을 위한 자세를 길러주는데 더 초점이 주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통일교육을 평화교육적 관점으로 보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평화교육은 평화와 비폭력 문화가 창달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남을 배려하는 시민, 즉 다른 문화에 개방적이고, 자유의 가치를 인식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비폭력적 방법으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기울이는 총체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조정 능력을 평화교육에서 요구함을 알 수 있다. 본질적으로 연대, 창조성, 시민적 책임과 같은 가치 및 능력과, 비폭력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 능력, 비판적 통찰력의 형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과 과정에 국제적 지원을 포함한 진정한 시민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은 특히 평화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조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통일교육은 보편적 평화교육적 가치로 승화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입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은 단지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언론을 포함한 사회 기구 전범위 안에서 평생교육 차원의 넓은 감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평화문화를 직접 주도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지도자급 인사와 정부 관료, 언론 및 방송 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학부모 등 평화문화 조성을 위해 영향력 있는 성인들이 우선적 교육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조정의 구체적 교수기법

오늘날 미국에서 통용되는 '갈등해결' 프로그램은 조정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미국의 갈등해결 프로그램들은 '갈등'에 대해 미국사회 전반에 걸쳐 공유된 인식, 즉 '갈등은 인간사에 필연적이며 반드시 폭력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없으며, 평화적으로 건설적으로, 창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화교육을 통해서 존재하는 갈등관계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평화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미국사회에서 가능한 것이며,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중재, 협상, 조정, 문제 해결 워크숍 등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배경에서 출발되어지고 있다.

① 다-1: 조정-강의법

학교에서의 갈등 해결은 학생들의 평화를 진작시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신에 대한 심한 욕설이나 친구의 배신에 대한 적개심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안을 갖추고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친구에 대해 상해를 입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은 '갈등 해결' 학습과 여타 영역에서 중재 등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조정 능력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분석할 수 있는 실천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방법은 개인이나 사회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② 다-2: 조정-토의법

학교에서 갈등에 대한 대응은 교육적인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에 학생들은 의사소통, 분노 조절, 편견과 적대감 줄이기, 갈등분석, 협동, 중재, 협상 등의 기술들을 배우고 이를 통해 자아 존중감 향상, 타인에 대한 인정과 관용을 위한 가치와 태도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39]

---

39)정용민(2002), "평화교육적 접근의 통일교육", 서울초중등통일교육연구회, 2001년 겨울 자율연수 자료집 참조.

초기부터 학교에서의 '갈등 해결'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목표는 문제 해결 전략과 의사 결정 기법을 더 잘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에 착안하여 조정-토의기법은 통일과 평화 문제에 다양성의 존중을 배우며, 의사소통과 분석 기술을 향상시켜 통일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과 의지를 배양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③ 다-3: 조정-매체 활용법

학교 갈등 해결 프로그램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의 평화·통일교육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협동, 의사소통, 적극적 감정 표현을 통한 상호이해, 관용, 갈등 해결 기술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존과 화해, 그리고 통합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기술이다. 이런 구체적 기술과 태도들이 교실의 급우들과의 관계에서 학습되고 실천될 때, 일상에서의 갈등 해결과 평화 만들기 기술을 축적하여 궁극적으로 남북의 대화, 화해, 협력, 통일을 위한 내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기와 같은 갈등 해결 프로그램은 내부적인 사례를 들어 해결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무리 작은 교실 공동체라 할지라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실정에 적절한 평화교육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영화, 드라마, 기록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배우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영상 매체를 이용하여 노사 갈등에 대한 노동자와 고용주의 입장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을 모두 경청하고 평화로운 조정과 문제해결이 무엇인가를 학생들이 탐색하는 과제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좋은 조정-매체 활용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다-4: 조정-협동학습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일정한 이론과 방법론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성장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갈등관계에서의 협상과 중재에 대한 기본 틀이나 공동체와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프로그램들은 '갈등'에 대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공

유된 인식, 즉 '갈등은 인간사에 필연적이며 반드시 폭력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없으며, 평화적으로 건설적으로, 창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철학에 기초하여야 한다.[40]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사회에서는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중재, 협상, 조정, 문제해결워크숍 등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갈등 해결 프로그램'은 갈등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구조를 이해하여야 하며, 동시에 주관적 의식을 벗어나게 하여야 한다. 때문에, 갈등의 해소는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던져 주는 양면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학생들은 스스로 조정-협동학습을 통해 전반적인 조정의 다양한 국면들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2> 조정(갈등 해결)을 위한 모델

갈등의 인식	--->	갈등의 해결 실천	--->	갈등의 순화
분노, 감정 악화, 적의, 폭력적 문제 해결 모의		대화, 논쟁, 비판, 경청		타협, 절충, 연기, 이후 문제 발생 숙의

⑤ 다-5: 조정-사회체험학습

갈등에 대해 제거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과, 갈등을 줄이거나 해소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법은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갈등 사태 이후 조정 상황은 교육적으로 갈등구조 해결에 실천력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평화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성찰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구적 관계로 연결되는 세계를 이해하고 갈등을 끝없이 재생산하고 있는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에 대하여 비판적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은 민주적이고 정당한 원칙과 행동양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나아가 그 갈등관계를 평화적인 관계로 승화

40)서동만(2000), 「평화교육 · 통일교육 · 국제이해교육 -주요개념의 이해와 접점 모색-」,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국제이해교육』, 2000 가을, 제3호. 참조.

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정-사회체험학습'은 그 적용가능성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평화 능력의 향상에 대해 점진적이며, 평화교육과 평화 문화를 서서히 확산시키는 평화 능력의 배양과 맞물려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⑥ 다-6: 조정-주제별 접근법

평화교육은 민주적이고 상호 소통적인 대화능력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정-주제별 접근법은 통일과 평화의 문제에 대해 서로 의사소통과 내용의 구체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수업 기법이 잘 진행되면 나와 내 이웃 문제, 사회문제, 국가 문제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발현하고 책임을 공감하는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정-주제별 접근법은 비폭력적 의사소통을 위한 훈련,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력 계발, 협동과 공동의 문제해결,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방법 등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접근 방법은 학생들의 통일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조정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발전

(1) 발전의 이론적 근거

평화교육 활동은 궁극적으로 평화를 보장하는 미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그렇기에 평화교육은 이해, 참여, 조정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미래 사회의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적절한 교재와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평화교육 전문가들은 이른바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왜곡된 견해를 없애고 평화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간 대립과 상호 불신에 의한 편견을 불식하기 위해 평화교육은 남북간, 지역간, 국제적 협력을 장려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평화교육의 교수·학습 방법과 행동 형태를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행동방침은 평화·인권교육·민주

주의 교육을 일상의 실천문제로 하는 동시에 학습의 대상으로도 해야 한다. 교수·학습 방법에 관해서는, 활동적 방법의 활용, 집단 작업, 도덕적 문제 토론 등 개별화 교수법이 장려되어야 한다. 제도적 정책 방침은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를 포괄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을 실행하여 효율적 관리 및 참여 행태가 되어야 한다.

평화교육은 지적 내용뿐만 아니라 가치나 행동변화의 측면이 중요하다. 따라서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과 예술 활동들 즉 책, 영화, 그림, 연극, 댄스, 음악, 게임 등을 활용하여 장기화되는 갈등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평화 의지의 상실을 막아야 한다. 즉,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발전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찰자이면서 생산자로서 평화 문화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본 교수 기법은 미래의 통일세대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성세대보다도 진일보한 평화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우리의 학교 통일교육이 지금보다 진취적인 방향에서 평화교육적인 특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현백·김정수의 연구는 평화의 범주를 전쟁이 없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군사주의 문화가 제거되는 상태로 한정할 경우 갈퉁이 제기한 '적극적 평화'의 전망은 버리지 않으면서 우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41]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분단 구조가 가져다주는 군사주의와 같은 폐해를 극복하고, 남북 간에 혹은 남한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지닌 집단 사이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관용하고, 적대감을 줄이면서, 평화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를 쌓는 미래 지향적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으로의 접근은 현재의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논의에 입각하기 보다는, 평화교육적 지향을 위한 통일교육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상황인식과 전망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발전의 구체적 교수기법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은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 통일'을 가능하게 하려는 방향

41)정현백·김정수(2007),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성을 갖는다. 평화 통일은 힘의 우위에 의한 강제적인 통일이 아니다. 이는 남과 북이 상호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를 바탕으로 상호 합의, 협력하여 이루어 가려는 통일이다.

이러한 관심으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은 그 교육적 목표를 궁극적으로 남과 북의 통일로 가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전은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통일과 평화를 연습하는 삶의 자세를 터득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라-1: 발전-강의법

평화교육은 '미래적 전망'에 대한 학습이다. 평화가 정착되고 강화되는 길은 평화교육의 주요한 내용이다. 그렇기에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에서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통일 미래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분단은 우리 현실 생활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일상적인 분열의 상징이기도 하다. 평화와 통일은 당면한 구체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의식 전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전-강의법은 이해, 참여, 조정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사고방식을 보다 평화 지향적으로 변화시키는 강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의식들을 극복하려는 설득 작업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몰이해나 불신, 평화 문제에 대한 열외 의식과 방관자적 태도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성찰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평화교육이 또한 통일의 방법과 통일 후 통일 사회에서의 우리의 삶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포함하는 인식의 틀을 강화하는 것이다.

② 라-2: 발전-토의법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이해와 함께 북한 주민과 더불어 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것은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정신이다. 이는 '당위'적인 논리의 설파나 지식 · 정보의 제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적 자세와 태도의 변화로부터,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

성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은 학습자가 생활 속에서 '화해와 협력', '타자와의 공존', '문제요소의 해결력 강화'의 문화를 체득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③ 라-3: 발전-매체 활용법

평화교육의 발전 교육 프로그램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단순한 인식의 틀을 제공하고서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남북한을 가로 막는 현안이나 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매체 활용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매체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사는 통일과 평화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선택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평화교육의 미래 지향적 관점을 갖는 발전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평화 지향적 가치나 태도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④ 라-4: 발전-협동 학습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은 다양한 교과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고립과 통일을 실행했던 시대의 특징을 각각의 구성원으로 협동 학습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교과 지식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 및 지역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협동학습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전-협동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peace making), 긍정적인 역할 수행을 통하여 평화를 구축하고(peace building), 증진시키는 (peace improving) 경험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⑤ 라-5: 발전 -사회 체험 학습

생활상에서 '평화 사랑'과 '타인 존중'을 실천하는 연습을 하는 데서 출발되어야 한다. 이런 통일교육이 될 때, 우리 민족의 통일이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생활 속에서 준비되고 내가 참여하는 과정으로 학습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통일교육을 새롭게 인식할 때, 통일교육은 이미 평화교육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분명한 것은 발전적인 평화교육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반감을 갖는 학생들에 대해 설득하거나 그들의 말을 들어 주는 배려가 발전적 평화교육적 통일교육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⑥ 라-6: 발전-주제별 접근법

교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해나 참여, 그리고 조정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의 연구가 가속화되어야 하는 당위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통일과 평화의 미래를 위한 발전-주제별 접근법은 첫째, '서로 다른 존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통해 차별, 차이, 평화와 공존을 배울 수 있다. 둘째, '나와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접근을 통해 불신과 신뢰, 사회적 공정성과 남북한의 신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나와 우리의 문제를 누구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통해 '의존과 자주, 주인의식과 통일 등 세 개의 큰 주제 군을 통해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발전-주제별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우리의 평화 지향적 통일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전- 주제 중심의 학습은 학생들의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고양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 미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 문헌

강순원 외(2001),『인권교육과 평화교육 국가 정책 방안』,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실 연구과제.

강순원(1997),"한국 평화교육의 성격과 실제",『한일 평화교육』, 제 1회 한일 평화교육 심포지엄자료

강순원(2000),『평화·인권·교육』,(서울: 한울).

강순원 편(2005),『한일 평화교육』,(서울: 커뮤니티).

게하르트 미켈스(2000), "독일은 통일을 잊어가고 있다",『통일 한국』, 2000. 11월 호.

게하르트 미켈스(2000), "한·독 통일교육 관련 금강산 호텔 선상 세미나 연설에서", 2000. 11. 3.

고병헌 외(2007),『평화 지향적 통일 교육의 개념 및 내용 체계』,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부,『제7차 교육 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교육부,『통일 교육 기본 방향』, 1993.

교육인적자원부(2002),『고등학교 도덕』, 서울:지학사.

교육인적자원부,『대립에서 화합으로』, 2002 통일 교육 지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2007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7-79호[별책6].

교육인적자원부(2007),『2007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

국가안전보장회의,『평화 번영과 국가 안보』, 2004.

권영성,『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2006).

길은배, "청소년 통일의식에 기초한 통일 교육 활성화 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2. 10.

김대중 평화센터 엮음(2007),『통일 지향의 평화를 위하여』,(서울: 한겨레출판).

김도태, "21세기 통일 환경 변화와 통일 교육의 실천 방향", 1996.

김도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본 햇볕정책의 평가와 남북한 관계", 민주 평통 통일연구회, 제15차 정책 포럼 자료, 2002.

김석향, "북한 사회의 시대적 요청 다각도로 읽어내기",한국사회학회『전기 사회학 발표 요약집』, 단행권, 단일호, 1998.

김정수, "평화교육: 평화교육의 통일교육에의 적용을 중심으로",『여성과 평화』,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02. 2월호.

김정수(2007), 『평화도 배워야 합니다』,(서울: 녹색동화).

김정욱(1999),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자료집), 한신대학교 민중교육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창근(2007),『평화를 위한 통일교육』,고양: 인간사랑,

김창환 외 2인,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태 분석』, 통일부 용역과제, 2002. 12.

김철수, 『헌법학강의』, (서울: 박영사, 2006).

박병석(2005), 『의사소통적 통일교육』,통일부 통일교육원

박보영(2006), "평화교육의 이론과 과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박순경(2001), "교과교육학 논의에 대한 반성적 고찰",『교과 교육학 신론』(서울: 문음사).

박찬석 외 7인(2000), 『통일교육론』(서울: 백의).

박찬석(1998), "한국의 통일 교육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박효종(2001), "통일 교육 이론적 기초로서의 합리적 선택이론",『통일교육의 이론적 기초와 새로운 통일교육 방법모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8.

서동만(2000), 「평화교육·통일교육·국제이해교육 -주요개념의 이해와 접점 모색-」,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국제이해교육』, 2000 가을, 제3호.

선학태(1998), "남북한 갈등해결 메카니즘",『한국정치학회보』, 32권, 3호.

슈멜터 우베(Schmelter, Uwe: 2004), "화해, 데탕트 그리고 통일의 정책을 위한 신뢰와 불신의 문제", 이 온죽 편, 『신뢰: 사회적 자본』(서울: 집문당).

신일철 외, 『고등학교 철학』,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

신용하(1994),『공동체 이론』,(서울: 문학과 지성사).
신현우(2002), "공동체주의의 도덕교육적 적용", 정세구 외, 『공동체주의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5), 관용 : 평화의 시작-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교수·학생 지침서.
이극찬(1987),『정치학』(서울: 법문사)
이돈희 외 7인 공저(1994), 『교과교육학 탐구』(서울: 교육과학사)
이돈희 외(1996), 『학교 통일교육 내용 구성체계』, 한국교육개발원.
이봉기(2000), "<쉬피겔>이 조사한 통일 10년의 독일",『통일 한국』, 2000. 11.
이상우, 『함께 사는 통일』 (서울: 나남, 1995).
이온죽(1997), "남북한 사회 통합의 이론적 탐색", 이온죽 외 지음, 『남북한 사회 통합론』(서울: 삶과 꿈).
이온죽(1993),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서울: 법문사).
이용교 외(1997), 청소년인권보고서, 인간과 복지.
이용교·이희길(1997), "한국 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의 모색", 아동권리연구 창간호, 한국아동권리학회.
이창렬(2002), "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통일부.
이혁섭(1991), 『한국국제정치론』(서울: 일신사).
장원석, "2004년 브루스커밍스의 북한 독해 일고", 『통일문제연구』, 2004. 5.
정세구 외 3인(1999),『통일교육 교수 기법』, 통일교육원.
정세구 외,『도덕·윤리 교과교육학 개론』(서울, 교육과학사,1998).
정영수(1993), "평화 교육의 과제와 전망", 『교육학 연구』 제 31집 5호.
정용민(2001), "평화교육적 접근의 통일교육", 서울초중등통일교육연구회, 2001년 겨울 자율연수 자료집
정창우 외(2007),『도덕과 교수 · 학습 방법 및 평가』, 서울: 인간사랑,
정현백·김엘리·김정수(2001),『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만남』통일부.
정현백·김정수(2007),『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추병완(2003), "통일 교육에서 평화 교육적 접근의 타당성",『민족통일연구』.

추병완 · 박병춘 · 황인표 공역(2003), 『배려교육론』(서울: 다른 우리)
콜먼 맥카시, 이철우역(2007),『19년간의 평화 수업』,(서울: 책으로 여는 세상).
크루프스카야 지음, 제3세계 문화연구소 옮김(1989), 『크루프스카야의 국민교육론』, (서울: 돌베개)
통일 교육원(2006),『통일 교육 교수법과 그 실제』.
통일교육원,『북한의 이해』(1999- 2003).
통일교육원,『통일교육지침서』(1999- 2007)
통일교육원,『통일문제의 이해』(1999-2003).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2001), 『국내외 평화교육 사례의 통일 교육에의 적용 방안 연구』, 통일부.
평화문제연구소,『통일한국』, 2000년 11월- 2004년10월호.
한국국민윤리학회(1993),『한국인의 민족정신』, 1993. 11. 자료집.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도덕윤리교육』, 제 1집 -19집.
한국정치학회 편(1987), 『현대한국정치론』(서울: 법문사).
한국철학사상연구회편(2002), 『철학대사전』(서울: 동녘).
한만길 외(1997),『학교 통일교육 내용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 연구 CR 97-61.
한만길(2001),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서울: 교육과학사).
허영(2006), 『헌법학』, (서울: 박영사).
허영식(1996), "독일의 통일과 정치교육",『사회와 교육』, 22권.
황인표(2003), “교과를 통한 학교 통일 교육교수의 실제”, 사이버 통일 교육원.
황인표(2001), “남북청소년 문화 동질성 회복 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황인표(2000), “제 6차 통일 관련 교과서 분석”, 통일부.
황인표(2000), “통일 교육 현황과 과제”, 통일교육실무위원회 보고자료.
황인표(2004), “통일교육론 체계화와 도덕과교육 적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황인표(2001), “협동적 구성주의에 입각한 학교 통일 교육”, 서울시교육연수원 중등통일교육직무연수자료집.

황인표(2002)," 통일교육의 과제와 전망", 통일 교육원 연수 자료.
황인표(2002),"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자료 및 활용 방안", 『서울교육』 봄호, 서울시교육과학연구원.

Alan, T., Colloquy: Peace Education in Conflict-Ridden Societies -Conflict, peace, and Education: A Tangled Web-, Conflict Resolution Quarterly, Vol, 21. No.4. Summer 2004ⓒ Wiley Periodicals, Inc., and the Association for Conflict Resolution.

Almond, Gabriel A. and G. Bringham Powell, Jt.,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Little, Brown, 1966.

Carr(1986), 황문수 역,What is history?, 서울: 범우사.

Carter, C., Conflict Resolution at School: Builing Compassionate Communities, Social Alternatives Vol. 21 No.1 January 2002.

Dworkin, R., Liberalsm. Hampshire, S.(Ed.), Public and Private Mor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workin, R., Taking Rights Serious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Etzioni, A., The Spirit of Community, New York: Touchstone. 1983.

Galtung, J., Violence and Peace, A Reader in Peace Studies, (ed) Smoker, Davies & Munske, Pergamon Press, 1990.

Gil Fell, "평화", Hicks, D.(ed), 고병헌 역, 『Education for Peace: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원, 1992).

White, P., "비판에 대한 대응 비판의 논리", Hicks, D. (ed), 고병헌 역, 『Education for Peace: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원, 1992).

Gutmann, A., Democratic Educati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Haste, H., Communitarianism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morality, Journal of Moral Education, 25(1), 1996.

Heckman, S. J., Moral Voices Moral Selves University Park,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5.

Hicks, D., 고병헌 역, 『Education for Peace: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원, 1992).

Lasswell, H. D., Psychology and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Lickona, T., Education for Character: How Our Schools Can Teach Respec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Bantam Books, 1991.